

시로 읽는 성보순례
해탈문에서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22일) · 주간

제 896 호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마음은 맞기도 안맞기도 하다.
마음에 맞아도 탐욕내지 말고
마음 안 맞아도 미워하지 말라.
「잡아함경 제11권」

불교 우수학술도서 고작 '3종'

문광부 선정 발표…지난해 9종서 크게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6월 28일 발표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불서가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불교 주제 학술서로는 △역경학 개론(최종남 외, 운주사) △직지 강설(상, 하)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고혜련, 일조각) 등 3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학술출판 고취 및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우수학술도서 지원 사업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서 선정한다. 그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800~1200만원 상당의 각 선정도서를 구입해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1000여 곳에 보급한다.

올해에는 4176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386종을 선정했다.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에서 불교관련 서적은 2008년에는 8종, 2009년 8종, 2010년 6종, 2011년 9종 등으로 매년 10종 가까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선정에서는 3종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올해 기독교계 우수 학술도서는 6종에 이른다.

이번 심사에서 종교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윤기엽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불교는 신청 권수가 적었다. 그나마 최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될 수준의 신청작이 접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심사위원은 "이번 종교 파트 선정에는 논문집을 비롯해 번역서, 박사논문 등 이미 다른 곳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서적은 제외됐다. 또 심사위원이 속한 출판사나 소속단체의 서적도 배제됐다"고 밝혔다.

한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를 포함해 매년 정부예산으로 보급되는 우

불교 신청 도서 적어
기독교계 신청과 대비
인접학문 접점 모색해야

수학술도서 중 불교서적은 2008년 16종, 2009년 18종, 2010년 17종 2011년 24종, 2012년 15종 등 매년 비슷한 수준.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 계의 활발한 활동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기독교 관련 책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점이 눈에 띈다. 기독교 서적의 경우 심사위원 1명으로 부족해 다른 분야 심사위원이 심사를 도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주관한 한국간행물위원회 유신영 차장도 "각 종교별 집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기독교 관련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학술도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학술성이란 심사와 별개로 '대중성'이란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종교분야에서 불교학술서 선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듯, 불교만의 분야는 한계가 있다"며 "인문학과 불교학의 접점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와 간행 등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수한 인재 양성해 신도회 활성화"

이기흥 수석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당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5대 회장에 이기흥 수석부회장〈사진〉이 당선됐다. 중앙신도회는 7월 6일 제24대 6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이기흥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이기흥 회장은 신도회 운영에 대해 ▷신도회 활성화를 통한 재가불자들의 역할 강화 ▷종단외호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포교기반 구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일련 불교계 사태는 재가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신도회를 활성화해 사찰 운영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불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도 변화시키겠다"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지원, 불교사회화 기여 실현, 종교 평화활동 증진 등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가 불자들의 인적,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불자임을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종단 외호 · 불교 사회화
체육스타 통해 재정 확대

현재 제30회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으로도 활동 중인 이기흥 회장은 "스타 체육인불자 마케팅을 통해서 조직재정 운영금 마련 등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 법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또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해 200여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공로로 지난 해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제30회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25대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은 10월 중순경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김진묵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부회장과 김형남 다르마 법조불교인회 회원을 선출했다.

또한 종단의 쇄신 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결의문을 통해 "종단 쇄신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종단 구성원으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찰재정 관리 투명성을 위해 적극 참여, 화합된 종단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은정 기자



"한국 배우러 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7월 3일 서울시에서 연수중인 WeGO(전자정부협의체) 회원도시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진행했다.

7월1~7일 일정으로 서울시에서 연수중인 10개국의 참가자들은 3일 째 일정으로 서울시 전자정부 관련 시설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진관사를 찾았다.

사찰음식 체험과 다도 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이 2009년 칠성각 해체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진관사태극기'를 보여주며 진관사와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쇄신계획 다지기 잇단 행보

사찰운영위, 중앙징계위 시행령 입법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제1차 쇄신계획의 토대가 될 쇄신입법들의 후속 조치로 분주하다.

조계종은 7월 5일 '사찰운영위원회법'과 '종무원법'을 개정한데 따른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종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사찰운영위원회법시행령'에 따르면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사찰 실정에 따라 주지가 결정하고, 사찰 신도회가 없는 경우 각급 신도단체 대표자가 협의해 위원을 추천한다.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세입세출현황과 항목별 · 구성별 세입세출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며, 사찰운영위원은 11월 말일 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1월 말일 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은 교역직 종무원 징계를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문화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교구본사주지 2명, 중앙종회의원 2명,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법계 대덕(혜덕) 이상의 승려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 공포하고, 위원회를 종단의 공식기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쇄신위원 인원은 기존 19인에서 35인으로 확대됐으며, 종단 쇄신 방안 수립과 법안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개신교계 이제는 '불교계 때리기'?

국민일보, '역사문화기념관' 종교편향으로 지목

조계종 "갈등 우려 주시 중"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전방위 흠집내기를 진행하고 있는 개신교계가 이제는 불교계 전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개신교계 언론인 국민일보는 7월 4일 '잘못된 종교편향 논리를 깨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불교의 정교분리 위반 실제 사례'를 지적하며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하 역사문화기념관)을 예로 들었다.

국민일보는 국고를 지원받은 역사문화기념관이 조계종 종단의 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불교계가 스스로 종교편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개신교계 언론의 보도에 불교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념관에는 박물관, 국제 회의장, 전통공연장, 갤러리, 찻집 등의 공공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다. 대관 역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대부분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7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가 주최한 '서울시 문화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7일에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출판기념회도 진행됐다. 결국 개신교계의 공공연한 흠집내기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빌미로 불교계 전반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개신교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 예장합동 · 예장통합 · 한국교회언론회 · 미래목회포럼 · 공공정책포럼 등의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연구용역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896호 INDEX

종단 2
진각종조 법어집 8개어로 출간
조계종 교역직 인사 단행

종합 3
백일 맞은 '생명평화 천일 정진'

시방세계 5
달인 김병만, 금산사 템플스테이



신행 6
신도증으로 여름을 실속있게

부처님 십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사리불舍利佛 〈중〉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해탈문에서

서 춘 기

문고리를 놓아라
문은 열려 있다
천년 전 그 바람
지금 다녀가고 있으니
문이 없어서 좋은 집
눈물의 집에 문이 있더냐
절망의 집에 문이 있더냐
문이 없어 경계도 없구나
무지개 아니면 첫사랑처럼
허망하게 멀어져 간 것들
오늘 다시 오고 있으니
설레는 가슴으로 강강술래
월출산에 꽃 피어 좋은 날
동박새 숭어 떼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 강강술래
바다의 집에 문이 있더냐
하늘의 집에 문이 있더냐
돌아라 돌아라 가난한 사람들끼리
여기가 극락이다
그대가 극락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서춘기 시인은… 전남 광양 출생.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그 섬에 가려면〉, 〈사람에 취하다〉 등.

종조법어집 '진각' 8개 국어로 출간

진각종 회당종조 탄신 110주년 맞아

진각종이 회당종조 탄생 110주년을 맞아 한국어 포함 8개 국어로 번역한 종조법어집 〈진각〉(JINGAK Awakening of genuine mind)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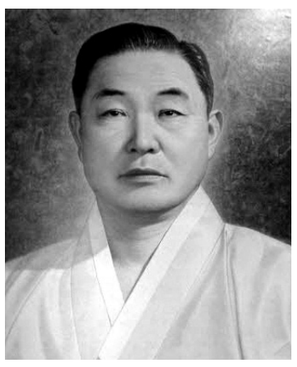
〈진각〉은 종조의 법어인 〈실행론〉중 일상 속에서 참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 가르침이 될 법구 120개가 담겨져 있다.

특히 〈진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싱할리어(스리랑카), 네팔어, 티베트어, 몽골어 등 총 7개 외국어로 번역한 불교계 최초의 다언어 출판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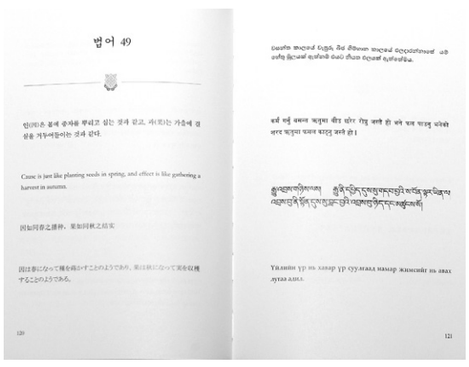
이 책은 진각종 산하 학술단체인 회당학회와 함께 동남아 불교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해당국 스님을 종단유학승으로 받아 들여 종단 문화와 신행을 익히게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진각〉출간에 대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종단의 신행가치인 자성(自性)과 희사(喜捨), 심인(心印)의 가르침과 사회적 의미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전하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계속 다언어로 된 종조법어집을 계속 출판할 예정이며 '진각'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각종 종비유학승 번역 도와
각국 문화와 관습 맞게 번역
7월 30일~8월 2일 회당축제도



진각종 창종자인 회당종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티베트어 등 8개 국어로 번역된 종조 법어집 〈진각〉중 한 페이지

이번 〈진각〉의 제작과정은 우선 영어 번역 뒤 위덕대 유학생과 학술교류 국가 관계자들에게 한글과 영어번역문을 제공한 다음 6개월의 초벌 번역 및 교차 윤독과정을 거쳐 총 1년이 소요됐다. 또 종조 재세시인 해방 전후의 어법에 맞춰진 법어는 현대적 이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각 국 문화와 생활 등 관습에 맞도록 주안점을 두어 번역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각 국 문화 기반에 기초해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으로 〈진각〉은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가 및 관계 기관,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그 외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은 물론 일선 불교학 연구단체 및 대학도서관, 불교계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종단 법보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진각종은 종조(宗祖)인 회당(悔堂) 손규상(1902-1963) 대종사를 기리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인 '2012 회당문화축제'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울릉도에서 개최한다.

'독도 & 아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도동항 미니콘서트,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올 10월경 진각문화전승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단 쇄신 위한 교역직 인사 단행

전통불교문화원장, 국장단 등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일 제33대 집행부의 발전계획 완수와 종단 쇄신을 위한 인사를 시행했다. 자승 스님은 먼저 전 본부장 정안 스님의 후임으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초격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무국장 광전스님, 기획국장 남전스님, 감사국장 무관스님, 재무국장 설암스님, 호법국장 우봉스님, 조사국장 법진스님, 사서국장 현담스님,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 진관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등묵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호법부 상임감찰에 법상스님과 법화스님을 각각 임명했으며, 호법부 호법과장에 법원스님, 조사과장에 종수스님을 신규 임명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행복한 가족주말학교' 개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은 글로벌문화교류포럼과 함께 7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0회(월1~2회)에 걸쳐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행복한 가족주말학교'를 개설한다.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가족 100명(25~30가족) 대상의 가족주말학교는 단양 일대 캠핑장과 한강 난지 캠핑장, 전국 농촌 봉사활동지, 양로원, 북한, 명락사 교육관 등지서 열린다.

주말가족학교는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강연(7월 9일, 서울 명락사 교육관), △구인사 답사 및 농촌체험 캠프(7월 28~29일, 단양) △양로원 자원 봉사(8월 4일) △가족 캠핑(9월 1~2일, 한강 주변 캠핑장) △농촌 봉사(9월 15~16일) △관악산 등반(10월 6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돕기 연탄 나눔(10월 20일) △김장김치 나누기(11월 3일) △양로원 자원 봉사(11월 17일)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7월 23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2)882-7896

김주일 기자

"정말 불교적 삶을 질문해봤는가"

7번째 야단법석서 스님들 재가자에 '쓴 소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은 7월 3일 '출가, 재가에게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7번째 야단법석을 열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스님은 질문없는 재가자가 스님들을 퇴보시킨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나는 수행 전문가다. 전문가에게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재가자를 보지 못했다"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삶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들한테 정말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불자를 위해서도 스님을 위해서도 질문을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스님들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 목탁치고 염불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한편, 야단법석은 7월 10일 '신행, 생태, 마음, 봉사공동체로서 사찰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7일에는 '근현대 불교흐름의 중도적 이해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모색', 24일에는 '결사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다.

신중일 기자

'승려 도박사태' 조사 결과 공개

불법촬영 제적…도박 공권 정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도박사건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조계종은 도박에 참여한 ㅌ스님 등 7명은 공권정지 10년, 도박 현장을 불법 촬영한 ㅂ스님은 제적의 징계를 호계원에 회부했다. 정한영(성호 스님) 씨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조사 않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현행 승려법이 도박이나 도촬 등의 승풍실추 행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법의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현행 종법 내에서 최대한의 징계 회부로 종단의 승풍확립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중일 기자

봉 경봉대선사 탄신 120주년 열반 30주기 다례재 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에서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선풍을 진작하시고 중생교화에
헌신하셨던 경봉대선사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기를 맞아 추모재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귀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2년 7월 16일(음5. 27)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주 최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주 관 경봉문도회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 의 055)382-7182, 382-7083

기념사업

▣ 경봉대선사 열반 30주기 특별전 『삼소굴(三笑窟)』
※전시일정 : 2012년 7월 13일(금) ~ 9월 23일(일)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 경봉대선사 다큐멘터리 불교TV 방영
1회 - 7.16(월) 20:00, 2회 - 7.18(수) 15:30, 3회 - 7.22(일) 13:30

▣ 경봉대선사 사진집 『삼소굴 향성 三笑窟 香聲』 발간
2012년 7월 16일(월) 다례재에 봉헌

▣ (재)경봉장학회 2012년 장학금 지급
2012년 7월 16일(월) 다례재

▣ 통도선문화재단 건립 : 2012년 하반기



불교방송 광고 SBS 미디어렙이 맡아

종교방송協 "공영 변경 주장"

불교방송의 광고를 앞으로는 SBS 민영미디어렙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 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한 일부 중소 · 지방 방송광고와 OBS 광고 일부를 SBS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코바코는 EBS, CBS, 평화방송, 극동방송, YTN라디오, TBS-eFM,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며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광고를 맡는다.

불교방송, CBS, 평화방송, 원음방송이 참여하는 종교방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종교방송은 60% 이상 포교나 선교 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 공영적 성격의 매체"라며 "종교방송 설립 취지를 감안해 종교방송사들을 공영 미디어렙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일보, 査察 기사 조계사에 사과

불법사찰관련 훼불 기사로 물의를 빚은 〈주간한국〉의 모회사 〈한국일보〉가 그간의 갈등에 대해 불교계에 사과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 이하 조계사 호법위)는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 한국일보 사장이 주지 도문 스님을 만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호법위원장 성진 스님은 "한국일보와의 갈등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항의방문 등 대응은 잠정 유보한다"면서 "향후에도 전개 방향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능동성' 유도, 천일 정진 성공요건

'생명평화 1000일 정진' 100일 의미와 과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추진하는 '생명평화결사 1000일 정진'이 7월 5일로 100일을 맞았다. 지난 3월 28일 시작한 정진은 100일, 2400시간을 거치며 1487명의 기도객들을 불러 모았다.

1000일 정진은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등을 발원하며 시작된 종단 차원의 결사다. 이념, 남북, 지역 문제 등 한국사회 전반의 갈등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5일 열린 참가자 간담회에서 "이번 1000일 정진은 출재가의 벽을 허물고 불교와 일반 사회가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있다"며 "한국사회의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발원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선 것"이라고 정진의 의미를 밝혔다.

호응 높지만 취지 이해 부족

도심 한가운데에서 설치된 정진단에서 차분히 기도를 하는 1000일 정진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은 매우 높다.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신도들의 조직적 참여는 물론, 매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개인적 정진을 이어가는 불자도 있다.

매일 새벽정진을 하는 윤용희 씨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이 매일로 바뀌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 좋다. 직장을 다녀 힘들지만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회원 유신화 씨는 "큰 법당에 가면 내 자리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지만, 정진단에 들어서면 이곳이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1시간이라도 착하게 살고 싶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호응은 높은 편이지만 정진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불자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특히 사찰에서 조직적으로 참가한 신도일수록 더욱 그랬다. '몰랐는데 와서 정진하니 참 좋았다'라는 의견이다.



봉은사 신도들이 생명평화 정진단에서 정진을 하고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487명 정진단에 동참 한국사회 · 불교현안 해결 발원 대부분 '先불만 後호응' 소감

이경자 봉은사 사무총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일 정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종단 차원의 정진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정진단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 이 만한 기도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말했다.

문수혜 불광사 신도회 사무국장 역시 "'자성과 쇄신은 스님들이 할 일이지, 잘하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라는 생각으로 처음 왔었다. 하지만 참가해보니 도반들이 다시 와서 기도해보고 싶다고 한다"고 밝혔다.

'일상의 짐' 된 형국, 타개책은?

사찰 신도 참가자들의 '선불만, 후호응'의 소감은 예상된 결과일 수 있다. 정진에 대해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진에 대한 결사추진본부 차원의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도법 스님 역시 참가자 간담회에서 마치 '일상의 짐'이 돼 버린 형국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한 반증이다. 실제, 도법 스님은 "사부대중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흐름을 만들자는 게 1000일 정진"이라면서 "하지만 그런 취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는 바쁜 일상에 일을 보탠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은 "우선 정진단을 중심으로 정진의 취지를 꾸준히 교육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참자들에게 대중용 홍보책자인 〈평화와 행복을 향한 붓다의 길을 따라〉를 나눠주고 일독을 권하고 있 · 으며, 정진단 내에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정진법인 〈정진 도움글〉을 비치해 바른 기도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0일 정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불자와 시민들의 참여 유도도 필수적이다. 직영사찰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동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원명 스님은 "모두가 '생명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함께 논의하고 학습하고 배워가야 한다. 이 같은 거대 담론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정진은 900여일 남았다. 앞으로 2만여 시간과 10번의 계절을 넘겨야 한다.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1000일 정진 결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은 종단, 사찰, 사부대중의 '능동성'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본래 자리로 와야"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이관 결정… 강원지역 불교계 반발

서울대 규장각이 관리해왔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이관에 대해 오대산사고본의 본 소장처였던 평창 월정사와 지역시민사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7월 3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관리해왔던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74책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정사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범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원영환)는 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서울대 규장각에 임시 보관돼오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이전은 환영지만 보관처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아닌 제자리인 오대산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성명에서 "조선시대에는 분산 보관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오대산, 태백산, 정족산, 마니산 등에 나누어 보관했다"며 "서울대 규장각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은 분산 보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립고궁박물관의 실록 관리 지정은 조선시대 사고(史庫) 제도 운영취지에 따라 분산 보관한다는 방침 하에 진행됐다.

이어 범도민추진위는 "2011년 환국한 조선왕조의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문화재청 분산 보관 정책이 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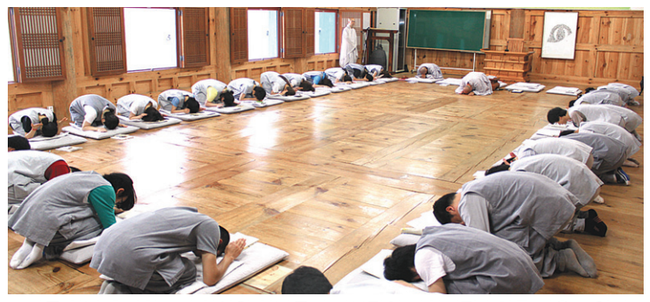
평창 월정사도 "평창 올림픽 개최 예정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 소장 자체가 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올림픽이 문화축제로 거듭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74책 중 27책은 1932년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가 보관해왔으며 나머지 47책은 2006년 일본 도쿄대로부터 반환 받아 서울대에 임시 보관돼왔다.

노덕현 기자

20대 청년 위한 출가학교 문 열다

조계종 교육원, 해남 미황사서… 1일 입재식



조계종 청년 출가학교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본적인 사찰예절습의를 배우고 있다.

20대 청년들에게 '출가'라는 대안적 삶을 바로 알리기 위한 출가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응)은 종단 첫 청년출가학교(학교장 법인)를 해남 미황사에서 열고 7월 1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남행자 19명, 여행자 22명 등 총 41명이 참석한 이번 청년 출가학교는 한달여의 모집 기간동안 20대 청년 272명이 지원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차주 상보〉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은 "홍보 기간이 짧아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도 100여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다. 이들 청년들 모두를 선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종단은 이들이 왜 이렇게 출가학교를 지원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출가학교는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됐으며, 용타스님(행복마을 이사장), 도법스님(실상사 회주), 혜민스님(미국 뉴햄프셔대 교수), 조성택교수(고려대), 고미숙 씨(고전평론가) 등이 교수사로 참여하며 법인스님(교육부장), 금강스님(미황사 주지), 원영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등이 지도법사로 나서 청년들을 이끌었다.

청년 출가학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새로운 사상과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출가수행의 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신중일 기자**

종교인 노후복지 과세로 해결해야

김상구 사무처장 '사찰재정 투명화…' 강의

"종교인 과세를 위해서는 노후제도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신고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3일, 재가연대가 주최하는 리더스포럼에서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사찰 재정 투명화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 사무처장은 조계종 승려 노후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면세점 이하의 미자립 종교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통해 ▷직장의료보험 전환으로 의료보험수가 하향조정 ▷기초생활 보장 자격 등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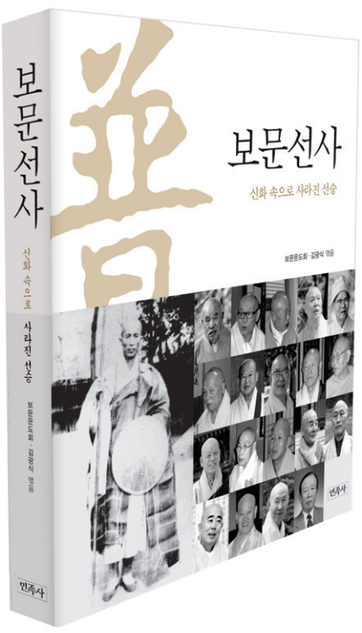
조계종 승려 복지제도 취약 4대보험 복지 혜택 과세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과 동시에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종교인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보문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우큰스님)

갈빗대를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화두만을 붙들었던 스님, 보문스님의 전설이 밝혀진다



진정한 간화선승!
성철스님과 봉암사결사를 이끈 주인공!!
선방의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큰스님, 보문선사

"성철스님은 큰스님이기는 해도 아직 견지가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니여. 내가 보기엔 보문스님이 진짜 선승이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스님은 말을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스님이에요."
성수큰스님(전 해인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보문선사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도회 · 김광식 엮음 | 376쪽 | 정가 28,000원 | 양장(175×22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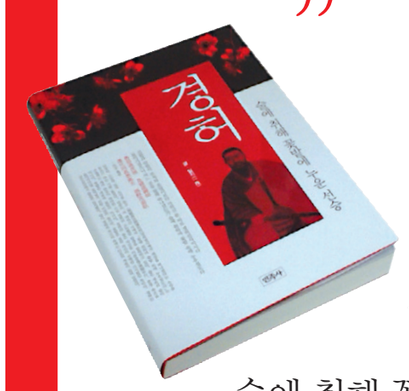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선사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월면"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還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일 주 문



모성건강증진 협약식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6월 29일 지구촌공생회 사무실에서 케냐 카지아도(Kajiado)지역 모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국 금강경강송대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0월 1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2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한다. (02)445-8486



제6회 백미길 걷기 대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17일 충남 예산 옛가야사터에서 제6회 백제미소의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041)330-7700



혜원 스님 파라미타 이사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7월 5일 열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제3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에 선임됐다.



2012 어린이 수련 실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8월 9~12일 두북 정토마을에서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2012어린이 수련'을 실시한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7월 4일 증심사 취백루에서 '33선지식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중앙승가대학교수 미산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최종남 교수 · 니르바나 필하모닉

7월 5일, 제 27회 불이상 수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가 회장으로 있는 여성 불자모임, '불이회'는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 27회 시상식을 열고 최종남 중앙승가대 조교수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각 20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수상자인 최종남 중앙승가대 조교수는 전공분야인 유식학은 물론 역경학 분야에서도 높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 왔으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한 한국불교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불이상은 '불이회'가 지난 1986년부터 실천과 연구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이들을 추천받아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연등 만들어요"

한마음선원 청년회, 10여회 봉축위 시상식 정진상 수상



2012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정진상을 수상했다. 10여회의 연이은 수상이다.

"순수한 신심과 열정으로 장엄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2 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2012년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정진상을, 서지연 법우가 표창패를 받았다. 한마음선원 신도단체가 봉축위로부터 연이어 상을 받은 지도 벌써 10여 회가 넘는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행렬등과 장엄등을 제작하고, 복색을 갖추어 역동적인 연등행렬을 구성하는데 기여해 상을 받았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지도 법사 혜암 스님은 "〈현우경〉에 나타나는 가난한 여인이 등 공양을 했던 이야기를 새기면서 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은사 스님(대행 스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이 오신 뜻과 의미를 살려 정성스레 만들고 한마음이 돼 주도적으로 만들라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도회장은 "일체가 한마음이 돼 몇 달간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만들기 때문에 상을 받은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부처님과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책임감 있게 연등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이준문 기획팀장은 "스님들과 많은 도반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연등제작에 참여했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격려사에서 "연등축제가 불자와 시민, 외국인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 및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봉사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을 비롯해 아름답고 역동적인 연희를 준비해 행사에 흥을 돋운 봉은사 연희단, 조계사 회화나무 음성공양팀, 도선사 어린이회 등 7개 단체가 정진상을 받았다.

이어 아름다운 행렬등을 제작하고 복색을 갖추어 역동적인 연등행렬을 구성한 화계사 합창단을 비롯한 7개 단체가 보현상을, 청년을 적극 지원하고 열정적인 준비로 축제활성화에 기여한 개운사 신도회등 5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또한, 거제불교사암연합회가 특별상을 받았으며 한마음선원 장엄등 제작에 기여한 서지연씨를 비롯한 11명이 표창패를 받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목탁 스님, 미얀마 3부 장관 및 바고 총리와 불교교류 논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미얀마 연방승가회와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목탁 스님은 이번 초청행사에서 미얀마 종교성을 방문해 우 미안 아웅 종교성 장관과 '불교교류 행사지원, 코리아기술종합대학 건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냔 위인 바고 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 불교교류는 물론 기업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교류에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관광청 장관, 문화부장관과도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바고 총리와 미얀마 각 장관들은 목탁 스님의 활동에 큰 기대와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발전된 교류의 상징으로 미얀마 불상을 스님께 기증했다.

한편, 목탁 스님은 미얀마불교도수호협회와 종교성에서 준비한 티크목으로 조성된 대형불상을 기증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02)365-7747

노덕현 기자

"군포교 전법 사명 지키겠다"

신임 군승 12명 탄생, 자승 스님 예방서 다짐


신임 군승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힘차게 경례하고 있다.

"신고합니다. 대위 강건욱 외 12명의 군승은 2556년 7월 2일자로 군포교의 전법을 명받았습니다."

2012년 임관한 신임군승들이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군포교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군승들에게 직접 단주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60만 군장병의 정신건강을 지도하는 사명을 되새겨 잘 생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군승은 육군 7명, 해군 2명, 공군 3명으로 설법, 의식집전, 각종교리 등 집체교육을 거친 이후 학생군사학교 장교교육을 받고 6월 29일 임관했다. 학생군사학교 장교교육에서 여정 강건욱 대위는 성적 우수자로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2년 신임 군승은 육군에 여정 강건욱 대위, 여현 김효민 중위, 자비 김승민 중위, 설여 김홍필 중위, 유경 이석찬 중위, 범여 이중암 중위, 성현 이준영 중위 등 7명, 해군은 영범 권영일 중위, 해운 이경일 대위 등 2명, 공군은 유엄 김하남 중위, 여거 이원우 중위, 용원 최용우 중위 등 3명이다.

노덕현 기자

달력팔아 어려운 이웃 도와

(주)조계종출판사 '달력' 수익금 4000만원 기부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수익사업총괄특보 각운 스님, 조계종출판사 김용환 사장.

조계종출판사(사장 김용환)는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수익사업총괄특보 각운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김용환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조계종출판사가 2012년 추진한 'VIP용 달력' 제작 및 배포에 따른 수익금 전액이다.

조계종출판사는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소속인 사업팀을 이관받아 유통사업부로 재정비해 수익창출을 모색해왔다. 지난 4월에는 수익금 1억 5300만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수익사업총괄특보 스님과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종단 수익 확충에 열심히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하며 "종단 내 필요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기숙캠퍼스 인기

해외어학연수 비롯 참가비 지원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보딩캠퍼스(Boarding Campus) 특성을 살려 마련한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강대는 여름방학 중 재학생들의 외국어능력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중국어 인텐시브(30명) △일본어 인텐시브(30명) △경제분야 영어통역 집중과정(21명), △전문금융인 양성과정(20명) △경제이해력인증시험대비반(50명),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반(70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2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금강대의 전교생이 400여 명임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이러한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교육대 입학식 및 학위 수여식

금강대와 업무협약 체결도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안 천불사(학장 석인경)는 6월 30일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2012년 후기 입학식 및 졸업 학위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의장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해 입학생 93명과 졸업생 41명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과 금강대는 이날 협약식을 맺고 지역문화 육성과 발전을 힘쓰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6월 30일 김제 금산사에서는 개그맨 김병만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해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진은 일감 스님(사진 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 현장


개그맨 김병만과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즐겁게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모습



선재 스님도 특별 강사로 초청돼 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나는 꿈이 있어 행복했다"…거북이는 지치지 않아

김제 금산사 '나는야 꿈꾸는 거북이' 템플스테이 진행
달인 김병만 장애우들에 희망 · 용기 메시지 전해

"개그맨 시험에 7번 실패하고 8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예전 입학시험은 6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30일 저녁. 때마침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제 금산사 보제루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7월 1~2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나는야 꿈꾸는 거북이' 템플스테이를 펼쳤다. 행사에는 개그맨 김병만과, 금산사 일감 스님, 사찰음식연구가 선재 스님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 승가원, 전북지역 특수학교 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400여 명이 모여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김병만은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책 제목을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행사는 일감 스님의 사회로 학생들이 묻고 김병만이 답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TV에서만 보던 유명 개그맨이 나와서인지 학생들은 유달리 꿈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김병만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병만은 "저는 개그맨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어릴 적부터 울렁증이 심해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설명했다. 집에서 연말 시상식을 TV로 시청하면서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자. 그러나 절대 포기는 하지 말자"고 거듭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거북이로 표현하며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인기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말하며 "항상 꿈이 있어 행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은 김병만의 이야기에 점점 몰입해 갔다. 호기심이 넘쳐났던 유년시절, 부모님과의 일화, 개그맨 활동 등 수 많은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김병만은 또 장애우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장애를 가진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장애는 절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는 인생의 걸림돌 아냐
꿈 위해 당당히 일어서야"

장애인 · 비장애인 400여명
편견없는 교류의 장 마련

"장애우들은 스스로가 담을 쌓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한다"며 "스스로 낙담하는 것은 좌절과 불행만이 있을 뿐이다. 주변에서도 동정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야단만 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만의 에세이집 〈꿈을 꾸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를 읽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는 김혜연(14) 학생은 "김병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꿈을 갖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제 꿈은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찰리 채플린처럼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희극배우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영주(29)씨는 "김병만씨의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 며 "무명시절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뒤의 피나는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듯한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행사에는 사찰음식연구가 선재 스님이 참여해 연잎밥, 우엉 버섯볶음, 두부요리, 현미쌀 떡볶이 등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선재 스님은 장애우들과 부모들에게 사찰음식을 함께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강연했다.

또 가수 박강수의 공연을 비롯해 비보이 공연, 버블 및 마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 '숲속의 작은 콘서트'가 함께 열렸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런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무불.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최근 조계종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 · 일상생활 혜택이 다양해졌다. 신도증을 소지한 조계종 신도들은 신도멤버십센터 회원가맹점 120여 곳에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도증 하나면 여름휴가 실속있게 OK

휴가 맞아 리조트 이용 문의 쇄도
10~80%까지 할인 혜택 누려

여름휴가를 앞두고 주부 임정순(47)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성수기를 맞아 치솟는 물가를 감당해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던 임 씨는 숙박비 가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4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있는 리조트 하루 숙박비가 50만원이 넘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뒤늦게 신도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숙박비 할인을 실시하는 리조트를 알게 된 임 씨는 동일 리조트의 숙박시설을 30%나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름휴가가 다가오자 최근 조계종 신도멤버십센터에는 리조트 이용 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 신도멤버십센터 가맹점으로 등록된 리조트는 금호리조트, 하이원리조트, 청평리조트, 청풍리조트 등이 있다. 조계종 신도들은 이 리조트들을 30~8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금호리조트 관계자는 "성수기를 앞두고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고객들의 이용이 15~20%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 신도멤버십 가맹점 120개로 늘어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치과에서 시술하는 인공치아 이식)을 받아야 했던 김영임(가명 · 주부 · 53)씨는 비싼 시술가격에 치과치료를 망설이고 있었다. 김 씨는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하다 우연히 사찰에 함께 다니는 한 신도에게 연우치과를 소개받게 됐다.

연우치과는 조계종 신도멤버십센터 가맹점으로 신도증을 소지한 조계종 신도에게 모든 진료비의 20%를 할인해 준다. 김 씨는 진료상담 후, 지난 달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연우치과는 지난 달 개원 3주년을 맞아 임플란트 특별할인을 실시해, 김 씨는 기존 진료비보다 더 절감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치과진료는 보험이 안 돼 병원을 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조계종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게 치과진료를 받으니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조계종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 · 일상생활 혜택이 다양해졌다.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증대됐다.

조계종단은 신도의 권리증진과 편의확대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조계종 신도멤버십'을 도입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해 8월 정식으로 '조계종 신도멤버십센터'를 개원했다.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신도멤버십센터는 개원 전, 30여 곳에 불과했던 회원 가맹점을 현재 약 120여 곳으로 확대시켰다.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들은 의료시설, 숙박시설, 부동산, 관광, 음식점, 이 · 미용품, 불교용품 등 사업장이 다양하다. 이 모든 업체에서는 조계종 신도를 대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이용금액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정유탁 포교원 신도팀장은 "신도멤버십 사업장 등록은 업체홍보와 더불어 조계종 신도 확대 증진에 기여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 가맹점 홍보 더욱 확대돼야

이 모든 혜택은 '조계종 신도멤버십 신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필수조건이 따른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신도들은 시설이용 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신도등록은 재적사찰을 통해 신도등록서를 작성한 뒤, 포교원에 제출하면 신도등록이 접수된다. 포교원의 접수처리 후 신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반대로 신도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도멤버십 센터 가맹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김동안 신도멤버십센터 팀장은 "신도멤버십 가맹점 시설이용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꼽았다. 현재 신도멤버십센터는 홈페이지와 신도들의 이메일 발송을 통해 가맹점 이용안내를 하고 있다.

김 팀장은 "현재까지는 가맹점 가입 확대를 중점적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신도등록을 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멤버십 사업장 안내 팜플렛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가맹점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신도멤버십센터 가맹점 안내 (기타 가맹점 문의 : (02)732-7274)

상호명	연락처	사업품목
동서한방병원 · 동서병원	(02)337-1110	일반병원, 외래, 입원진료
금호리조트	(02)725-5400	숙박 및 렌트카
하이원리조트	(02)3270-3854	숙박시설, 수영장, 사우나 등
풍림 청평리조트	(02)566-6421	숙박, 각종 부대시설
풍림 청풍리조트	(02)422-8100	숙박 및 각종 부대시설
연우치과	(02)733-1030	치과진료
네오메디 치과병원	(02)400-1905	치과진료
네오메디 건강검진센터	(02)2208-4304	건강검진
명동푸른안과	(02)779-6271~4	안과진료
탑 성형외과 의원	(02)755-2266	성형외과 진료
유세관광	(02)756-5445	여행사업
풍경소리 출판사	(02)736-5583	도서 등 출판
양미화원	(02)753-7827	꽃꽂이 및 화환 장식
생명수한의원	(02)3664-7582	한의원
로터스	(02)3663-6801	생수(먹는 샘물)
경남 모직	(02)2661-2679	템플스테이용 T셔츠, 츄리닝
연화 우리옷 연구실	(02)453-6945	고전한복, 생활한복
봉황한의원	(02)597-0005	한의원
연우와함께	(02)720-7307~9	농산물 전문 쇼핑몰
대성식품(대성건강원)	(02)964-8071	식음료
팜식품	(02)381-8419	식음료
우리 정신과	(031)487-3375	정신과 의원
우리 한의원	(031)469-3347	한의원
불교미술원	(031)826-3121	부처님 조성
두산 이노텍㈜	(031)434-3900	선박용 HOIST
전통불교문화원	(041)841-5050	각종행사 및 연수시설
고려공예	(042)932-5837	전통제기 및 생활용품
일점이 안경원	(043)231-2102	안경용품
밝은눈안과(부산점)	(051)810-3993	안과진료
하미아흑마늘	(055)313-5797	식음료
유진공업	(055)744-1616	중장기 부품가공
명품우리옷	(055)742-3032	고급한복, 생활한복
정정농원	(055)342-1385	곡식물
명가 숯불갈비	(055)266-8522	음식점
완도금일수협수산	(061)552-7761	건광관련 식품
동국대학교 의료원	1577-7000	내과, 외과, 입원 진료 등
(주)새늘	1644-9954	차량용 블랙박스
(주)행남통상	1544-5390	행남자기 생활용품
(주)여치나라	(010)9699-8275	농산물 도소매
케어카라	(080)333-0885	화장품 미용품
(주)해성	(011)744-1080	부동산 중개법인

사찰 신도 재교육 대안 마련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사찰 신도 재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포교종책연찬회를 갖는다. 포교원은 7월 12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의 신도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신도교육체계의 흐름과 재교육 방안'을 기조발제로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봉은사 교무국장 남일 스님, 박종수 중앙신도회 부회장,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김남수 불광사 종무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포교원 측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찰에서의 재교육 충족 요건에 대한 지침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신도교육체계에 대한 흐름과 신도재교육 방안을 되짚어보고 신행활동을 담은 신도재교육이 평생 신행경력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신도교육체계화와 신도조직화를 위해 신도품계제도를 시행하고 품계별 법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남원 실상사, 재가불자 여름학림 개설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가 재가불자들을 위한 여름학림을 개설한다.

1차 여름학림은 7월 30일~8월 3일, 2차 학림은 8월 6~10일 입문반과 경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그 외 예불, 절 명상, 상강례, 차담등은 상시 운영된다.

1차 학림 불교입문반 강의는 원묵 스님(화엄학림 학감), 2차 유마경강의는 법진 스님(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장)이 강사로 나선다. 2차 학림 불교입문반은 혜진 스님(화림원 연구원)이, 초기불전강독은 각묵 스님(실상사화림원장)이 강의한다.

불교입문반은 〈불교입문〉을 교재로 불교를 처음 대하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근본 가르침, 불교문화, 불교의식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

경전반은 초기 대승경전이지만 대승의 진리관, 보살 사상과 정토 사상이 충실하게 담겨 있는 유마경을 통해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2차 주제인 초기불전강독은 빠알리 4부 니까야의 한글 번역본 가운데 중요한 경들을 발췌하여 읽고 공부하면서 불교의 뿌리인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초기불전 강독은 1강당 2시간씩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실상사 측은 "우리 한국불교는 과거의 영화를 간직한 채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불교를 고민하던 2000년 전 대승불교 운동을 온고지신하여 신대승불교운동을 펼쳐야 할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며 "유마경은 사부대중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할 중요한 경전이고 니까야 초기불전 강독을 통해 불교의 뿌리인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올 여름 재가불자학림 경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063)636-3031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빠와 함께 만드는 사찰요리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행복한 가족의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빠와 함께 만드는 사찰요리 강습을 진행한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가족이 진정한 울타리이자 쉼터가 되려면 아빠와 자녀의 부단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함께 요리를 함으로써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국제선센터 지하 1층 향적세계에서 진행되며, 매월 매주 첫 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수강료 2만원 (02)2650-2200

이은정 기자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언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경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장 (10,11대)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7,8대) 축

이 · 취임식

10대 회장, 7대 이사장 : 법혜스님 (이임)
11대 회장, 8대 이사장 : 경희스님 (취임)

일 시 : 불기 2556년 7월 17일(화) 오후 3시
장 소 :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
행사일정 : 오후 2시 - 자비의 쌀 나누기 / 3 시 - 이 · 취임식 / 4시 - 공양

화환은 사절하오며 쌀로 보내주시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원일동
부설기관 및 단체 임직원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번지
불교대구회관 053)629-9500

“우울증 조기발견 하면 자살 줄어”

생명나눔,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자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병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활동이 필요하다.” (최의헌 원장 연세로뎀 정신건강의학과)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순간을 잘 이해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잘들어주며 함께 견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이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위기상담특별위원장)

“자살을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야 한다”(이영의 강원대 철학과 교수)

“자살은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위기 측정 방법은 없다”(하상훈 한국 생명의 전화 원장)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의 강원대 교수, 유영권 연세대 교수, 강이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위기상담 특별위원장,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

중장년층 우울증 환자 가장 많아
자실시도 이유 · 의미 먼저 살펴야
가족들 고통 잘 들어주고 이해필요

7월 4일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 자살자는 1만 556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인 153명이 증가했다.

이런 시기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전문적 차원에서 생명나눔자살예방센터를 2011년 6월 1일 개원하고 설립 1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열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려면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앓는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앓아 힘들었던 적이 있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법인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고통 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살의 정신의학적 측면’을 발표한 최의헌 의장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병세가 호전돼 가족들이 안심할 때 자살시도 확률이 높다”며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한 첫 주간이 자살위험이 높고, 퇴원 후 6개월 내 자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자살로 생을 마친 10명 중 4~8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증 환자 중 10명 중 2명은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증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인자로는 △남자 △노령 △독신 △이혼 △혼자 사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최 원장은 “그러나 자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병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위기의 심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강이영 위원장은 “자살은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한 양가적인 감정”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망설인다”고 말했다. 실제 자살 의도 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강 위원장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순간을 잘 이해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잘 들어주며 함께 견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의 교수는 ‘자살예방 치료를 위한 철학모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철학치료는 자살 위기자 스스로 주체적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자살을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확인했을 때 자살이 그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인지 반박한 후 함께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상훈 원장은 ‘자살위험 평가 및 개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원장은 자살 위험 평가의 6가지 기준으로 △자살의도 △최근 자살계획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이전 자살시도 △정신건강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하 원장은 자살위기자를 돕는 방법으로 △주의를 길들이기 △경고신호 점검하기 △자살자와 접촉하기 △자살자에 대해 질문하기 △존중하기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6월 설립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위기상담 △인터넷 사이버상담(비공개, 이메일) △면접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청소년 및 성인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02)735-101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복지법인 산하시설 업무 효율 기대”

조계종 복지재단 · 하나은행 협약 체결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오른쪽서 네번째) 및 임직원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맺고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이 나눔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3일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하나은행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재단은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의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사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현주 부행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불교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복지정보시스템의 프로세스 혁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은 양측의 금융관리 · 정보기술 · 사회복지 노하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홈페이지 · 그룹웨어 · 후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선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강화 △투명한 기관 운영 △행정 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일조할 이번 협약이 불교사회복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약식을 마친 뒤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 이현주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선물을 교환했다. 이나은 기자

201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전

시상금 1100만원 규모…지난해보다 1.5배 늘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서울노인영화제에 앞서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공모전’을 연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 공모전은 출품작 공모와 제작지원공모로 진행한다. 출품작 공모는 만 60세 이상의 감독의 자유주제 부문과 만 60세 미만 감독의 노인주제 부문으로 구분되며, 30분 내외의 창작영상으로 장르에 관계없이 출품 가능하다. 상금규모는 총1100만원이다.

제작지원사업은 노인감독의 활발한 영상제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우선 영화제작기획서를 공모해 선정한 뒤 영상제작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지원과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물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감독으로 순제작비 300만원 미만의 단편영화 제작에 한 한다.



청원 스님은 “서울노인영화제가 열린 이래로, 지난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며 “이는 미디어라는 콘텐츠의 대상에만 그쳤던 노인이 주체가 돼 영화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위상이 그간 상당히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도 세대 간의 따뜻한 공감이 있는 서울노인영화제에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인영화제 공모기간은 8월 1~14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http://sisff.tistory.com)를 참조하면 된다. (02)6911-9500 이나은 기자

앨범 발매 기념 캄보디아 우물지원

백청강 팬들, 위드아시아에 후원금 지원

가수 백청강이 첫 앨범 발매를 기념해 캄보디아 빈곤지역에 기부를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백청강의 팬들이 후원금을 모아 국제구호 NGO단체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에 기부해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 2개가 완공된 것.

이에 앞서 백청강의 팬들은 올 초 3월에도 백청강의 생일을 맞이해 캄보디아 빈곤지역에 마을 공동화장실과 우물을 지었다.

지원 스님은 “기부된 우물은 마을에서 자체 관리인을 선출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 할 예정이며, 우물 한 개당 20~30여 가구(80명~100여명)가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부로 마을에 우물이 전혀 없어 식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건기에는 우물의 물을 이용해 밭농사에 유용히 쓰여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드아시아는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빈곤 · 소외계층을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으로서 2011년 2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로 명칭변경을 승인받았다.



백청강 팬들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우물을 짓게 된 캄보디아 주민들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구호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각 나라 절대 빈곤 지역 마을에 화장실, 우물설치와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원폭2세 환우 쉼터인 합천평화의 집과 연계하여 원폭피해자 및 2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051)322-7902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징 계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법에 의거 아래 3인을 체탈도첩에 처합니다.

성 명	법 명	주 소	적용법령	위반사항
안종명	상 천	부산 동구 초량6동 843번지 금수사	규정원법제4장16조	1,2,3,4항
김상배	상 묵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67-3번지 고왕사	규정원법제4장16조	1,2,4항
손영채	우 석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울산사무소 총무부장	규정원법제4장16조	1,4항

규정원법 제4장 16조

1항 :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가 있는 자.
2항 :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 자.
3항 : 교의에 대하여 이단설을 주장하고 전교를 모략한 자.
4항 :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피하는 자.

2012년 6월 28일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임우섭 (성암)

간화선은 인류정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행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실참 이후 선원장과 문답
봉화 축서사 무여스님과 외국인학자 문답 지상중계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이 공주 마곡사에서 간화선 실참 이후 7월 2일 문경 봉암사와 봉화 축서사, 3일 충주 석종사에서 선원장 스님들과 문답을 통해 화두선 실참의 의심을 풀었다. 문답자리에는 외국인 교수 및 참가자 33명을 포함해 63명의 수행자가 선원장 스님들에게 실참하며 느낀 의문점과 간화선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7월 2일 축서사에서 진행된 문답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의 소개 인사와 함께 무여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무여 스님은 간화선 화두참구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미 햄프셔대 교수)이 통역했다.


7월 2일 열린 봉화 축서사에서의 대담현장. 무여 스님(오른쪽줄 중앙)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일일히 간화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도했다.

무여 스님 : 부처님께서 〈열반경〉을 통해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선문중에서는 활구참선을 만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학자님들이 화두참선을 만나기도, 또 이를 연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좋은 인연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화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깊게 깊게 실참실구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이 화두를 통해 느껴 보시란 것입니다.

화두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은 것이 간화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화선을 실참실구해 진수를 체험하시고 간화선의 최상승법, 최고의 법임을 꼭 느끼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것은 바로 인류 정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출중한 것이 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두선은 체험없이는 일언반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험 만이 화두선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졌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깨치고 나서 사흘을 춤추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흘간 춤을 추셨겠습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사흘간, 혹은 삼십 일간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화두선인 것입니다.

– 흔히 화두선의 과정을 은산철벽의 과정에 비유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스님께서 수행하신 나름의 과정을 들려주십시오.
(제니퍼 에이흐먼, 모레이비앤대)

좋은 질문입니다. 화두선의 핵심은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정은 간절하고 성심성의껏 해야 하며 끊임없이 일으켜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의정이 동반합니다. 화두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없이 미적지근한 의정을 가지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미적지근합니다. 의정은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간절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그 절실함을 옛 어른들은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목 른 사람이 물 생각 하듯이, 늘 엄마품안에 놀던 아이가 집나간 엄마를 생각하듯이 절실하게 성심 성의껏 애쓰다 보면 참으로 진의가 돈발 합니다. 진의가 돈발 하자마자 그때부터 용맹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맹정진이란 화두를 한 순간도 놓지 않고 애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두는 점점 순숙이 돼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하게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도 멈추지 말고 더 용맹심을 내서 애쓰고 애쓰다보면 진정한 의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타성일편이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늦추지 말고 애쓰고 애쓰다보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타파하게 됩니다.

– 7일간의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고난 뒤에는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쉬라고 하셨는데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요?
(페이잉 린, 옥스포드대)

현대인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보고 지식을 쌓아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알음알이로 만족한 생활을 하시다가 그걸 버리고 순수성를 찾아 나섰으며 오직 화두선이라는 진실성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얼마든지 비울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나자마자 그 나는 곳을 향해 얼른 화

목마른 사람 물 생각 하듯
화두 의정 간절 · 절실해야
체험없이는 행복의 맛 몰라
의정 안나면 선지식 진단 받자

두를 챙기세요. 그러면 번뇌망상은 이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져 어떤 일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화두에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상당히 다스릴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 복이 있다는 것과 간화선 수행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오렌 해너, 렐아비브대)

간화선에 복과 혜가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자는 복혜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화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관건으로 삼으십시오. 화두가 오는 때, 부처님 같은 복과 지혜가 함께 오는 것을 믿고 오직 화두에만 몰두하십시오.

그러나 화두 한다면서 복에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화두에 더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운운하는 것은 복도 갖추기 어렵고 화두도 쥐기 어렵습니다. 화두선은 복혜가 구족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 화두를 잡고 수행을 하니, 화두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화두를 억지로 더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화두를 참구해야 하는지요?"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 명예원장)

화두에 의정이 안 나는 사람일수록 얼른 선지식을 찾으십시오. 그런 상태가 되는 분은 자신을 점검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지식에게 자기의 병통을 진단받아 확실한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깨치고 못 깨쳤느냐는 선지식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선가에서 의심을 작게 가지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크게 가지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혜종고스님도 18가지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니퍼 에이흐먼, 모레이비앤대)**

깨달음, 즉 확철대오는 오직 하나 뿐입니다. 뒷산의 정상은 오직 한 곳 뿐입니다. 여러 번 깨쳤다 하는 분들도 팔부능선에 올라갈 때는 팔부 능선에서 깨쳤다 하고, 구부능선에서는 구부능선에서 깨쳤다 합니다. 능선마다에서 깨침은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깨침의 용어를 쓰지 말고 좀 맑아졌다, 밝아졌다는 표현을 쓰면 맞을 것입니다. 깨침은 오직 상봉 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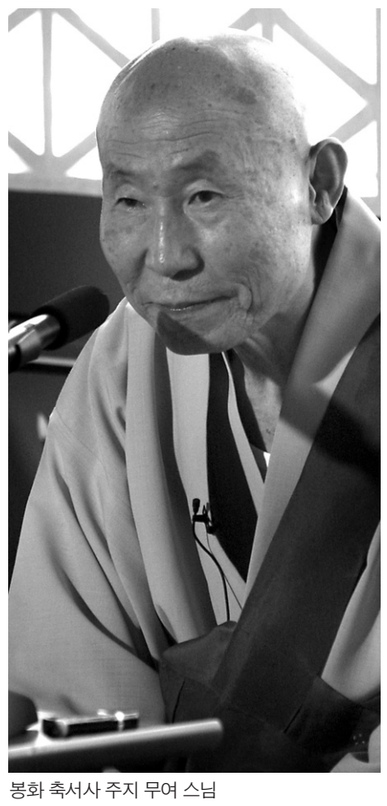
–확철대오 후에도 좌선을 합니까? 그리고 한다면 왜 해야 합니까?"
(마크 슈마허, 프리랜서)

그것은 학자님이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도 늘 선정에 드셨습니다. 선정에 드는 자체가 행복이고 보람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이며 깨치고 나서도 즐기고 닦는 길입니다. 학자님께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 많은 한국의 스님들께서는 화두의 정의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자리'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화두를 방편 삼아 '깨쳐야 할 대상' 이라고 말합니다. 무여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혜민 스님, 햄프셔대)

둘 다입니다. 이는 옛 어른스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화두는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어떤 생각이나 분별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화두는 늘 의정을 일으켜 깨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화 축서사 / 글 · 사진=김윤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대표)


봉화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이날 문답에는 60여명의 수행자들이 참여했다.

www.gounsa.net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 참가비 : 오만원
●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 · 고생 영어수련회

● 일 시 :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 참가비 : 칠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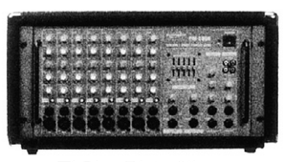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 1차 수련회 (8월 6일~ 8일)
2차 수련회 (8월 9일 ~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 참가비 : 일십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종무소 054)833-6933. 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 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 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보조 스님 '간화선법' 은 위조다"

박건주 박사, 보조사상硏 100회 특집 발표회서 주장

보조 지눌 스님의 간화선 주창 근거로 꼽히는 대표적인 저서 〈간화결의론〉의 진위를 부정하는 발표가 나와 화제다.

박건주 박사(전남대 강사)는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100회 특집 월례학술대회에서 "〈간화결의론〉이 보조 입적 이후 발견됐으며 그 직계제자인 진각 혜심의 위작이다"고 주장했다.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 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 내용은 1982년 권기종 당시 동국대 교수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박건주 박사는 여기에 △절요사기에서의 위조 △보조비명에서의 위조 문제를 들어 〈간화결의론〉의 위조 논란을 비롯한 보조 지눌 스님의 간화선 주창 논란을 재점화 했다.

박 박사는 "보조는 6조 혜능 이후 여러 계파 중 하택신회를 가장 높이 평가해 생전 저술에서 하택신회와 그를 계승한 규봉종밀의 법문을 자주 인용 · 의거했다"면서 "그런데 〈절요사기〉 맨 앞에 혜능의 적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기술한 것은 상식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이어 "보조가 입적한 다음해인 1211년 작성된 보조비명을 주도한 것은 행장을 담당한 진각혜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조비명에는 보조 스님이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경절문' 의 삼종문으로 생전 법을 펼쳤다고 전하고 있다. 이중 성적등지문은 정혜쌍수, 원돈신해문은 화엄경론, 경절문은 간화선법으로 요약된다.

박 박사는 "성적등지문과 원돈신해문은 앞선 여러 저술에서 설해져 있다. 하지만 경절문은 입적 수개월 전 저술한 〈절요사기〉 4군데와 비명, 유작으로 입적 5년 뒤 간행된 〈간화결의문〉에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간화결의론을 보조의 저술이라 가정하더라도 그 저술시기가 입적 7~8개월 이전이 될 수 없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입적 전 저술로 평생의 주장을 뒤집기는 힘들다. 진각혜심에 의해 꾸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간화결의론은 같은 유작인 원돈성불론의 내용을 전제로 하지만 그 안의 돈법, 선법이 모두 화두참구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박 박사는 진각 혜심 스님의 스승에 대한 저작 위조는 중국 남종선에서 행해졌던 제자들의 선대 저술 집필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남종선에서 특히 하택신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선대 이름을 따 저술한 경우가 많다"며 "여러 계파들이 정통성을 표방하고 전승계보를 갖추기 위해 계보사서를 저작하였다"고 말했다. 간화선 또한 종래 선법과 다른 선법을 주창하며 그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논평으로 나선 최연식 목포대 교수는 "발표자는 〈간화결의론〉 만이 아닌 〈절요사기〉의 간화선 부분도 혜심에 의한 위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조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지눌 스님 선사상 핵심인 무심선과 간화선의 상호모순성 지적도 안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아닌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주제로 진행된 이병욱 고려대 박사의 '성철 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 에서는 성철 스님의 보조 사상 비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 박사는 "성철은 〈선문정로〉에서 보조 지눌의 사상을 '화엄선' 에 속한다고 평가했지만 〈증보판〉에서는 '화엄선' 이라는 용어 대신에 외선내교(外禪內敎)라고 말했다"며 "성철은 보조지눌이 경절문의 경지가 지해(知解)의 해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하지만 성철의 수증론에도 문제가 있다"며 "성철의 보조지눌 사상 비판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성철은 수증론을 옹호하기 위해 청허서산, 대혜종고, 나옹혜근의 사상을 인용하지만 잘못 인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주제에서는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이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가' 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결의론〉저술, 제자 진각이 위조
중국 남종선 '계보사서' 사례 제시



보조 스님의 간화선 주창에 의혹을 제기한 박건주 박사

"신라 왕족, 불교를 왕권강화 상징으로"

동국대 HK사업단, 1차 연구성과서 이자랑 교수 주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의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하늘과 신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다. 바로 왕권이 약화됐을 때 또 다른 하늘의 대리자들이 등장하는 등 하늘과의 특수한 관계가 해체되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불교가 융성한 신라시대에는 이러한 천강의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다. 바로 석가족과의 혈연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종설이다.

이자랑 HK연구교수는 7월 5일 동국대 영상센터에서 열린 HK연구단(단장 김종욱) 1차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신라왕실의 진종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신라 왕실과 석가족의 혈연관계를 주장하는 진종설은 하늘(天)에 기원을 둔 천강족(天降族)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며 "하늘의 자손이라는 범위를 보다 특수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석가모니를 하늘로, 해당왕족을 그 혈연으로 삼는 논리가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신라귀족 세력의 논리보다 앞선 왕족만의 논리가 필요했다"며 "진흥왕이 아들들을 전륜성왕으로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나, 진평왕이 진종설을 주장한 것 모두 불교가 왕권강화에 이용된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고승학 HK연구교수는 신라불교신앙이 보편적인 중생구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기존의 신라불교신앙에 대한 인식에 새 시각을 제공했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를 분석해 "신라 불교신앙이 국가차원의 호국과 개인적인 불보살의 가피 위주였다"며 "용에 대한 신앙과 왕과 귀족이 사후 수호신이 되는 점 등 불교신앙이 무속 세계관의 비효율성을 보완 · 승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런 불교의 포용력이 삼국통일 이후 사회 안정을 이끌어 냈음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불교 신앙이 하층민으로 보급되는 선상에서 보면 미륵 · 관음 · 아미타 등 다양한 신앙 양태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관계를 유지한 점이 이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신라불교의 흐름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호국과 통일에 대한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연등회 전승을 분석한 이종수 HK연구교수는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 불교세가 약화됐다는 기존인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종수 교수는 "불교가 신라 · 고려시기 왕실과 귀족 신앙 위주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민중 우선의 신앙으로 자리했다"며 "연등회가 민가 풍속이자 축제로 정착된 점은 이러한 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8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을 주제로 인문한국사업을 시작한 동국대 HK사업단은 1년차 '원형의 고유성' 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종욱 단장이 1차 연구발표에 앞서 연구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도륜의 유식 오종성설(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박인석 HK연구교수) △조선시대 연등회의 존폐와 그 문화적 전승(이종수 HK연구교수) △무량수경 신라주석에 보이는 '하늘' 관념의 변용과 업설(김영진 HK연구교수) △제정일치적 천강(天降) 관념의 신라적 변용(이자랑 HK연구교수) △신라시대 불교금석문에 나타난 변체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김기종 HK연구교수)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원력의 의미(고승학 HK연구교수) 등 6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동국대 수행 전문과정 개설

승가수행학, 학인 스님 대상 1년 의무과정, 2학기 첫 수업

동국대 불교대학에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에 관한 과목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7월 5일 "불교대학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전공필수인 '승가수행학' 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승가수행학은 1년 2학기 과정으로 오는 9월 첫 수업에 들어간다.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 120여 명은 모두 의무적으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수행에 관심 있는 일반학생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첫 학기에는 조계종의 이해, 법회의례, 성보문화, 불교사 등 강의가 진행된다. 2013년도부터는 간화선 등 실참수행, 리더십 교육, IT 포교, 명상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사찰 경영 · 경제학, 불교문화재 관리, 불교콘텐츠 개발, 명상심리학 등 불교현장에서의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조계종의 역사적 흐름',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의 '간화선의 이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의 '성보문화의 이해',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한국불교의 의례사', 동방불교대학원장 인경 스님의 '명상 심리학' 등이 각각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체 강의 마무리단계에서는 석림동문회(회장 영담) 주최로 학인 스님들과 석림동문회 스님들이 함께 불교유적을 답사하며 전체 강의를 평가할 예정이다.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학인 스님들에게 수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의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게 됐다"며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를 대거 초청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의 활동과 전망 모색

불교사회연구소, 7월 18일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2차 세미나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의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는 오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활동과 전망' 을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이 '조계종 승가교육의 활동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조계종 포교활동의 성과와 전망' 을,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현대 한국사회와 조계종의 미래' 를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각각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국제불교학교 보드리 교수 강좌

7월 10일부터 일반인 대상 영문해설 진행

중앙승가대에서 불교영어를 가르치던 존 보드리 교수(국제불교학교 겸임)가 서울 남산 인문의역학연구소에서 7월 10일부터 일반인을 위한 달라이 라마 강좌를 개설했다.

보드리 교수는 달라이 라마 저서 〈How to See YOURSELF As You Really Are〉를 기반으로 수행에서의 질문에 대해 영문해설을 시도한다.

보드리 교수는 "한역 경전보다 영어 텍스트를 통해 불교를 만나려는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공부할 한 권의 책' 이 정해진 교재 풀이용 수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8주간에 걸쳐 8 주제로 질의와 응답을 중심으로 토론 형식을 통해 잘못 인식된 '자아' 의 개념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해체할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인근 사찰들 환영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찰이 몰려있는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무등산 주변의 사찰들 변화가 요구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6월 무등산국립공원 경계를 총 82.30㎢로 확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안은 광주 동구가 21.07㎢(25.60%), 북구 28.85㎢(35.05%), 전남 담양 14.76㎢(17.93%), 화순 17.62㎢(21.41%)의 면적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구로는 공원자연본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외에도 증심사 · 약사암 · 규봉암 · 원효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와 증심사 및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8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사찰과 불교관련시설들은 새로운 변화 모색이 요구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무등산에는 전통사찰인 증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약사사, 규봉암과 문빈정사을 비롯해 무등산 경계 안 인근에 100여개의 사찰과 암자가 위치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같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며, 관리비용도 국가예산으로 지출된다. 그중 전통사찰은 지난 4월에 공시된 관련법령에 의거 문화재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돼, 기존 건축물의 허가가 단순화 된다"고 말했다.

무등산 인근 100여개 사찰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긍정적
사찰과 자연화경 어우러지는
생태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예정돼, 무등산 내 위치한 사찰들의 변화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무등산 중심사 전경

특히 "무등산지역은 기존 원효사지구에 위치한 관리사무소가 증심사지구로 이전이 되며, 화순과 담양지역에도 각각 개설이 된다. 또한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들은 국립공원 승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등산 대표 사찰인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무등산에는 많은 문화재 사찰들이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무등산의 격이 높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있다"며 "공원이란 생태적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이 공존해야 된다. 무등산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사찰 문화 등이 한께 보존 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북한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기암괴석인 서석대와 입석대 주의로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서 한 시간 이내 위치하면서도 해발 1187m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명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 발견

석탑 해체 보수공사 중 발견…보존처리 위해 작업 중지

전북 익산 미륵산 심곡사(주지 화평) 7층석탑(전북 유형문화재 192호)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익산시는 7월 3일 심곡사 칠층 석탑이 북쪽으로 기울게 된 원인 규명과 지반 안정성 검토를 통한 석탑 해체 · 보수정비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진행되던 중 사리장엄구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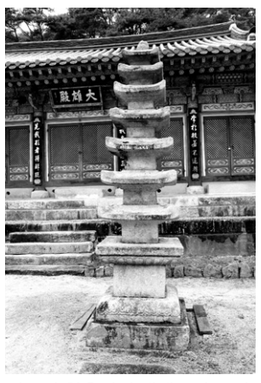
석탑이 기울어진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3D스캔 촬영 통한 수평수직 변위조사, 굴절법 탄성파탐사와 전기비저항탐사 등 지구물리탐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석탑 해체 후 지반 보강 방안이 결정돼, 석탑 해체작업 중 6월 23일 2층 기단 중대석 노출과정에서 방형의 사리공(15.5×15×10.5㎝)이 발견됐다.

사리공 안에는 백자소호 1점과 금동 및 청동여래입상이 각각 1구씩 봉안되어 있었다. 또한 뚜껑 없이 안치되던 백자소호 안에서는 사리 1과와 청동원경 1점, 향목 및 직물 편 등이 확인됐다.

이후 기단 하부 지대석 노출과정에서 지대석 상면 중앙에 금동불감(佛龕)으로 추정되는 안치된 사리공(24㎝×23㎝×18㎝(깊이))이 발견됐으나 불감 수습에 있어 별도의 보존처리 등이 요구되어 보호조치 후 작업을 중지했다.

6월 28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김용한) 및 매장문화재, 불교미술사 분야 전문가 협조를 받아 지대석 내 사리공 안의 불상과 불감에 대한 수습이 완료됐다. 수습된 사리장엄구 일체는 현재 익산 왕궁리유 적전시관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 안에 임시 보관중이며 빠른 시일 내 보존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도 진행중이며 보존처리과정이 끝나면 사리장엄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방형태의 불감 크기는 23.5×18㎝이며 평평한 뚜껑 상면에는 화형받침이 있는 두개의 고리가 부착돼 있으며 뚜껑 가장자리는 말각 상태이고 정면쪽 끝단에는 연판문으로 장식돼 있다.



심곡사 칠층석탑 해체 보수공사 전 모습(왼쪽)과 해체 · 보수 공사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

정면에 문을 설치해 여닫도록 제작됐으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불감 안 벽면에는 불상 등이 부조되어 있으며 수습된 파편들로 보아 정면 문 쪽에도 문양이 부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감 안에는 여래 및 보살상 등 7구 정도가 봉안돼 있으나 위치는 흐트러진 상태이며 현재 내부에 흙이 충진 돼 있는 상태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감의 뚜껑은 부식이 진행되어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불감 정면 역시 훼손이 심해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불감에 대한 정확한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보존처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륵산 서북 편 기슭에 위치한 심곡사는 통일신라 때 무염대사가 수도처를 찾던 중 미륵산 깊은 골짜기에 창건했다하여 심곡사라 불리게 됐다. 또한 현재 사찰은 100여년 전에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다고 전한다.

심곡사 칠층석탑의 해체보수공사는 지반 보강공사 및 탑 부재에 대한 보존처리가 끝나면 조립에 들어가 오는 8월 중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태고종 화합 발전 도모

6월 28일 태고종 주지총회 개최

광주전남지역 태고종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지총회가 개최됐다.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호산)는 지난 6월 28일 광주조선컨벤션에서 '불기 2556년 주지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명 스님(원로의원), 성천 스님(원로의원), 호산 스님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태고종 회원사찰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교구의 소속 사찰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교구 발전과 호남불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금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소통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소통이 원만히 되었을 때 비로소 화합이 된다"며 "교구 회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무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주지총회에서는 ▷사찰분담금 납입 ▷시민선방 개원 ▷마애여래좌상 보물 승격 발의 ▷3/4분기 불교의식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이 나눠졌다. 한편 행사는 주지총회에 이어 원광대학교 김귀성 교수의 '가족 포교'에 대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위사 아미타삼존불 복원 불사 회향

6월 30일 개금불사 회향 · 점안법회 봉행

남도답사 일번지인 강진 무위사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복원을 거쳐 점안됐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화)는 지난 3년여 복원과정을 통해 지난 6월 30일 극락보전에서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위사 주지 법화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복원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성보문화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 초기 불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며 보물 제1312호로 지정돼 있다.

복원과정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영산문화재연구소에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 대한 보존상태 등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소조 아미타불 좌측어깨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것이 발견됐다.

그 후 관련 전문가 연구원 10명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증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립박물관에 보관된 유리원판 사진을 토대로 1년이 넘게 제작기법 및 흙의 종류와 성분까지 밝혀내며 원래 형태로 복원했다.

과학적 조사가 실시되면서 삼존불상의 본존인 아미타불상이 나무로 만든 목조가 아닌 흙으로 빚어서 만든 소조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존불은 연하좌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불상이고, 연하좌 기법은 흙으로 연꽃잎을 하나씩 손으로 빚어 조성됐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정명이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에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바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무위사는 3년여 복원과정을 통해 6월 30일 극락보전에서 아미타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및 정안법회를 봉행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三笑窟 선향의 체취 재조명

통도사, 7월 13일부터 경봉 선사 선양 사업 본격 전개

"향기 소리 나는 깊은 곳에서 '상부상차(相扶相茶)'라 서로 차나 한잔 나누세"

고려 시대부터 이어 온 차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근세 선승 중 한 명인 경봉 스님.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주석하며 선객들과 차를 마시며 법담을 나누곤 했다. 극락암에서 하는 차 공양을 '극락선차(極落禪茶)'라 하고, 삼소굴에서 이뤄지는 차회를 '삼소다회(三笑茶會)'라 한다.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통도사와 극락암 경봉 문도회는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기를 맞아 7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반 30주기 다례재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이에 맞춰 발간된 경봉 스님 추모 사진집 〈삼소굴 향성(三笑窟 香聲)〉이 봉헌되며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경봉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13일부터는 경봉 스님 열반 30주기 특별전 '삼소굴(三笑窟)'이 진행된다. 9월 2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경봉 선사의 친필 유묵, 달마도를 비롯하여 스님의 삶과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50년 간의 일기, 당대 선지식과의 문답을 담은 편지, 화엄산림 대법회의 역사를 담은 기록과 게송을 비롯하여 선사의 자취가 느껴지는 유품 등 약 350여점의 작품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 전시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친필 이외에 달마도, 선가심우도(禪家尋牛圖), 안거 해제운 등이 공개되는데 이는 선사로서의 경봉스님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13일부터 특별전, 다큐 등 다채
16일, 다례제 · 추모사진집 봉헌

밥 먹고 차 마시는 살림살이가(喫飯喫茶人生)
일상 삼매의 소식이라.(日常三昧之消息)
이 소식을 알겠는가!(會得麼)
차(茶).

평소 스님은 차로 그 깨달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7월 16일 오후 8시와 18일 오후 3시 30분, 22일 1시 30분 불교TV에서는 경봉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차와 관계된 스님의 행화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이밖에 통도사에서는 7월 동안 차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봉 문도회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통도선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통도선문화재단은 통도사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에 지부와 수행센터를 설립한다.

통도사 측은 "자성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님의 평소 가르침과 중생 교화와 구제에 헌신하신 그 서원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경봉 스님은?

경봉 스님은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07년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1927년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었다. 한암 스님과 만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교류했고, 극락암에서 50여 년간 머물다 입적했다. 스님은 시·서·화 등 삼절에 선, 차까지 두루 갖춰 오절(五絶)로 불렸으며, 사찰에서 화장실을 지칭하는 '해우소'란 말을 만들기도 했다.



'연등 아래 장엄한 연화장 세계'

삼광사 제1회 연등축제 공모전 금상 수상작

삼광사가 주최한 '제1회 삼광사 연등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에서 김영진 씨의 '연등1'이 금상을 수상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 심사위원장)는 6월 18일 '제1회 삼광사 연등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삼광사 연등축제 행사 기간 내 촬영한 삼광사 사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심사는 삼광사 대명 스님을 비롯해 한국사진작가 협회 부산지회 3명이 맡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900여점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돼 CNN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인 삼광사의 풍광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금상(법화상)에는 김영진 씨의 '연등 1', 은상에는 김재섭 씨의 '우리가족이름'과 최관식 씨의 '기원'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동상 3점, 가작 5점, 특별상 5점, 입선 62점도 선정됐다.

시상식은 7월 1일 삼광사 대웅전에서 열렸으며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 가작에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선정작 전시는 7월 3일부터 삼광사 경내, 7월 4~13일까지 부산시청 지하철역에서 열렸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민족통일불교協, 국민화합대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가 주최하는 '국가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불교도 국민화합대법회'가 6월 29일 부산 벡스코 3층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자는 부산불자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법회에는 전국 30여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스님과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2000 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화산 월인 스님의 봉행사에 이어 원감 해공 스님(충효자비원 이사장)의 법어가 진행됐다. 법회 이후 행사에서는 해공 스님을 포함한 5명이 통일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실용정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

끝으로 이날 모인 불자들은 '국가안보와 호국불교를 위한 결의'를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을 소통과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해 국가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자"고 발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석종사 어르신 위문 잔치

칠곡 석정사(감주 노사나)는 7월 5일 칠곡 기산평생학생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위안잔치에서는 고구려 전통음악 및 난타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석정사 감주 노사나 보살은 10여년 동안 청송북부 제3교도소 불교교육분과 교정위원으로 2군사령부, 수송교육부대, 청송교도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적사 숲속여름 불교학교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동안 숲속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은적사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 수련생(초등부) 50여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연꽃처럼 곱고 향기로운'을 주제로 만남의 날, 화합의 날, 나눔의 날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3)653-1572

손문철 대구지사장

현대불교신문사 · 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원경제를 위해 사찰에서 스님들의 부도양식으로 영탑원을 경내에 만들고 있다. 이는 부도의 상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화장문화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사진=충남의 ㅈ사찰)

사찰에 세워지는 신도 영탑

불교의 장법은 전통적으로 화장이다. 부처님 입멸 후 불교교단에서는 화장을 기본적인 장법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교도입 이후 성속을 막론하고 화장을 일반적인 장법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의 예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장법 역시 매장이 우선시되는 풍조를 보이게 되었으며, 불자들 역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묘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화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매장보다는 화장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나 파고다 같은 사리탑이 불교의 상징이었듯이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 역시 불교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이다. 부도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묘탑으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법제문도(法弟門徒)들이 선사를 섬기는 지극한 마음에서 건립하는 정신적 의미를 가진다.

불교에서는 남녀신도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산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후손들에게 조상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갑자기 신도들을 화장한 유골을 부도와 같은 양식의 영탑으로 만들어 봉안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부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몇몇 사찰에서 이러한 형식을 도입하였으며, 나중에는 많은 사찰에서 이러한 형식을 좇아 사찰경내에 영탑원을 만들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러한 영탑원 조성이 사원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사찰의 공간을 묘역으로 만드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시신을 매장한 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묘지가 좁은 국토를 한정 없이 잠식하여 전 국토를 황폐화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찰에 조성한 영묘탑은 시간성이 무한할 뿐만 아니라, 석물로 조성하여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양식적으로 볼 때, 스님들의 부도와 같은 형태를 원용함으로써 부도가 가진 본래적 의미와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도형식 신도 영탑원 유행
화장 의미 · 부도 상징성 훼손

불교계가 앞장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매장법을 화장법으로 바꾼 것은 불교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찰에 영탑원을 만들어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은 불교교단에서 생각한 본래적 의도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불교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법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마실가듯 걷는 짤막한 길엔 천년불심 도량이…

④ 북한산 '마실길' 그리고 진관사, 삼천사

'길'도 운명이 있을까. 숲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하늘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강물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도량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그렇게 길이 놓인 곳엔 길을 따라온 것들이 있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가 길을 적시고 있다. 길은 '마실길'이란 이름이 붙은 북한산 둘레길(9구간)이다. 마실길은 진관생태다리에서 방패교육대까지의 길로 전체 거리가 1.5km인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가장 짧은 길이다. 왠지 이 짤막한 길이 운명이란 말을 떠오르게 한다.

마실길은 8구간 구름정원길이 끝나는 진관생태다리에서 시작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진관동 하나고등학교(진관사 입구)까지 간다. 하나고등학교에서 약 200m 거리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있고 건너편에 진관생태다리가 있다. 마실길은 이 구간만 따로 떼어내서 걷는 것보다는 다른 구간과 함께 걷는 것이 좋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길의 대부분이 산길이 아니라 대로변의 블록길이다. 그야말로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다녀오는' 길이다. 길이 짧아서 부담은 없지만 산길을 느끼기 어렵다. 8구간이나 10구간을 묶어서 걷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마실길은 깊은 산맛을 느낄 수 없는 대신 유서 깊은 두 도량을 만날 수 있다. 진관사와 삼천사가 둘레길 가까이에 있다. 먼저 마실길 3분의 1지점에서 둘레길을 벗어나 진관사로 오르면 된다.


북한산 둘레길 '마실길'을 걷다보면 고려 현종이 목숨을 건져준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운 진관사가 나온다. 스님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있다.


한국탑 최초로 아쇼카왕 석주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린 삼천사 '세존진신사리 9층탑'

진관사로 오르는 길에는 조선왕조 화의군의 묘가 있다. 묘비에는 세조의 여섯 째 아들이었던 화의군이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고 이곳에 묻혔다는 짧은 글이 적혀있다. 화의군의 묘를 뒤로 하고 약 200m 정도 오르면 진관사다. 지난 해 개산 천년을 맞은 진관사는 왕실과의 인연으로 생긴 도량이다. 고려 현종은 보위에 오르기 전인 대량원군 시절에 진관대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임금의 자리 오른다. 왕위에 오른 현종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스님께 절을 지어드리고 진관사라 했다. 비켜갈 수 없는 일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불교 가르침에 운명은 없다. 진관대사도 현종도 진관사도 하루하루가 모두가 인과일뿐이다. 진관사는 그렇게 산문을 열었다. 그쳤던 비가 제법 굵게 다시 내린다. 도량에서 행사가 있는 것 같다. 총무 스님(법해)이 바쁘시다. 외국인들이 도량을 찾았다.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진관사를 찾았다고 한다. 손님을 치르고 나서 법해 스님이 한 숨 돌리자며 차 한 잔을 내어오셨다. 들어와 앉으니 빗물에 젖던 도량이 이제는 빗소리에 젖는다. 마당엔 우산 속의 스님이 부처님 마지를 들고 빗속을 걸어간다. 녹차 한잔을 입에 물고 비 내리는 도량을 바라본다. 나도 젖고 도량도 젖는다. 마실길과 진관사는 길도 쉽고 도량도 깊지 않아서 비오는 날 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마음 적실만큼 비오는 날 마실길 걸어 발 적시고 진관사 홍제루 회랑에 걸터앉아 젖고 싶은 만큼 비 바라보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빗속을 걸어간 스님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린다. 차 한 잔 다시 물고 비 내리는 도량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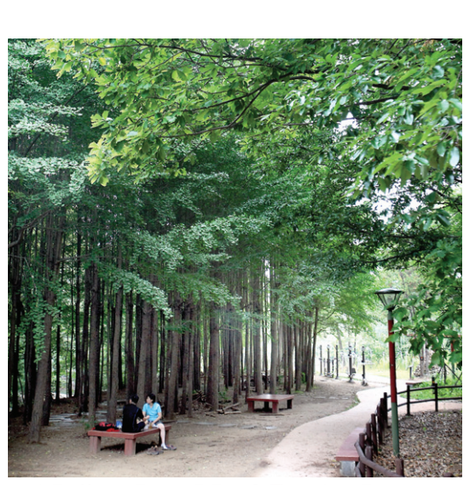
북한산 둘레길 중 가장 짧은 길
가까이에 유서깊은 도량 있어
임금의 보은 진관사
아쇼카왕 서원 옮겨온 삼천사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관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을 200m 정도를 걸으면 삼천사 입구다. 입구에서 약 1km정도 올라가야 한다. 삼천사는 661년 신라 문무왕 1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이후 사적이 전하지 않아 절의 자세한 역사를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한 때 3000명의 대중이 살았을 정도로 번창했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집합소였으나 화재로 인해 도량이 소실됐다. 훗날 진영 스님이 중창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다시 화재로 인해 소실된 도량은 1978년 성운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루고 있다.

주지 성운 스님은 지난 5월 세존 진신사리 3과를 봉안한 '세존진신사리 9층 석탑'을 세웠다. 탑에는 한국탑 최초로 아쇼카왕 석주의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렸다. 아쇼카왕의 석주는 아쇼카왕(재위 기원전272~232)이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세운 탑으로, 평화와 생명존중의 정신이 담겨있으며, 상륜부에 올린 4사자상은 아쇼카왕을 상징한다. 성운 스님은 그 옛날 아쇼카왕의 마음을 그대로 도량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다. 한국의 삼천사라는 도량에 인도 아쇼카왕의 4사자상이 세워질 것을 누가 알았을까. 삼천사에는 보물(657호)이 있다. 삼천사 마애여래입상이다. 대웅보전 뒤쪽으로 둘러진 계곡의 병풍바위에 모셔져 있다. 천 년이 넘은 불상이다. 마애불은 법당의 불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산새가 날아와 앉고, 솔바람도 스쳐가고, 중생들 옷깃도 끊임없이 스쳐간다. 진관사와 삼천사 모두 왕이 지키고 있는 도량인 셈이 됐다. 삼천사를 뒤로 하고 다시 둘레길에 들어섰다.

다시 비가 오락가락한다. 삼천사는 진관사보다 좀 더 산 속으로 들어가 있는 도량이다. 진관사가 산 속 깊이 있지 않아서 시원하고 정갈한 느낌의 도량이라면, 삼천사는 산세에 맞춰진,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단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마실 나온 짤막한 길에는 불심깊은 왕들의 도량이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마실길'은 블록길이나 진관사 입구부터는 숲길이다.


보물 657호 삼천사 마애여래입상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모집

불교의식 가운데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불교무용인 작법무는 진리를 춤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문화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능화스님을 모시고 불교무용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무용 마스터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특강
※특강일시 _ 2기 : 2012년 7월 9일~7월 25일
3기 : 2013년 7월 8일~7월 24일
※강의시간 _ 매주 월 · 화 · 수요일 14:00~18:00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기당 12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예능보유자), 인화스님, 전경화, 박은하
※교육대상 _ 제한없음, 무용전공자, 스님
※교 재 명 _ 능화 『한국의 불교무용』, 『다게나비춤』, 『천수바라춤』
※강의내용 _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특 전 _ 수료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시험 응시자격부여 (응시자 전원 가산점 부여)

불교무용 및 불교실용의식
※개강일시 _ 2012년 9월 3일(월) 14:00, 16:00 (서울)
2012년 9월 6일(목) 14:00, 16:00 (일산)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 인화스님, 전경화

한국전통무용
※개강일시 _ 2012년 9월 4일(화) 13:00 (입문반)
2102년 9월 4일(화) 15:00 (전문반)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강의내용 _ 한국무용기초, 입춤, 태평무, 장고춤
※강 사 _ 박은하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dongguk.edu
서울 T. 02-2260-3728~3730
일산 T. 031-961-5322~3

범패와작법무보존회
http://www.nunghwa.org
T. 032-884-8904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7)

부처님, 도리천 설법 후 상깟사에 오셨네

불교는 마우리아왕조에 이어 굽타왕조, 그리고 606년부터 41년간 북인도를 통일하여 지배한 하르샤왕조까지가 전성기였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정설이다. 특히 하르샤왕 때 나란다대학은 크게 번창하였는데, 이는 하르샤왕이 불법에 귀의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르샤왕은 '나는 나란다대학의 종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하르샤왕은 5천의 코끼리 부대, 2만의 기마군단, 5만의 보병을 보유한 강력한 왕으로 수도를 까나우즈(Kannauj)로 삼았는데, 그러한 연유로 마우리아왕조와 굽타왕조 때까지 번성했던 도시 빠딸리뿌뜨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장은 나란다대학에 5년 간 수학하고 하르샤왕의 초청으로 까나우즈로 가서 왕과 왕족들에게 설법했다고 전해진다.

답사일행은 하르샤왕조의 수도 까나우즈를 들러 그곳에서 북서쪽 80km, 파크나(Pakna)역에서 11km쯤 떨어진 상깟사로 가고 있는 중이다. 다 알다시피 상깟사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3개월 동안 〈화엄경〉 천궁계품을 마야부인과 천인들에게 설하시고 내려오신 곳이다.

불교는 신들이 부처님을 떠받든다

부처님이 도리천에 오른 곳은 이미 기원정사편 천불화현탑을 답사하면서 얘기한 바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부처님이 왜 도리천으로 오르려고 했는지 경전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싶다. 경전은 제석천의 간청에 의해 도리천에 올랐다고 하고 있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은 반드시 다섯 가지 큰일은 위함이니, 첫째는 법을 설하여 사람과 천인을 교화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교화하는 것이요, 셋째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아직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를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보살에게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중략) 그런데 부처님 어머니께서 도리천에 계시어 설법을 듣기를 늘 기다리시는데 어찌 부처님께서는 이 염부제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부디 도리천에 오르시어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부처님은 도리천에 올라 선법강당(善法講堂)에서 3개월 동안 머무시며 마야부인과 천인들을 법을 설하시다가 목련존자의 청에 의해 상깟사로 내려온다. 부처님이 상깟사로 내려오는 광경은 법현의 〈불국기〉에 나와 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부터 동쪽을 향해 내려오셨다. 부처님은 신족통으로 3도(道) 보계(寶階)를 만들어 가운데 칠보의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범천왕은 백은(白銀)의 계단을 만들어 우측에서 흰 불자(拂子)를 손에 쥐고 내려왔으며 제석천은 자금(紫金; 수정)의 계단을 만들어 좌측에서 칠보의 일산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든 하늘의 천신들은 무수히 부처님을 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과 범천왕과 제석천이 딛는 계단에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은 칠보와 백은과 수정의 가치로 나누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범천왕은 부처님의 불자를 들고서 시봉하고 있고, 제석천은 부처님을 위해 일산을 들고서 시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와 묘사 속에서 나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놀란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사람이 신을 떠받들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불교에서는 신들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 것이다.

목련은 신통 제일, 사리불은 지혜 제일

상깟사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들판 가운데 난 도로로 버스가 진입하자마자 먼지가 달려들어 창을 꼭 닫고 만다. 시골의 소도시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버스는 어느 새 파크나의 좁은 시장통 거리를 달리고 있다. 버스가 멈추자 일행 중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 망고와 석류를 한 박스 사온다. 일행은 상깟사에 있는 아쇼까왕 석주를 보러 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석가족 마을을 들르기로 한 것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부처님은 왜 상깟사로 내려왔을까? 꼬살라 군대가 까삘라성을 함락했을 때 석가족 일부는 네팔 쪽으로 이동하고, 또 일부는 상깟사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까삘라성의 멸망과 부처님의 상깟사 인연 사이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부처님의 상깟사 인연은 부처님 성도 7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까삘라성 멸망은 부처님 성도 42년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훗날 석가족이 상깟사로 이동해 올 것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그랬는지 모른다. 아무튼 도리천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목련존자에게 말한다.

"대중이 수행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오. 목련이여, 대중을 교화하기 힘들지는 않는가. 대중이 서로 다투지는 않는가. 외도들이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는가."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모든 우바새와 우바이들이 부처님을 손꼽아 뵐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뿔을 자른 소처럼 온유한 그들에게 외도의 소란과 비방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리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존이시여, 사리불은 새로 출가한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상깟사에서 안거하고 있습니다."

"전하시오. 이레 뒤에 상깟사로 내려가겠소."

부처님이 상깟사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아누룻다였다. 실명한 아누룻다이기에 부처님의 소식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다. 부처님은 상깟사로 내려와 '선정을 추구하는 현명한 이는 욕망을 벗어나는 적정을 즐긴다' 는 요지의 설법을 하셨는데,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사리불이 가장 먼저 인사하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목련이 신통 제일이고, 아누룻다는 천안 제일이고, 뿐나는 설법 제일인데 대중이 사리불의 빼어난 성품을 잘 모르는구나.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라고 대중에게 알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참고로 사리불이 상깟사에서 들은 부처님의 설법은 〈사리뿟따의 경〉에 담겨 있다. 첫 부분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삼계보도를 형상화한 상깟사의 언덕. 부처님은 이곳에 내려와 '선정을 추구하는 현명한 이는 욕망을 벗어나는 적정을 즐긴다' 는 요지의 설법을 하셨다.


상깟사 아쇼까왕 석주. 코끼리 형상에 연꽃 문양 등이 조각돼 있다.

'욕망을 벗어난 적정' 설법
"그같은 설법 들은 일 없네"
상깟사, 석가족 후예 살아
부처님 향한 열정에 감동

'도솔천에서 무리의 지도자로 오신 스승,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는 일찍이 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석가족 후예들이 사는 상깟사

이윽고 버스가 아쇼까왕 석주 보호각 앞에 선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먼저 나타난다. 멈칫거리는 어른들도 보인다. 저들 중에는 석가족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행은 코끼리상과 동강 난 석주를 보고는 고개를 흔든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높이 70여 척의 아쇼까왕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위에는 사자의 머리가 놓여 있고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 그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현장이 코끼리를 사자로 잘못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란 표현은 맞다. 실제로 보니 연꽃 문양과 용과 꽃 등이 조각돼 있는 것이다. 일행은 3계보도를 형상화한 것 같은 작은 언덕을 오른다. 올라가 보니 조그만 힌두사원이 있고 늙은 사두가 사원을 지키고 있다. 작은 언덕이지만 상깟사의 넓은 들판이 한눈에 든다. 일행이 언덕 위에서 바람을 쐬며 서성이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올라온다. 일행과 사전에 연락이 된 석가족 스님이다. 나는 스님과 명함을 주고받는다. 스님의 이름은 담마팔(Dhammapal)이고, 소임은 샤까무니사원의 주지스님이다. 명함에 박사 학위가 표시된 것을 보니 학승인 모양이다.

언덕을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쇼까왕 석주 건너편에 웅성거리고 있다. 일행은 버스에 다시 승차하여 담마팔 스님이 안내하는 대로 가까운 샤까무니사원으로 이동한다.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지은 샤까무니사원에는 벌써 석가족 마을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일행은 샤까무니사원을 참배하고 나와 석가족 마을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는다. 부처님의 후예들이어선지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다. 52세 된 조게스워르 싱(Gogeswer sengh) 씨가 마을 이장인데 얼굴이 후덕하게 생겼다. 일행은 내친 김에 이장을 따라서 석가족이 모여 사는 농촌마을인 쟈스라즈푸르(Jasrajpur)로 가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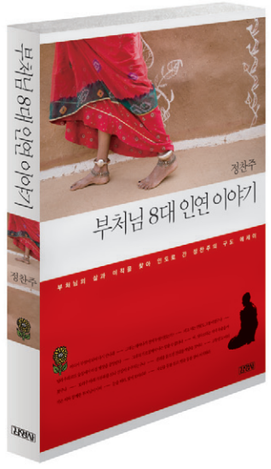
마을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진심으로 맞아준다. 여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을 고샅길을 쓸고 있다. 우리도 예전에 반가운 손님을 맞을 때는 그랬던 기억이 난다. 마을 어른들 모두가 석가족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젊은이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20세라는 비나(Veena)는 찬불가 C.D를 내게 선물한다. 자신이 부르고 녹음한 찬불가란다. 젊은 청년은 자신을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불교잡지 기자라고 소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잡지에 소개하고, 또 노래로 전파하는 석가족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일행 모두가 감동한다.



2천 5백여 년 전,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상깟사로 내려오신 내밀한 뜻이 비로소 시절인연을 만나 개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석가족 마을에 있는 샤까무니 사원.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이 석가족의 후예라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화제의 신간
정찬주
284쪽|15,000원
부처님 8대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삶과 이적을 찾아 인도로 간 정찬주의 구도 에세이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스승들이 사라진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장군 죽비로 첫 마음을 일깨우는 구도 에세이! 룸비니 탄생부터 장엄한 열반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8대 장면들로 만나다! 누구나 부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아는 이는 드물다.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온 작가 정찬주가 '팔상도' 에 나타난 여덟 가지 대사건들을 따라 인도와 네팔 전역을 순례한 불교 에세이다. 지금 인도인들의 생의 풍경에 부처님의 생애를 겹쳐 보이면서 그분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와 종교적 방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오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가신 희생의 삶을 통해 참된 종교인이 드문 이 세상에 커다란 울림을 전한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필연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팔상도가 전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전생에 모든 수행을 이루었기에 탄생할 때 "하늘 위아래에서 나 홀로 존귀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오직 중생제도를 위해 태어났기에 "마땅히 삼계를 편안케 하리라"라는 원력의 외침을 전할 수 있었다. 저자는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 부처님이 삶의 고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번민과 고뇌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었는지를 웅숭깊게 성찰하면서 인과의 법칙 아래 부처님의 생애를 특유의 명징한 언어로 풀어낸다.
김영사
TEL :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걸레와 같습니다

① 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중〉전법의 길


거조암 사리불 나한상

놀라움이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부처님의 존재와 교단의 성립은 마가다국의 정신적 물질적 중심이었던 바라문들에게 충격이고 위협이었다. 사리불과 목건련의 귀의로 인해 라자가하 상류층 자제들과 마가다국 지도자들의 귀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협은 시기와 질투를 불렀다. 시련이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은 내부에 있었다. 사리불의 시련도 내부에 있었다. 뒤늦게 나타나 교단의 큰일을 맡고, 부처님의 관심을 독차지한 사리불에게 대중의 시기와 질투가 일고 있었다.

사리불의 시련

"목건련, 지금 당장 사리불을 돌아오게 하라. 아난다, 너는 사왓티에서 안거한 비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게 하라." 모든 비구들과 사리불이 동원정사로 돌아왔다. 대중 앞에 합장하고 선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물었다. "그대가 떠난 뒤,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사리불은 교만하고, 제일제자임을 내세워 대중을 업신여긴다고 하더구나. 또 오늘은 만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면서, 저 비구에게는 무례를 범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났다고 하더구나. 사리불,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대는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산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걸레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걸레는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걸레와 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만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몸짓과 목소리는 어떤 의심도 끼어들 수 없이 청정하고 단단했다. 침묵이 흘렀다. "비구여, 이제 그대가 말해 보아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리불을 비난했던 비구가 부처님 발아래 엎드렸다. "세존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청정한 수행자를 모함했습니다." "그대는 먼저 사리불에게 참회하라." 사리불이 눈물짓는 비구 앞에 합장하고 앉았다. "비구의 허물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비구께서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의 교단은 날로 커져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못지않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부처님의 혜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사리불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만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리불,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제도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제도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해탈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열반을 얻게 하라. 사리불,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과 교단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발전해갔다. 대중과 도량이 늘어나면서 '삼귀의', '구족계', '사미', '안거', '자자' 등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계율이 하나 둘 만들어졌다. 부처님의 승가는 교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왓티에서 안거를 마치고 만행을 떠난 사리불은 고향 날라까에 있었다.

대중은 상수제자 사리불을 시기
"세존이시여, 만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놈를 소멸하는 진리등 붓다 교설 전법


그림 · 김홍인

전법에 힘썼던 사리불이기에 그의 이름은 훗날 여러 경전에서 만날 수 있다. 잡아함경(雜阿含經) 18권 염부차경에는 사리불이 어릴 적 친구인 잠부카다까에게 설법하는 대목이 있다. 사리불에게 많은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다. 사리불 또한 그를 통해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잠부카다까가 고향을 찾은 친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묻는다. "사리불이여, 닦고 닦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진수를 전하기 시작한다. "있느니라. 이른바 팔정도(八正道)이니, 고통을 소멸하는 참된 진리 8가지가 그것이다. 바르게 보는 것(正見), 바르게 생각하는 것(正思惟), 바르게 말하는 것(正語), 바르게 행동하는 것(正業), 바르게 생활하는 것(正命), 바르게 노력하는 것(正精進), 바르게 기억하는 것(正念),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正定)이다." 다시 잠부카다까가 사리불에게 묻는다. "열반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무엇인가?" "무명은 무엇인가…?" 인류의 고민은 그런 것이었다. 잠부카다까의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성냄이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하고, 일체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한 것이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의 설법도 이어졌다. 아니 부처님의 정수가 이어졌다.

데바닷다의 반란

부처님의 명성과 교단의 입지는 커져만 갔다. 제자들의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역량도 점점 커져갔다. 라자가하에서 데바닷다의 명성은 대단했다. 부처님의 사촌이다. 사리불 역시 그를 뛰어난 비구라고 칭찬했다. 명석한 두뇌에 유창한 언변으로 그의 주위에는 항상 권력과 재산을 갖춘 이들이 넘쳤다. 거기에 빔비사라왕의 왕자 아자따삿뚜의 스승이 되고, 아자따삿뚜가 태자가 되자 그의 위세는 더욱 높아졌다. 데바닷다를 따르는 비구들이 점점 늘어갔다. "비구들이여, 많은 보시와 명성은 수행자에게 불과 같다. 불이란 이익도 가져오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재앙을 불러온다. 바나나나무가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죽는 것처럼, 분에 넘치는 공양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죽림정사에서다. "세존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선정에 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잘 통솔하겠습니다." 데바닷다가 부처님께 말했다. 대중 모두는 놀랐다. "데바닷다, 나는 사리불이나 목건련에게조차 교단을 맡기지 않고 있다. 공부가 한참이나 멀고 먼 너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당한 데바닷다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없애려 했지만 부처님의 법력 앞에서 번번이 실패한다. 결국 데바닷다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고행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00명의 비구를 이끌고 가야산으로 가서 별도의 승가를 꾸린다. 부처님은 형식적인 고행이 열반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데바닷다를 따라간 500명의 비구를 데려오라 명한다. 목건련이 사리불에게 묻는다. "어찌하면 좋겠나?" 사리불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가세. 우리도 데바닷다에 합류하세." 목건련이 놀라며 물었다.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리불이 목건련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목건련이 사리불의 미소를 읽었다. 둘은 가야산으로 향했다. "잘 오셨소, 사리불과 목건련." 데바닷다는 부처님의 수제자 둘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들뜰 수밖에 없었다. "여기 부처님의 제일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다." 잔치를 열고 흥겨워하던 데바닷다가 잠이 든 사이 사리불은 500명의 비구를 불러 모았다. "사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가까이 하면 훗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되느니라." 데바닷다를 따르던 비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지했음을 깨닫고 사리불과 목건련을 따라 부처님께 돌아온다. 데바닷다는 그 후로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데바닷다'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에겐 지혜제일 사리불이 있었다.

순교한 목건련의 열반

"사리불 존자님!" 라후라가 피투성이가 되어 허겁지겁 달려왔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외아들이자 사리불 자신이 출가시킨 제자였다. "무슨 일인데 네 모양새가 그런 것이냐?" "목건련 존자께서…" 라후라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친구 목건련이 포교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외도들에게 몰매를 맞은 것이다. "지금 목건련 존자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라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펼칠 당시, 인도는 기존의 바라문교를 비롯해 많은 종교와 사상이 혼재하는 복잡한 사상계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바라문교의 견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죽림정사는 늘 그들의 위협 속에 있었다. 바라문교의 광신자들이 대낮부터 횃불을 들고 죽림정사의 길목을 차지하곤 했다.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바라문의 시기와 질투는 꺼질 줄 몰랐다. 그들의 음모와 모략은 끊이질 않았고, 부처님의 목숨을 노린 사건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서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사리불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림정사 어귀의 대숲에 목련존자가 누워있었다. 사리불은 오열했다. "나는 이미 열반에 들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게." 목건련 존자가 피투성이가 된 입술로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은 울부짖었다. "도대체 신통력은 뒀다 어쩌고 이지경이 된 건가?" 목건련 존자는 '신통제일'이었다. 다시 목건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업이네." 사리불은 목건련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사리불은 그제야 목건련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다. 감았던 사리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건련은 외도들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교단을 구하기 위해 순교를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편안히 열반에 들겠네." 친구의 마지막을 바라보던 사리불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출가하여 칠십 평생을 같이 지냈네. 어찌 나 혼자 친구의 열반을 지켜보란 말인가…. 나도 함께 열반에 들겠네." 대숲에 바람이 일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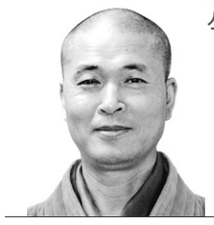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비온 뒤 산색은 푸르다

학승이 물었다.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마주 볼 때 어떤 거울이 밝은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의 눈꺼풀이 수미산을 덮는구나."

問 兩鏡相向那箇最明 師云 闍黎眼皮蓋須彌山

산 밑에 가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눈동자에 산이 비추어있을 것이다. 그때 눈동자 주인이 눈을 끔벅이면 산이 일시에 덮여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의 눈꺼풀 하나가 산을 보이게 하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한다. '눈꺼풀이 수미산을 덮는다'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그대 주인공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거울은 청정 본성을 비유한 것이다. 청정 본성은 차별이 있을 리 없다. 누구의 본성도 밝음은 같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선지식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본성이 빛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조주 선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언변이 좋았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평생 몇 마디의 말로 사람을 제접할 뿐, 때리거나 소리를 꽥꽥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임제 선사는 할과 방을 즐겨 써서 사람을 제접했으므로 두 선사만 해도 접화 방법이 다르다. 빛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임제 선사에게 가서 깨닫지 못하지만, 조주 선사에게 가서 도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조주 선사에게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임제선사의 할에는 금방 잠에서 깨어나고 마는 경우가 있다. 빛이 다르므로 그 빛에 반응하는 인연도 다르다. 다만 그러할 뿐 누구 빛이 더 밝고 밝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뜻한 대로 평가할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최근에 총림에 입문했습니다. 스님의 지시를 구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창천(蒼天), 창천(蒼天)!"

問 學人近入叢林 乞師指示 師云 蒼天蒼天

창천(蒼天)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서 감탄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너는 본래 맑고 맑다. 도대체 무엇을 닦고 배운단 말인가? 다만 너 자신이 완벽한 경지를 간직하고 있는 부처임을 스스로 알면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본 납자가 부연 설명하자면 "초심자라고? 아, 싱그러운 모습 그대로여! 더 이상 때를 묻히지나 말라. 가리켜 달라고? 말도 안 돼. 너는 그대로 붓다야. 그 무엇도 가리킬 것이 없어. 그러다가는 되래 때가 묻을 지도 몰라. 그대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붓다의 길을 가라. 원래 세상은 밝고 티 한 점 없는 청정 세계야. 너의 인식을 바꾸라고. 멀쩡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어.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이고 창천이야." 라고 말하겠다.

만일 학승이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재차 묻는다면 "너는 본래 완성이야. 원래 행복해. 거기서 조금이라도 뭘 찾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단지 네가 붓다라는 사실만을 자각하고 붓다의 길을 가라." 하고 말하겠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나의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학승이 물었다. "전구(前句)는 이미 가버렸고 후구(後句)는 밝히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뭐라고 말하면 틀려버려."

학승이 물었다. "스님께서 가려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물어라(問), 물어(問)."

問 前句已往後句難明時如何 師云 喚作即不可 云請師分 師云 問問

사실 도를 드러내기 전에 뭐라 하는 것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상 도를 드러내는 말[後口]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되던지 알고 보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도를 논할 것인가? 조주 스님은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물어라 물어' 하고 말하고 있다. 도의 세계를 말 몇 마디로 설파하는데 이력이 난 노승은 말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이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조주 선사의 이 답변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내게 묻는다면 "비온 뒤에 산색은 푸르다"라고 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21〉

현상계 분류한 교리체계… 오온 · 십이처 · 십팔계

삼과(三科)

불교는 인도의 외교(外敎)나 서양철학 등이 설명하는 영원불멸의 본체나 실체를 주장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 가능한 현상 세계만을 인정한다. 불교교리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해 생멸변화를 넘어선 존재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존재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가령 그 존재가 인식됐다고 해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세계와는 무관하며 수행이나 깨달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중시하고 수행정진에 힘을 쏟게끔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고,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상세계에 한해서 고찰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교단이 성립한 후 교리체계를 공고히 다져가는 과정에서 현상세계를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과(三科)이다.

불교에서 법(法)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체법(一切法), 즉 '모든 법'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현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의 차이가 아닌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므로 모든 존재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삼과는 현실 세계의 모든 무상한 존재에 대한 분류법으로, 이 세 가지 과목을 (1) 오온(五蘊) (2) 십이처(十二處) (3) 십팔계(十八界)라고 한다. 이를 줄여서 '온(蘊)·처(處)·계(界) 삼과'라고도 말한다.

이 삼과의 개념은 불교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이다. 삼과를 이해해야만 불교적 세계관에 눈뜰 수 있고, 불교적 사고를 갖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교리인 만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재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하기로 하고, 앞으로 삼 회에 걸쳐 삼과를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먼저 (1) 오온은 일체법을 몸과 마음, 혹은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섯 개의 요소로 나눈 것이다. 불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이 바로 그것이다. (2) 십이처는 일체법을 주관적인 감각과 인식, 객관적인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인간은 신체 기관을 통해 느끼는 감각기능과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신체기관을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로 나누고 육근(六根)이라고 부른다. 이 육근의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으로 여섯 개의 대상이란 뜻에서 육경(六境)이라 한다. (3) 십팔계는 앞의 십이처 위에 감각과 지각의 인식으로서의 여섯 식별 작용, 즉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을 더해 열여덟 종으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현상 세계의 생멸변화를 보고, 그것들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체득한다면 실로 욕계(欲界)를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게 된다. 그 번뇌의 대상과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 상태의 모든 것이 이 삼과 속에 녹아 있다.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은 현재의 과학이 사물을 규정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불교의 근대적 합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㉖



죽음은 순식간에 덮쳐 오리라 모두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는 홍수처럼〈법구경〉

불편한 진실, 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을 터이지만, 이를 유행어로 만든 것은 일요일 밤의 한 개그프로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행위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이면서, 어떤 모순을 노출한다.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만 웃고 만다. 이때 개그맨 황현희는 말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개그프로에서야 웃음유도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통상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다소 불편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라 말하는 것이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한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개그맨 황현희다. 그럼으로써 큰 웃음을 이끌어내려 한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우리 눈 앞에 제시하신 분은 따로 있다. 부처님, 바로 그 분이다. 어쩌면 부처님이야말로 시종 우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삼았던 분이 아닐까. 우리의 욕망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욕망에 반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욕망의 덧없음을 보라고 말씀하신 분이기에 말이다. 오늘의 법구(法句, Dhammapada)를 감히 황현희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자.

"모두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는 홍수처럼 / 죽음은 순식간에 덮쳐 오는데 / 자식이나 가축 따위에만 마음이 팔려 / 어리석은 사람은 애착에 사로잡혀 있군요. /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왜 그러는 것일까. 잠시 뒤에 죽음이라는 홍수,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덮쳐 오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릴텐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식이나 가축 따위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일까?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이내 닥쳐올 홍수를 망각한 채, 아니 어쩌면 애써 인정할 수 없어서,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채, 우리의 정신을 놓게 만드는 그 무엇들은 무엇일까? 그 목록에는 자식이나 가축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리라. "아름다운 꽃 자태에 넋을 잃은 사람인양 / 우리가 헛된 쾌락에 젖어 정신을 놓은 사이", "어여쁜 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듯 / 부질없는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에"(등하 옮김, 〈법구경〉, 열린 마음, 141-142쪽) 죽음은, 우리를, 야습(夜襲)해, 온다. 불침번도 세우지 않고, 깊이깊이, 잠든 우리를 ….

개그맨 황현희는 큰 웃음을 유도하지만, 부처님은 큰 성찰을 요구한다. 우선 자식이나 가축이나 어여쁜 꽃이나 그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집착이 이내 닥쳐올 죽음을 감안하더라도 의미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죽음의 힘이라 하더라도 다 무화(無化)시킬 수



그림 · 박구원

없는 의미를 우리의 애착이나 사랑이 담고 있어야 한다면, 그 행위는 어떤 동기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 것일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애착 이상으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리라.

그 다음 홍수처럼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한다. 앞의 문제는 금생의 문제이지만, 죽음에 대한 대비는 내생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의 삶 그대로 이어져도 좋을까? 아니면 더 못해진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그를 위한 우리의 대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사후대책(死後對策)'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업을 가지고 내생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다.

죽음을 의식할 때, 즉 깨어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생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내생의 삶 역시 이제 준비할 수 있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낙사 ● 주 지 : 법정(노학도)
● 주 소 : 대구 동구 신암 1동 607번지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법성(박근화)
● 주 소 : 대구 북구 팔달동 132-4

● 사찰명 : 용천사 ● 주 지 : 법륜(황기석)
●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88-23

● 사찰명 : 덕수사 ● 주 지 : 수선(김종원)
● 주 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70-6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3〉

불교로 문학하기와 죽음 탐구는

불교 · 문학 · 죽음 탐구 맹난자 수필가



맹난자 선생은 …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숙명여자 중 고등학교를 나와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국대학교 불교철학과를 수료했다. 1996년 〈에세이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신행불교〉 편집장을 지냈고,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장, 〈에세이문학〉 발행인 겸 주간,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 남촌 문학상, 정경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라데팡스의 불빛〉 선집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만목의 가을〉이 있으며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와 개정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작가 묘지 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와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가 있다.

인생 그리고 여행, 그 관계풀기

인생은 여행일까? 그렇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여행인가? 여행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사치스러운 냄새를 풍긴다. 항상 즐겁기만 할 수 없는 인생, 그 고난의 날들은 어떤 이름의 여행이란 말인가? 차라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해 버리자.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장맛비에 젖은 전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가는 동안 인생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두고 망상에 빠졌다. 입안에 알사탕을 굴리듯 이 생각 저 생각을 굴린다. 하지만 단물은 조금도 넘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자꾸만 생각한다. 인생은 여행일까?

아, 그런데 나는 왜 이 하릴없는 망상에 붙잡혀 있는 거지? 복잡한 인사동 길에서 그 이유가 떠올랐고 그간의 망상이 싹둑 끊어져 버렸다.

"아, 맹난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구나!"

불교, 문학 그리고 죽음

묘한 일이었다. 국수집에서 만난 맹난자(71, 수필가) 선생님은 내 입속의 알사탕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꾸며져 있는 겁니까? 내 살아 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간이역을 지나쳐 왔어요. 그 역마다 아로 새겨진 일들이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역사라면 역사겠지만, 그걸 다 스쳐 지나서 최후의 종착역으로 가는 여행이잖아요."

본론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와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아직도 알사탕이나 굴리고 있는 못난 착각! 맹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무수한 간이역에는 또 무수한 윤회가 있고 연기가 있고 인과가 있어요. 그 연기적 질서가 향하는 끝점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죽음이라 하는 것일 뿐이지. 죽음, 그것이 니르바나[涅槃]가 되지 못할 바에야 진짜 종착역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여태껏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지간한 욕심은 제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나 즐거운 경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상락아정을. 그 종착의 니르바나를."

거듭 되는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착각의 수렁에서 정신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 많은 간이역을 지나오면서 일관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저의 서원이고 발원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서원은 '불교로 문학하기' 그리고 발원은 '문학으로 불교 알리기' 죠. 그 속에 흐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탐구' 이고요."

너무 간단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불교, 문학, 죽음 이 세단어가 맹 선생님이 거쳐 온 수많은 간이역에 줄기차게 걸려 있다. 열차의 통과를 허락하는 신호등처럼. 맹 선생님이 거쳐 온 간이역에는 50년을 부여안고 온 화두도 있고 28년을 탐구해 온 숙제도 있었다.

물론 아직도 그 화두와 숙제는 아무에게도 점검 받지 않았고, 스스로 무릎을 치며 기뻐할 시간이 올 것이란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불교도 문학도 죽음도 아직 뜨겁기만 하다. 종착역까지 끄떡없다.

번개처럼 몸을 관통하던 한 마디

50년을 끌어안고 온 화두는 '무구(無求)면 무고(無苦)' 라는 단어. 구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이 단어가 촌철살인의 비수로 맹 선생님의 몸을 관통했다고 한다. 그때 나이는 21세. 전쟁 직후, 자유당 시절로 대변되는 1950년대 중 후반기에 서울에서 숙명여중고를 나왔고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면 요즘말로 '로열패밀리 그룹' 이다. 그런 복된 날들에 찬바람이 불었다.

"대학 3학년 때인데 집안이 더 갈 곳 없이 무너졌어요. 부모 몰래 휴학을 하고 서울시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휴학은 하던 공부만 끊은 것이 아니라,

정각사 김동화 박사 '금강경' 강의 들으며
'有求면 有苦, 無求면 無苦' 에 전율

죽음을 불교적 사유와 문학으로 승화
세계작가 52명 묘지 기행은 화두풀기
〈그들 앞에서면…〉은 대중공양이며 회향

교우관계는 물론 그토록 정열을 바쳤던 연극 활동(연출을 했음)도 접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각사에서 진행 중인 김동화 박사님의 〈금강경〉 강의는 빠지지 않고 찾아 갔습니다.

내가 한참 생각이 많고 고통스러워 할 무렵의 어느 날, 김동화 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흑판에 '유구(有求)면 유고(有苦), 무구(無求)면 무고(無苦)' 라고 쓰시는데 나는 온 몸에 천둥번개가 뚫고 지나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구하는 것이 많아 그렇게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깨우침이 나를 소스라치게 했던 겁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번개처럼 다가 온 그 한마디, 아마 그런 상황을 '줄탁동시' 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때 나는 그 단어를 온 몸에 새겨 넣었던 것인지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무소유로 가는 길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트웨인, 릴케, 예이츠, 도연명, 소동파, 임어당, 몽테뉴 등 현자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결국 공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으니 구함도 고통도 다 근원은 공(空)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언제나 뒤에 있는 간이역의 풍경들

'유골은 화장처리 되어 평장으로 안치했다. 본관과 이름, 그리고 생몰년월일이 적힌 조그마한 이름표(묘석)를 그 아래 세웠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이 오롯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서 바라보니 열(列)을 따라 펼쳐진 11개의 이름표는 마치 조선 왕가의 가계도를 방불케 했다.

시아버님 밑에는 시동생이 한줌 흙으로 누었고 그 줄 왼쪽의 빈 터가 남편의 자리쯤인 것 같다. 그 옆자리를 눈으로 짚어본다. 흙에 눕는다고 생각하니 흙의 체온이 느껴진다.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결국 한줌 흙이다.'

맹 선생님이 최근에 쓴 수필 '한 줌 흙' 의 한 대목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수필은 지난 봄 선영을 파묘해 수목장을 지내는 동안의 느낌을 담고 있다. 가족들이 '누운 자리' 그리고 자신이 '누울 자리' 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다. 그 따듯함은 결국 한 줌 흙이라는 결론을 거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맹 선생님이 문학의 화두로 죽음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곁의 죽음들과 내 안의 죽음 때문입니다. 전쟁 통에 죽은 여동생의 시신을 지키던 외딴 산골짜기 집에서의 기억, 누구보다 좋아했던 남동생의 죽음과 묘지마저 지키지 못한 괴로운 기억, 실성한 어머니의 허망한 죽음들이 내 젊은 날의 간이역에 진열된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두 어른을 봉양했어요. 어머님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더 긴 시간 고통으로 계셨는데, 나는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가는 아버님을 간호하며 '백골관' 수행을 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실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글을 쓸 때는 모든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알면 죽음을 즐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결코 치기(稚氣)가 아니다. 숭고한 수행임에 틀림없다. 시아버지의 사위어 가는 육신을 마주하며 본격적으로 탐구한 죽음에 대한 공부는 28년 동안 4권의 책을 내면서 일단락 지었다.

특히 동서양의 유명 작가 52명의 묘지를 기행하며 그들의 생사관을 천착한 작업을 통해 죽음이라는 화두를 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는 바로 그 화두풀기를 대중과 공유하려는 공양이며 회향이었다.

그런데 왜 52인일까? 맹 선생님이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듯 했다"고 말할 때 이 의심이 폭발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질문하지는 않았다. 맹 선생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53번째의 선지식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은 꿰뚫어 보면 속은 텅 비어 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 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니르바나로 가는 화두 수행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역임했던 월파 이후락 거사의 부인 정보현행보살(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회장이었던 무문회의 총무직을 맡았던 맹난자 작가(사진 왼쪽끝). 그는 운허 스님 초청 〈능엄경〉 특강, 파주 나환자촌 돕기 등 공부하며 자비를 실천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운허 스님의 세종문화회관 별관 법회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목탁소리가 울린다'며 화제가 됐다.

그렇지만 빈 나무속에서 봄이 되면 꽃이 새롭게 피어난다. 공즉시색이다. 조건만 맞으면 연기(緣起) 상황으로 존재하다가 조건이 다 하면 돌아간다. 우리의 생사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맹 선생님의 또 다른 근작 수필의 한 대목이다. 오래 전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과의 일화를 통해 공(空)의 실상을 느끼는 과정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서울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을 뵌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스님은 사과를 내 오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사과 한 알을 불쑥 내미시더니 '색이냐? 공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답을 못했어요. 다만 그 몇 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몇 년 전의 일이란,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스님을 뵈러 갔을 때의 기억입니다. 극락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 철웅 스님도 계셨어요. 철웅 스님과 방에 마주 앉았는데, '반야심경을 외어 보라' 고 했어요. 나는 거두절미 '색즉시공 공즉시색' 만 외고 입을 닫았지요. 그랬더니 '옳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회초리를 탁탁 치면서 '색이냐? 공이냐?' 하고 호통 치듯 물으셨어요. 그때 나는 야부의 '금강경 송' 한 토막을 읊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철웅 스님은 박장대소를 하시지 뭡니까? 얼굴이 화끈거린 그런 순간이었지요."

-지금 숭산 스님이 사과를 내미시면 뭐라 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공손하게 받아서 맛있게 먹겠지요."

기도, 서원 혹은 절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지낸 이후락씨의 부인과 함께 신행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무문회' 였죠?

'색이냐 공이냐' 숭산 스님 내밀던 사과
"이제는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어"

세종회관 별관서 운허 스님 특강 진행
〈신행불교〉편집 10년…"무의식 중 발원"

"무문회는 봉선사 운허 스님을 후원하는 불자들이 결성한 모임인데 봉선사 신도회 격이었어요. 운허 스님은 경학이 밝기로 당대를 호령하셨고 역경사업의 주역이시잖아요. 무문회는 지금의 서울시의회 회관(당시 세종문화회관 별관) 자리에서 운허 스님을 초청해 〈능엄경〉 특강을 들었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어요. 나는 총무를 맡아 여러 일을 챙겼어요. 이후락씨나 부인 정보현행 보살님이 많이 도와주었고 주양자 박사님과 국회의원 구임회 씨가 부회장이었어요."

-그 초청법회를 할 때 불행한 일도 당하셨다고….

"열 살짜리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그런데 그 사고도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좀 일찍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퇴원해 집에 왔을 때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나는 간절히 기도 했어요.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부처님 일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부처님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뒷날 가까이 사시던 광우 스님께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신행불교〉(당시의 제호는 '신행회보') 편집을 맡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게 부처님의 명령이라 믿고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아이의 사고가 10년이 지난 때에 난 것이니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나는 〈신행불교〉로 10년을 보내며 불교 공부와 글쓰기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어요.

당대의 원로 불교학자와 문인들에게 원고를 받으러 다니며 내 속의 문학성이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아픈 아이를 안고 절규하듯 내뱉은 '10년의 종노릇' 이라는 무의식중의 서원이 내 삶을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니르바나, 마지막 탐구대상

삶은 바뀌는 것이다. 한 구비가 바뀔 때마다 하나의 간이역을 통과한다. 간이역 마다 고락의 풍경화들이 남아 있겠지만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인생의 뒤안길은 쓸쓸할 뿐이다. 그 쓸쓸함의 극치는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무덤이다.

세계의 유명작가들의 죽음을 들여다보며, 거기 깊이 스미어 있는 불교적 사유로 죽음의 문제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그런 맹 선생님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직 니르바나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탐구하려 합니다. 결국 그것이 마지막 탐구의 대상이지요."

국수집을 나오니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른쪽과 왼쪽, 각자 가는 길이 반대였다. 인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몇 발을 내딛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젖은 길 위에 우산을 쓰고 가는 '53번째 선지식' 이 보였다.

글=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기도터에서



동국대 명예교수

어느 곳 하나 가물기는 매 한가지. 산속이라고 어찌 다르랴. 잠간 더위를 피하고자 한다거나 다리운동을 하고자 자주 찾는 곳이 자그마한 공간, 기도터이다.

얼마나 가물었던지 일정한 시간을 돌고 나면 운동화에는 흙먼지가 뽀오얗게 내려 앉아 있다. 흡사 인절미를 곱게 만들고 난 아낙이 떡고물이 묻은 떡판을 털어 놓은 듯하다. 카키색 빛깔이랄까. 카키(khaki)란 말은 먼지라는 뜻을 가진 범어이다. 연신 속도를 더하고 일정한 공간을 걷다 보면 발자국이 발자국을 덧씌워 누군가가 손질을 잘해놓은 고삿길 마냥 정갈해져 있다.

연전에는 밤이 으슥하도록 정진하기도 했고 새벽에 오르면 정진에 몰입하여 곧잘 먼동이 트이는 시간을 맞기도 하였다. 아름답다기보다 소박한 나의 성소는 수난을 버티다 못해 뭇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다. 붉게 물든 가을산의 모습은 영 아니다. 붉게 타들어간 나뭇잎을 보고 있노라면 눈이 따가와 진다.

마침내 그곳에 감로수가 내렸다. 땅은 물기를 흠뻑 머금고 나무는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 자연이 모이스쳐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 맛사지를 해 놓은 듯하다. 수기란 인간의 얼굴만 윤기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풀잎 까지도 갈증을 잊게 하는 묘약인 듯하다.

물줄기가 고랑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때다 하고 삽과 호미를 들고 터의 높낮이를 고르기로 하였다. 실은 그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소나무 뿌리가 서 너 군데 툭 불거져 나와 있기 때문이었다. 흡사 노보살님의 합장한 손등에 심줄이 불거져 나오듯이. 아니지. 비유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 침엽수의 잎끝에는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혈기 넘치는 청년의 기상이 아니던가. 그러니 약간의 뿌리가 드러났다고 한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상념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겠으나 어쨌든 뿌리를 덮어주었다. 걷다 보면 무심코 밟혔던 뿌리에 대한 예우를 한 셈이다. 흙을 덧씌우니 봉긋 올라온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땅을 고르느라 한 삽 한 삽 흙을 넣다보니 땀이 범벅이 되었다. 옷에 소금꽃까지야 생기지 않았지만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흙드리기를 멈추고 두더지가 지나간 양 부풀어 오른 땅을 다지고자 했다. 삽등으로 고르게 평탄작업을 해보았으나 귀공(鬼工)의 손놀림이 아닌걸 어찌하랴. 서투른 목수가 연장타령 한다 했던가. 방안을 모색하였다.

때마침 먼곳에서 세영보살님이 왔다. 둘이서 두툼한 비닐깔개를 솟은 땅에 놓고 올라가 다지기와 옮기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일을 심리학에서 연상작용이라고 한다. 깔개를 놓고 이리저리 이동하며 땅을 다지자니 어린시절의 일이 새싹같이 싱그럽게 돋아난다. 보리밭을 밟아주던 날의 기억이다.

보리는 두 해 살이 작물이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면 파종을 하고 그 보리는 추운 시기에 싹을 틔운다. 그러다 보니 겨울을 이기기가 어려워진다. 땅이 얼다 녹다를 거듭하다 보면 뿌리는 고공행진을 하기도 하고 낙하하기도 한다. 반복하다보면 뿌리가 내리기란 여간 어려워진다. 이러한 시련을 덜어주기 위해 보리밭 고랑을 밟아주는 일이 하루 일과이기도 한 적이 있다. 열중하다 보면 고무신이 무거워진다. 바닥에 덕지덕지 엉킨 흙 때문이다. 나뭇가지로 떼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연장을 써 떼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발이 흙무게를 못이겨 흘라당 벗겨지는 날에는 낭패다. 언 땅을 딛게 되니.

도량을 정리하고 나서 일손을 거들었던 조공에게 향 · 초 공양을 올리라 하였다. 조공이라

상념이란 지극히 주관적 생각
간절한 기도는 성취공덕 있어

해서 미안한 일이지만 귀공이 아닌 나 역시 조공급인 것을. 무슨 발원을 하라던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는 말은 필요 없는 일이다. 이미 그 단계는 넘었으니까. 석불님전에 꾸벅꾸벅 절을 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향냄새와 흙냄새의 조화는 그 자리에 더 머물게 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 공산품이지만 원력이 깃든 향과 자연의 향취 흙 내음이 깃들어져 있다.

마치 영혼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면 맴돌고 있는 향연은 어느 영혼 앞에 다가갔는지 알 수 있으련만. 흙 내음은 인간의 것이고.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을 생각하며 아마 세영보살도 그 내용과 같이 발원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부끄런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귀가길이 무사했는지 문자를 날렸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돈 가방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거금 칠천만원. 사례금이 십프로라던데 그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례금을 받아 그마저 결식아동에게 허기를 면하게 써달라고 시청에 접수시켰다하니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패재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해외불자들 팟캐스트로 불교배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7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나는 꼼수다'와 같이 팟캐스트의 영향력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팟캐스트 방송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이튠즈에 들어가 'buddhist' 'buddha' 'meditation' 'zen' 등 불교관련 단어를 영어로 검색하면 최소 1000여 가지 이상의 팟캐스트가 뜬다. 명상, 요가, 힐링과 관련한 주제들이 대다수이고 티베트·중국·일본 불교에 대한 개론과 이해 등 다양한 방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팟캐스트 리뷰 등록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리뷰 댓글이 달린 팟캐스트들을 소개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해외 방송 수 최소 1000여 가지 넘어

◇ 팟캐스트 '법문, 불자토론, 명상안내' 등 인기

젠캐스트(Zencast)

젠캐스트는 주간 방송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펼친다. 400회를 앞두고 있는 이 방송에서는 선(Zen), 불교(Buddhism), 승가(Sangha), 마음챙김(mindfulness), 자비(Compassion) 등을 키워드로 방송을 하고 있다.

청취자들이 "최고의 방송이다. 매주 놓치지 않고 듣는다" "만약 팟캐스트로 당신의 삶을 한단계 높이고 싶다면 젠캐스트를 들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

불교 괴짜(Buddhist Geeks)

기술발전, 철학, 교육,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문화 현상과 불교가 서로 교차하는 측면에서 각 분야별 프로 전문가들이 실험적 불교 탐색을 시도하는 회의를 갖는 불교 괴짜 컨퍼런스(Buddhist Geeks Conference)에서 매주 진행하는 방송이다. 260회째를 진행하고 있는 불교 괴짜 방송에서는 매주 불자 교사, 철학자, 수행자 등을 초청해 토론을 하면서 현대 문명과 불교의 접합점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청취자들은 "이 방송을 1년째 듣고 있다. 평범하진 않지만 불자들간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다" "토론들은 항상 재밌고 나의 생각을 트이게 한다"고 평가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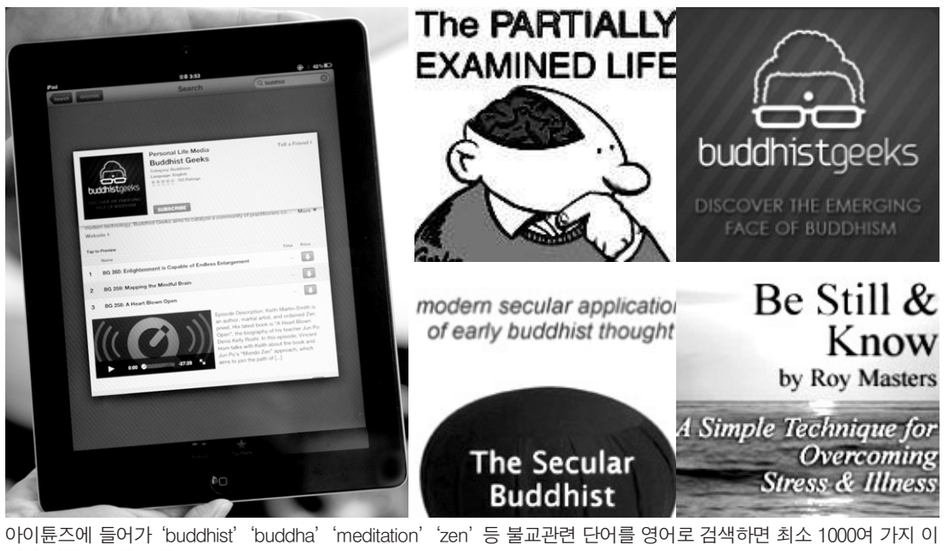
Be Still & Know(명상-스트레스와 병 극복하기)

Be Still & Know(잔잔하게 그리고 알아차리기)방송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병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5년간 명상을 해온 로이 마스터(Roy Master)가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는 폭력, 분노, 중독, 조울증, 자기회의에 빠진 청취자들을 위한 명상안내를 하고 있다.

그 밖의 방송들

- 대중 불자(The Secular Buddhist)

이 방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초기불교를 가르치고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서 방송하고 있다.



아이튠즈에 들어가 'buddhist' 'buddha' 'meditation' 'zen' 등 불교관련 단어를 영어로 검색하면 최소 1000여 가지 이상의 팟캐스트가 뜬다.

- 상호의존 프로젝트: 21세기 불교(The interdependence Project: 21st Century Buddhism)

주간 방송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법사,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 법문과 불교교리를 전하고 있다.

◇ 아이튠즈 유…해외대 강좌 들을 수 있어

아이튠즈 유(iTunes U)에서 'buddhism' 'meditation' 등을 치면 최소 200여 개가 넘는 강좌들이 뜬다. 특히 명상강좌들이 인기다. 미국 명문대학인 UCLA, 스탠포드, UC버클리, 듀크, 뉴햄피셔 등과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알아차림(mindfulness)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요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달라이 라마, 틱낫한의 법문과 티베트·부탄·한국·중국·일본 불교역사 및 불교미술과 해당국가의 역사에 대한 강의 컨텐츠들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팟캐스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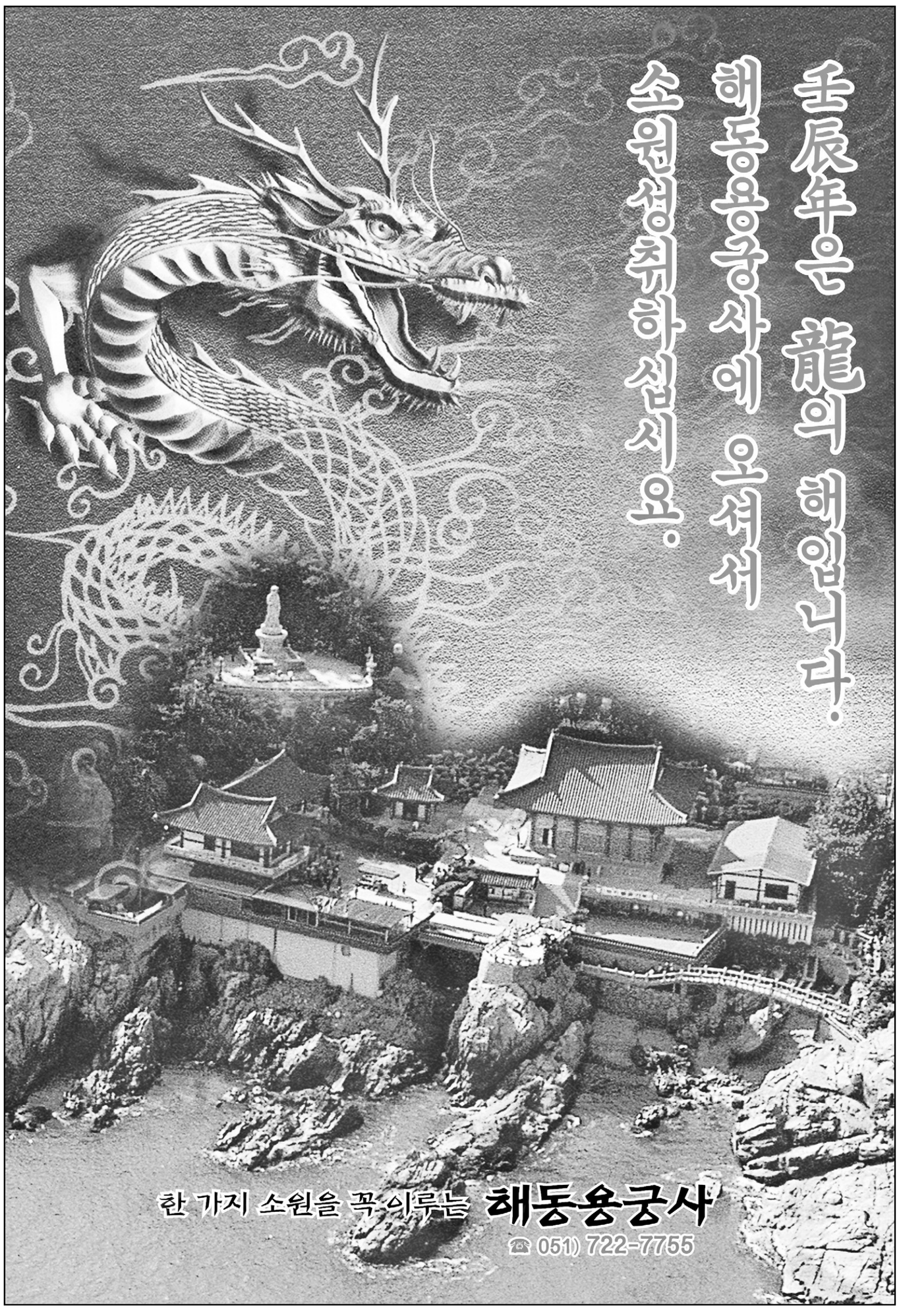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애플은 아이튠즈(iTunes)와 음악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팟캐스트만 떼어낸 앱을 6월에 내놨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팟캐스트' 또는 'podcast'를 검색해 내려받아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에 깔면된다. 해외 불교 및 명상관련 팟캐스트를 들으려면 앱스토어 해외 계정이 있어야 하며 미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아이튠즈 유(iTunes U)란?

아이튠즈 유는 애플의 교육용 서비스로 해외의 유명한 강좌를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U는 University 의 약자이며 해외 명문대학, 박물관, 문화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인문학, 사회학, 과학 등)의 강좌와 토론, 어학수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컨텐츠를 접할 수가 있다.



에스토니아 스님, "英-中 佛백과사전 만들것"



에스토니아 출신 스님이 온라인 불교 백과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언론인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일 "에스토니아 스님이 '대만은 풍부한 불교 자원을 가진 나라'라며 온라인 영어-중국어 불교 백과사전 구축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에서 최초의 불교 수도원을 건설한 벨로 바트누(Vello Vaartnou · 사진) "대만은 풍부한 불교 자원과 불교 텍스트를 갖고 있다. 백과사전 프로젝트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도 방대한 양의 불교 자료를 갖고 있지만 대만도 그 못지 않다"고 말했다.

소련에서 독립된 후 1988년 에스토니안 독립 정당을 설립해 뉴욕타임즈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스님은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로 백과사전을 만들겠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웹사이트를 통해 불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님은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야당을 설립한 후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퇴출됐다. 이후 불교수행을 위해 네팔, 스웨덴, 호주 및 기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다. 2005년에는 사원을 짓기 위해 에스토니아로 다시 돌아왔으며 2006년부터 에스토니아와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국제불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지장보살에 반해 고려불교 공부한 벨기에 학자

세계의 불교학자(24)

셈 베르메르슈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셈 베르메르슈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겸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Sem Vermersch · 44)은 고려불교사를 전공한 인물이다.

벨기에 출신인 베르메르슈 교수는 벨기에 겐트대에서 중국학을 전공하고 1991년 중국 중부 안후이(安徽)성의 구화산(九華山)의 지장보살에 끌려 고려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구화산을 불교 성지로 만든 지장보살 불상은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 출가한 김교각 스님(697~794)의 법구를 등신불로 만든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한글 서예작품을 보고 단순하면서도 고유한 모양을 지닌 한글에 매료돼 한국과 한국어에 빠지게 됐다. 이후 그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국비장학프로그램을 찾아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연을 계기로 베르메르슈 교수는 영국 런던대 · 아프리카대학(SOAS)에서 고려불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부처의 권력: 고려왕조시대 불교의 정치(2008년)〉을 영문판과 조선시대 서원에 관한 책으로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가 저술한 〈서원〉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 있다.

2002~2003년 하버드대 박사후과정을 거쳐 2005~2007년 계명대 초빙교수로, 2008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겸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2010년 미국아시아학회(AAS) 제1회 제임스 팔레 저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 한국학자들은 연구 분야를 거시적으로 보는 편인데 한국인 학자들은 세부전공 안에 갇혀 역사적 사건을 미시적으로 볼 뿐 큰 흐름은 아우르지 못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르메르슈 교수는 한국불교 전체를 다룬 사례는 전문연구서가 아닌 대중서에서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의 국교가 불교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고려불교사 연구를 위해 태조 왕건부터 34대 공양왕에 이르는 고려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고려시대 국교=불교'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

베르메르슈 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민간신앙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고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도 토착신앙이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상이 공존한 고려사에서 특별히 불교를 선택해 전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베르메르슈 교수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교지만 유교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느낌"이라며 "좀 더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의 불교에 끌렸다. 불화, 고려청자 등 예술작품에도 관심이 많다"고 답한다.

中 구화산 지장보살에 끌려 불교 공부
규장각 국제 한국학센터 부소장 맡아
'고려시대 국교=불교' 단순공식 탈피 주장
〈고려도경〉영문 번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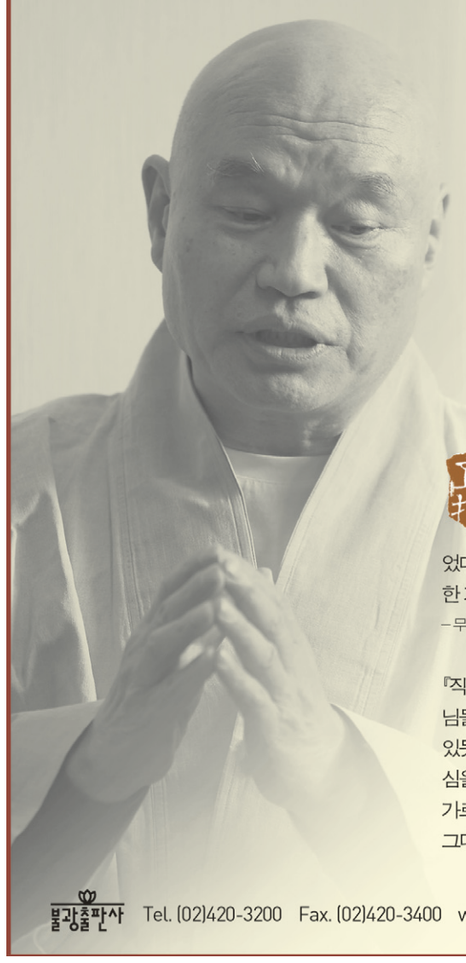
런던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한 그는 "한국은 유럽보다 살기 편리하고 빠르게 발전해서 좋다"며 한국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영역자로 참여한 베르메르슈 교수는 현재 12세기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의 견문록 40권 분량의 〈고려도경〉을 영어로 번역중이다.

고려도경의 한글 번역본이 있긴 하지만 주요 용어들은 한자 음(音)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 이를 적절한 영어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해외에는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 중 한글과 한문을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나은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 「직지直指」



무비 스님 **직지 강설**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무비 스님 지음 | 양장본
상 448쪽 하 424쪽 | 가격 각 23,000원

直指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의 요점만을 집약한 만고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인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에 문화유산의 가치보다도 천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류의 정신을 구제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강설을 시도해 보았다."
– 무비 스님 머리말 중에서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백운 화상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바로 가리켜 준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음'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책은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이다. 무비 스님은 직지 강설을 통해 선불교禪佛敎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무비 스님이 늘 강조하는 인불사상人佛思想,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곧 선불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대로 깨달은 존재, 사람이 부처님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상·하)



글 자현 스님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진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언론이 주목한 바로 그 책!

엉뚱하게 알려진 상식은 바로잡고 사찰 곳곳의 은유와 상징들을 설명한다. - 동아일보

비교문화·종교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에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들춰낸다. - 중앙일보

크고 작은 의문들이 자연스레 풀려간다. 330여 장의 컬러 사진과 다양한 그래픽도 이해를 돕는다. - 조선일보

"문화를 보는 눈은 종교를 보는 눈과 다르"며
"(절집을) 불교적 시각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만"
이라는 죽비소리, 시원하다. - 한겨레

상하 각 320쪽, 312쪽 | 올컬러
가격 각 22,000원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매수 : 14장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입니다.



미소달마(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다라니 福 지갑

평생부자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엷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호국불교 문인화로 표현



동화사 편액. 난은 나라 잃은 슬픔을 대나무는 절조의 의지를 보여준다.

난죽화 사찰현판 소견所見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에 모두 그 지극의 경지에 달한 명필이며 당대 최고의 대자(大字, 현판글씨)의 대가였다. 현재 한국의 어느 누구도 해강의 현판글씨를 넘어서는 이는 없다.

그 뿐 아니라, 시서화 삼절(三絶)로써 산수, 영모, 사군자 등에 탁월한 솜씨를 보이는 당대의 서화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합방 후에는 주로 대나무만 그리며, 나라를 잃은 한을 서화에 풀며 한 세상을 살다 간 분이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가면 가야산 해인사(海印寺)라는 단정한 해서(楷書)

문인화가 난초·대나무로 나라 잃은 슬픔 표현해

체의 대자 글씨의 현판이 입구를 장악하고 있다. 그 풍기는 기운이나 엄정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바로 해강 김규진의 글씨다.

해강은 또한 영친왕 이은에게 서법을 가르쳤다. 또 한국 최초로 사진술을 도입하고 어전 사진사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안중식·조석진과 함께 서화협회를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전국에서 서화전을 개최했다.

해강은 한 동안 전국의 31본산 본사들과 대찰들을 다니면서 현판을 하나씩 써주고 서각까지 해서 보시하고 다니는 일을 하고 다녔다. 제자인 죽농 안순환과 더불어 전국을 다녔는데, 해강은 현판글씨를 쓰고 죽농은 현판의 좌우에 난초그림과 대나무를 그렸다.

죽농은 해강이 대나무 죽(竹)자를 붙여서, 제자인 안순환에게 지어 준 호이다. 그는 조선 궁중 최후의 주방장인 대령숙수로서 사옹원의 후신인 전선사의 사장(司長)으로써 궁중음식의 백미였던 연회음식을 준비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근대 최초의 조선 요릿집인 명월관을 설립하고, 교자상(交子床)을 발명하여 사용했다. 궁내부 주임관이며 전선사장을 역임하던 죽농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총독부가 궁내부를 없애버리자 정3품 이왕직사무관을 제수 받았지만 스스로 퇴직한다.

죽농이 개발한 교자상 요리는 원래 궁중연회가 끝난 후 임금이 아랫사람들에게 하사하는 사찬으로 현재 한정식의 원조이다.

그럼 왜 두 사람은 전국의 대사찰을 돌면서 현판 글씨를 쓰고, 그 좌우에 난초와 대나무를 그렸을까? 죽농이 그린 많은 난초는 노근란(露根蘭)이다. 노근란은 유명한 송말원초의 정사초라는 문인화가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느라 그려서 많은 문인화가들이 따라 그렸다는 그림이다.

대나무는 왜 그렸을까? 대나무를 그릴 때는 보통 부러진 대를 하나 정도는 그린다. 나는 부러지되 절대로 굴복(屈伏)하지 않겠다는 군자와 선비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죽농이 스승인 해강의 지시에 따라 노근란과 대나무를 그린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노근란을 그린 뜻은 사찰을 찾는 불자(佛子)들에게 나라 잃은 슬픔을 상징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나무를 그린 뜻은 비록 나라를 잃은 백성이지만 일제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절조(節操)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호국불교의 면면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지금도 한반도의 전역의 사찰에 그 기운을 펼치고 있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다. 그 숭고한 의미를 금생에 선양(宣揚)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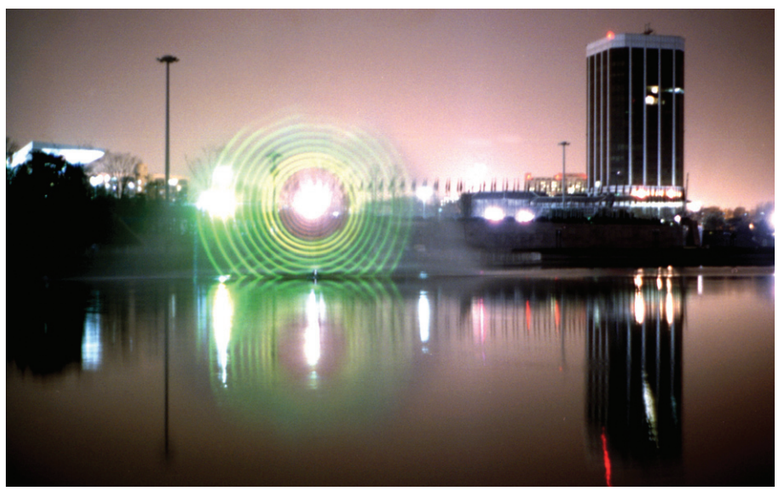
백남준 예술 세계 새롭게 조망한다

탄생 80주년 기념 '광:선…' 展



백남준 作. 네온티비

레이저워터스크린 재단장
비디오아트홀 메가트론 전시
컨셉 드로잉 170여 점 공개
9월 16일까지 소마미술관서



故백남준 탄생 80주년 특별전 '광:선 백남준 스펙트럼'이 9월 16일까지 방이동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백남준의 '올림픽 레이저워터스크린 2001'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맞아 세계 유일의 야외 레이저 작품 '올림픽 레이저 워터 스크린'이 재가동됐다.

올림픽공원 호수를 스크린 삼아 올림픽 오륜마크, 태극 4괘 등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이 작품은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이를 통해 ▷인류의 번영과 화합 ▷평화와 공존 특히 한반도 ▷한민족의 공동 번영에 대한 염원을 현란한 빛과 조명, 수막분수의 리듬에 담아냈다. 이는 백남준의 2001년 작품으로 수년간 중단됐다가 작가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되살아났다.

故백남준 탄생 80주년 특별전 '광:선 백남준 스펙트럼'이 9월 16일까지 소마미술관에서 열린다. '올림픽레이저워터스크린(2001)'의 재단장은 물론 백남준의 커뮤니케이션·인스트럭션 아카이브와 컨셉 드로잉 170여점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상설관인 비디오아트홀에서는 지난 수년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백남준 작품을 다시 모아 재개관했다. 이곳에서는 한민족의 기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메가트론, 금관, 쿠베르탱을 전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인스트럭션 아카이브와 컨셉 드로잉은 물론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 ▷비디오 조각 ▷비디오 설치 ▷레이저 작업 ▷오브제 ▷판화 등 총 240여점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제 1전시실 아카이브 룸에서는 조각 및 대형설치를 위해 제작된 60여점의 아이디어 드로잉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이는 백남준과 동거동락하며 협업했던 주요 테크니션 2인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

소마미술관은 "메가트론, 다다익선, 레이저 작업들을 위한 드로잉들은 그 자체로 건축의 조감도 사진의 블루 프린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능적 섬세함이 강조되는 이 드로잉들은 백남준의 생각과 소통방법 그리고 협업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더불어 제 1전시실에서는 사진 드로잉 오브제 신문클립 등 110여 점도 소개된다.

제 2전시실에서는 어두운 벽면을 타고 더블 x(XX)로 설치되는 멀티모니터 설치작품 W3는 선형적이고 자유자재로 증식하는 환상적 영상-망(image vista)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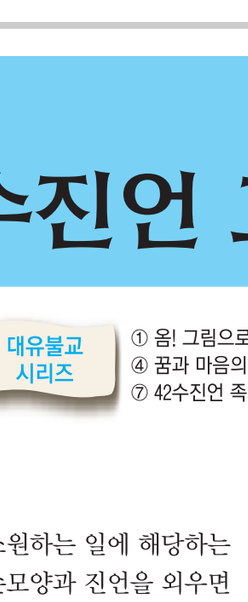
제3전시실 '비디오 상영관 Video Theatre'에서는 백남준 예술 세계와 업적을 다룬 다큐 등을 상영한다. 제4전시실 '일렉트로닉 수퍼 하이웨이'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드로잉 ▷오브제 ▷네온티비 조각 ▷레이저 디스크 설치 ▷멀티모니터 설치 ▷판화 등 다양한 예술의 새 길을 연 백남준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특별 이벤트로 개최되는 야외영화 감상회에서는 7월 21일 '노다메 칸타빌레:최종악장'을 8월 18일 '어거스트 러쉬' 등이 각각 상영된다. 또한 7월 28일에는 전체 관람객에게 무료 이벤트도 연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이다. (02)425-107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남불미협 정기회원전…7월 31일까지

작품 수익금 소외 이웃에 전달



김두용 作 '여름 이야기'

경남불교미술인협회(회장 윤판기) 제6회 정기 회원전이 7월 31일까지 대산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지태스님)와 경남불교신도회(회장 공창석)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이 작업한 그림 60여 점이 선보인다.

권영호 '설경 5호' 김두용의 '여름 이야기' 김덕진의 '심청사달' 김학일의 '자연-감(自然-感)' 등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작품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눈길을 끈다. 경남불미협은 "산사를 찾아가는 사색 '희망나눔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작품판매 수익금은 공동생활가정 다솜, 창원성심원, 의령사랑의집 등에 전달된다. 해마다 연화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불교미술인협회는 정기회원전은 물론, 합천해인사, 산청 겁외사, 함양 화림동계곡, 하동 칠불사, 지통사 등으로 사찰 스케치를 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삼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에 이어 '시·서·화로 만나는 불심전'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 축전 기념 특별전으로 개최한 바 있다. (055)291-5237

정혜숙 기자

"맑은 노래로 부처님 마음 느껴봐요"

BBS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1년 BBS 찬불동요제 장면.

BBS 불교방송은 제3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개최한다. BBS 불교방송 '룸비니 동산'과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동요제에서는 ▷마음이 빛나요 ▷지혜어린이 ▷사랑 빵빵 미소 팡팡 나는 미래의 부처님 ▷ 연꽃 이야기 ▷연꽃등 ▷붓다의 메아리 ▷부처님께 가는 길 ▷활짝 핀 연꽃 위 ▷지금 산사는 부처님 세상 ▷팔만대장경 ▷부처님 품안 ▷우리 부처님 ▷두 손을 모으면 ▷연등 등 14개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BBS는 "찬불동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새로운 찬불 동요 창작의 산실이다. 201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동요제에서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팀들의 맑고 향기로운 음성공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요제는 7월 22일 행사 이후 BBS-FM, BBS-TV를 통해 전파를 탄다.

정혜숙 기자

7월 추천선물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42수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법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42수진언 족자 (그린)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검색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

학교폭력에서 평화까지 UCC '눈길'

불교계 다양한 주제 공모전 열어

정토회-EBS와 지식채널e 공모
봉은사-청소년에게 소통 일깨워
생명나눔-자살 예방 공모전 열어

인터넷 ·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등의 발달과 함께 일반인도 빠르고 쉽게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은 UCC로 우리의 미디어 문화도 바뀌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UCC 공모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봉은사, 정토회, 생명나눔 등의 UCC 공모전은 환경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 문제에서부터 평화 생명 사랑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정토회 좋은벗들(이사장 법륜)과 EBS는 '2012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라는 주제로 지식채널e UCC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응모작 총 300여 편 중 6편을 선정하고 6월 23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별일 없냐구요' 는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형식적인 관심' 을 현실감 있게 비판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사교육에 멍드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룬 '엄마 말 들어' 가 최우수상을, '거리의 시인 정재완' '촛불 든 노인들' 이 우수상을, '당신은 누구와 연애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가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들은 EBS 지식채널e에서 방영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토회 좋은벗들 측은 "오늘날 우리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에 담긴 영상은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구체적이고 섬세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봉은사(주지 진화)의 '청소년 UCC공모전' 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건전한 종교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가족과 이웃)' '청소년, 이슈' '평화를 보다' 등 다양한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봉은사 홍보팀은 "이 시대의 트렌드와 청소년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워 소통과 화합하는 불교적 정신을 일깨우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전한다.

해마다 응모작 수가 늘어나며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봉은사 '청소년 UCC공모전' 은 지난해에는 수상작 중 일부를 상영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올 하반기 2012년 공모전을 앞두고 있는 봉은사는 향후 '청소년 영상 템플스테이' 를 마련 UCC감상 품평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열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역시 자살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 ▷자살 예방 ▷자살 위기를 극복한 내용 등을 주제로 하며 7월 25일 마감한다.



불교계에서도 UCC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봉은사의 대상작으로 ①우리사랑 이웃사랑(2009) ②괜찮아(2010) ③형제(2011). 사진 오른쪽은 정토회 좋은 벗들이 2012년 EBS와 함께 진행한 UCC공모전 당선작들. 위에서 아래로 ④ 대상 '별일없냐구요?' ⑤ 우수상 '거리의 시인 정재완' ⑥우수상 '촛불 든 노인'

생명나눔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기획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수상작 발표는 8월 31일이다. (02)735-1010

이밖에도 불교계 UCC공모전으로는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공모전' 청소년파라미타의 '문화재 지킴이' 등이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 고려불교 진수를 만나다

광주박물관 '남도문화전' 개최
백련사 현판 등 불교유물 '다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최초 공개

남도 답사 1번지 전남 강진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첫 코너를 장식해 답사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던 강진은 '모란이 피기까지' 의 시인 김영랑의 고향이며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무위사, 백련사 등은 그 존재만으로 답사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고려 후기 불교 결사 운동의 중심지였던 전남 강진의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광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남도문화전 Ⅲ-康津' 이 9월 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지역에서 꽃피웠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구분했다. 또한 이를 인문지리, 선사-고대문화, 중-근세문화(도자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근현대문화 등으로 구성해 관람객을 찾아간다.

불교 유물로는 ▷무위사 극락전 내벽 사면벽화 2점(보물 제1315호) ▷신라 명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 현판 ▷보물 제1396호 만덕산 백련사사적비(탁본) ▷보물 제313호 월남사 진각국사비(탁본) 등이 선보인다.

특히, 최근 발견돼 최초로 공개되는 고려시대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전남유형문화재 제302호)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송대부터 유행했던 여러 요소들이 가미돼 제작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양식의 대흥사 금동보살좌상(보물 제1547호)도 함께 전시된다. 제작연대가 분명한 '옥련사 목조여래좌상(1684년)' 과 복장유물도 최초로 공개돼 주목 받는다.

이와 더불어 강진의 청자 문화도 조명한다. 국보 제60호 청자사자향로, 보물 제1023호 상약국명청자합을 비롯 대표적인 청자 명품과 함께 강진 사당리, 용운리, 삼흥리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 유물이 선보인다. 이 가마들은 고려 왕실에서 사용된 최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고려시대 관요체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강진에서 출발해 개성으로 가던 중 침몰한 청자운반선에서 발굴된 12세기 초반 강진에서 제작한 청자들도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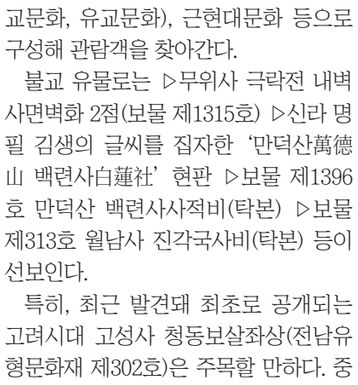
또한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조선 최고의 채색 지도인 동여도(東輿圖), 강진 삼흥리에서 출토된 사신도가 그려진 고려시대 석관 등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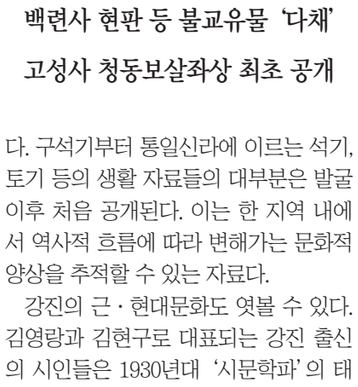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해 지역 문화의 변천 과정도 조명한다. 구석기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석기, 토기 등의 생활 자료들의 대부분은 발굴 이후 처음 공개된다. 이는 한 지역 내에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문화적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다.

강진의 근 · 현대문화도 엿볼 수 있다. 김영랑과 김현구로 대표되는 강진 출신의 시인들은 1930년대 '시문학파' 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남 현대시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 동인지 '시문학(詩文學)' 지를 비롯, 1935년 간행된 그의 영랑시집 초간본, 그리고 김현구 시인의 친필원고가 공개된다. 특히 김현구 시인의 친필원고는 외부에는 최초로 공개된다.

이외에도 고려 도공들의 비색 청자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강진 청자와 특산품 등도 함께 전시된다. (062)570-7034

정혜숙 기자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


국보 제60호인 청자사자향로

부산 전통 장인 한자리에 모인다

전승공예 기능보유자 70여 작품 전시

불화장 권영관, 축서사 후불탱
주종장 박한종, 용모습 문양 선봬

부산박물관은 7월 17일~8월 26일까지 '혼魂으로 이어온 맥脈'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장 권영관, 주성장 박한종, 사기장 故 김윤태, 화혜장 안해표 등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전승공예부분 기능보유자 작품 70여 점이 전시된다.

불화장 권영관은 이번 전시에서 축서사 후불탱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권씨는 불교미술대전에 누차 수상했으며 부산 범어사, 삼광사, 충북 구인사, 전북 금산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은 물론 미국 일본 등 국외까지 약 350여점이 봉안됐다. 그는 경전 내용을 도상화 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각종 안료와 배접 등에서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산천에서 구한 돌을 곱게 갈아 물감을 뽑아내는 석채기법에는 일생을 바쳐 쌓은 경험과 노력이 오롯이 담겨있다. 색이 선명하고 두터워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석채 불화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주종장 박한종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출품 청명한 종소리와 함께 현실감 있는 용의 모습, 섬세한 비천상을 선보인다. 박 씨는 1957년 동종 제작에 입문, 1995년 독립기념관 광복 50주년 기념 '통일의 종' 1996년 '부산 시민의 종' 2005년 '울산시민대종' 등 굵직한 작품들을 남겨왔다. 특히 우리나라 종 제작의 전통기법인 사형주조(沙型鑄造)공법(마사토와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 주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소리가 우수하면서도 문양이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사기장 故 김윤태의 전통 다완, 분청, 백자 등과 함께 현대적 기법으로 창안한 연리문(連理汶) 청자도 소개된다. 또한 화혜장 안해표 흑혜, 목화 등과 함께 아녀자들이 즐겨 신은 화려한 색상과 수가 놓인 당혜 등 전통 신들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불화장 권영관의 축서사 후불탱화



저자 성범 스님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 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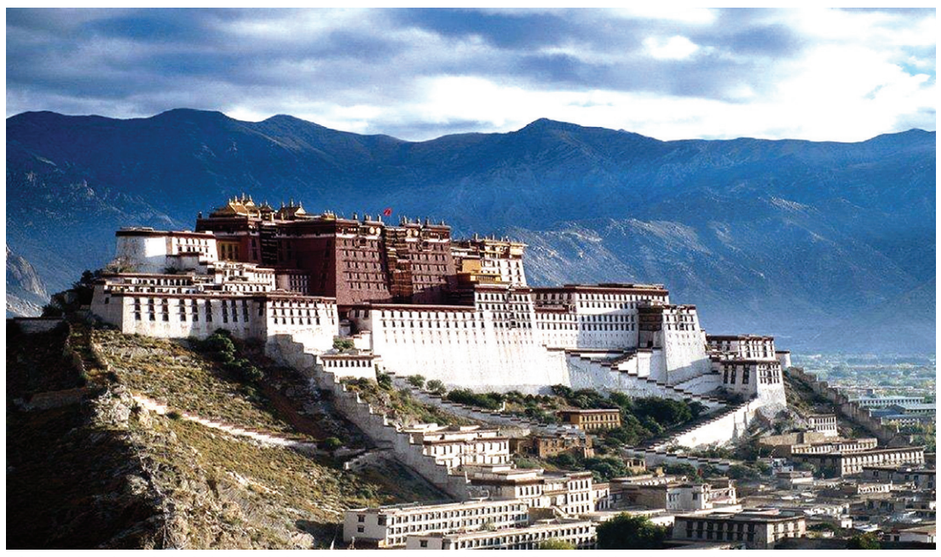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현교 밀교 아우른 티베트 수행교과서



해탈장엄론
감빠뽀 지음
켄뽀 꼰촉 갤펜 영역
진우기 옮김
운주사 펴냄


티베트 불교의 중심인 라싸의 포탈라궁이 산 정상 절벽에 위엄을 갖추고 장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불교 입문에서 성불하는 단계까지
이론과 다양한 수행법 자세히 소개
안거기간에 기본교과목으로 채택

앞으로 교재가 없어서 티베트 불교 기초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지침서 〈해탈장엄론〉이 번역되어 출간됐다. 책은 나로빠로부터 밀라래빠에게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띠샤로부터 시작된 까담빠의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한 책으로 현교와 밀교를 아우른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수행교과서다.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의 입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불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다. 불성에 관한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스승을 찾는 일, 무상과 업을 공부하는 단계, 보리심을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닦는 단계, 보살 십지를 완성하고 붓다를 이루는 단계, 깨달은 사람인 붓다가 행하는 모든 활동까지를 다루고 있다.

책은 먼저 깨달음의 근본 원인인 '불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들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힌 다음,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인 '귀중한 인간의 삶'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깨달음의 길을 인도할 '스승'의 필요성과 스승을 섬기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를 이룰 때까지 수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먼저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 선행된다. 이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업보와 과보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 또한 이기심에 대한 해독제로 자애와 자비의 수행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한 '귀'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으로 '보리심'을 언급하고, 보리심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삼학으로 집약하고 육바라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방법들을 통해 보살의 수행5위와 보살 10지를 점진적으로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삼신을 가진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마지막 회향으로 윤회가 끝나는 날까지 중생들의 복덕을 위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해탈장엄론〉을 저술한 감뽀빠(1074~1153)는 티베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 한 사람으로, 밀라래빠의 상수제자다. 닥뽀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드는 전염병으로 아들과 아내를 잃고 난 후,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밀라래빠를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밀라래빠의 제자 중래충빠는 '달과 같은' 제자라고 불렸고, 감뽀빠는 그 가르침이 태양처럼 명료하다해서 '태양과 같은' 제자라고 불렸다. 감뽀빠는 많은 문헌을 저술함으로서 띨로빠, 나로빠, 마르빠, 밀라래빠로 이어지는 까규빠의 전승을 완성했는데, 그의 저서 중에서도 〈해탕장엄론〉이 가장 중요한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교학과 딴트라 사이의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섰다. 까담빠 법맥 안에서 경장을 공부했고, 위대한 성자 밀라래빠로부터 탄뜨라 수련을 받은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전 560년경에 설하셨던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티베트의 모든 불교학파들이 〈해탈장엄론〉연구하고 있고, 티베트의 유서 깊은 3년 안거 기간에 기본교과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록에서는 저자인 감뽀빠의 삶과 수행, 가르침에 대한 짧은 전기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경전에 근거하여 따로 소개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본문에 나오는 경전명의 한글, 영어, 중국어, 범어, 티베트어 표기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번역되지 않은 티베트 경론에 대해 5개국어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영역자의 서문을 들 수 있다. 영역자는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고승으로, 이 책에 근거하여 다년간 수행하고 제자들에게도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이를 영역했다. 그는 서문에서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숙독할 수 있고 수행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책을 완전히 공부한다면 불교의 각 단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두 번 읽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강조했듯이 이 위대한 저서의 완전한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과서이자,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개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7~7/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기쁨
7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8	탄허록	탄허	휴
9	청춘출가	김제원 외	솜리
10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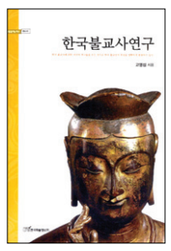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모든 것 녹여낸 '비빔'의 한국불교

한국불교사연구

고영섭 지음 | 한국학술정보 펴냄 | 3만2천원



이 책은 한국불교사를 연구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의 연구물을 모은 것이다. 한국 불교 만의 특성을 통찰하고자 한 이 책은 한국불교사 측면에서 논의될만한 개별 주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국불교는 각 시대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 새로운 문헌이 발견될 여지도 많다.

한국불교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역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저자는 불교 그 자체의 사상적 변화상과 함께 한국 고유의 사회종교로서의 역할까지 다룬다. 책에서 저자는 한국불교는 불설의 핵심인 중도 위에서 소승에 상대되는 대승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는 소승과 대승의 대립을 넘어선 일승의 기호로 '비빔'의 불교가 됐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13종을 한국 만의 '곰'의 불교로 숙성시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곧 한국불교의 종합성(一乘)과 독자성(一味),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고려시대 한국불서 간행과 근대 동국대의 교육현황 등 그동안 불교사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곳곳을 보는 시각이 눈길을 끈다.

시대에 흐름에 따른 불교사의 특징을 살펴 현재 불교 대중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불학사〉 〈한국불교사〉 〈원효탐색〉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한국철학자 15인 이후:원효 이후〉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 등 다양한 불교학 연구 저서를 남긴 저자의 시각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떨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전식 불교입문서이자 학습서

불교공부사전

곽철환 편저 | 운주사 펴냄 | 2만원



사전은 공부나 학습 등을 돕기 위한 많은 정보를 담은 책으로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부의 대상은 아니다. 1980년대 영어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공부법이 유행했지만 사전을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부법이 아니었다.

〈불교공부사전〉. 사전의 이름이 붙은 이 책은 일반적인 사전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공부사전〉은 불교의 기본을 간략하게 풀이한, 사전식 불교 입문서이자 학습서이다. 즉, 불교공부를 하다 모르거나 궁금한 항목을 바로 알려주는 불교사전의 역할에서 더 나가 불교입문서의 내용까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니다. 책에는 불교 입문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표제어를 선별하고 그 속에 관련 항목을 함께 서술했다. 특히 용어가 쓰인 〈대장경〉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덧붙여서, 그 용어가 〈대장경〉에서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중요 경전들도 간단하게 해설하고 그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한 경전을 다 읽지 않고도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술방법에서는 사전보다는 다소 부드럽다, 어원이나 용례 등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입문자들이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구성했다.

사전기능과 입문서 기능을 절묘하게 융합한 이 책의 저자는 곽철환 씨다. 이미 〈시공불교사전〉과 〈불교 길라잡이〉 등 다양한 불교입문서를 발간한 곽철환 씨의 내공이 돋보이는 저작이다. 노덕현 기자

보광 스님, 역주 〈정법안장〉 제2권 펴내

정법안장(正法眼藏)

보광 스님 역주 | 여래장 출판사 펴냄 | 가격 미정



일본 불교에서 가장 우수한 문헌 중으로 평가받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일본 조동종 개조인 도원 선사(1200 ~1253)가 저술한 대표적인 선서로, 본래의 명칭은 〈영평 정법안장(永平 正法眼藏)〉이며 조동종 종전(宗典)이기도 하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을 20년 동안 연구하며 후학들을 지도해 온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이 역주 〈정법안장〉 제2권을 펴냈다.

보광 스님은 이번 제2권에서 〈정법안장〉 총 95권 중 제11권 유시(有時) 권에서 제17권 법화전법화(法華轉法華) 권까지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 책에서 보광 스님은 해제를 하고 주석을 일일이 달았으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난해한 부분은 고교 졸업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다.

특히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법어의 근거가 이 책의 산수경(山水經)이란 권에 자세히 설해져 있어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참음이 제일 가는 도道이니
중생의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하심 · 인욕 수행지침서
항복기심 – 참는 연습
영곡스님 지음
신국판 | 부분 컬러 | 334쪽 | 12,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진정한 참음은 '참된 자신'眞我에 머물고
성스런 참음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안주하는 것

팔공산 절벽에서 목숨 건 정진 끝에 종교적 체험을 얻은 저자(조계종 수좌)는 삼매 중에 많은 전생을 돌아보며 당신의 업보를 알게 됐다. 마음속의 원망등을 해소하고 거룩한 자비심을 깨달은 그는 불자들이 인욕바라밀을 닦아 무한한 행복을 누리길 발원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맹파명리 중국 단건업 선생
초 청 특 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건업 선생의 강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건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시, 중식 : 1시 ~ 3시, 3시 ~ 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합의 응용, 충의 응용, 부귀팔자 잡아내는 법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연 락 처 : 031)918-7550, 011-1743-0543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맹파명리연구원

“빛깔과 소리 없는 허공이 바로 법신”



허공의 주인공

비움과 소통 펴냄
전근홍 지음/1만원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실상(實相)을 전하셨고, 유마 거사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둘이 아님(不二)의 법문을 했다. 이처럼 연꽃을 들어 보이거나 침묵으로써 법을 보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며 실상이다. 그러니 스승이 아침에 세수 하시는 것, 공양 드시는 것, 일하시는 것 등 모든 행위가 바로 ‘소식’이며 지혜다. 이 처럼 스승과 일상을 함께하거나 일상에 대해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다.

이 책 저자인 전근홍 거사의 스승 백봉 김기추(白峰 金基秋, 1908~1985)는 20세기 ‘한국의 유마 거사’로 추앙받는 불교계의 큰 산맥이다. 그는 50세를 훌쩍 넘겨 불교에 입문했지만 용맹정진으로 단기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20여 년간 속가(俗家)에 머물며 거사풍(居士風) 불교로 중생 교화에 힘쓴 선지식이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의 자비심 넘치는 열정적 설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래서 닫혔던 좁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에서는 시비·분별의 비늘이 떨어졌으며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아 참다운 자유와 안심을 얻은 제자들이 많았다.

백봉 거사는 〈금강경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15권의 〈선문염송요론〉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설법을 녹음한 테이프가 300여 개나 되고 제자들은 그 테이프에서 가려 뽑아 〈도솔천에서 만납시다〉와 〈허공법문〉 〈공겁인〉을 출판하기도 했다.

백봉 거사는 “눈이란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누구냐,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이 누구냐?”며 “빛깔도 소리도 없는 바로 그 자리, 허공이 본바탕이고 법신”이라 강조했다. 다시말해 거사풍(居士風)의 수행가풍을 드날렸다.

백봉 거사는 경전이나 선어록에 대해 자구(字句) 해석이나 전통적 해설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막힘없이 설법했다. 특히 자신이 살았던 전통과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현대인들을 위해 불법의 정수를 알리기 위해 늘 고심했다. 예를 들면, 종래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이해에 머물던 공리(空理) 방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든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적이고 주체적 근원으로 제시했다. 또 이 ‘허공으로서의 나’ 즉, 공겁인(空劫人)이 근본적 바탕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의 권리로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설했다.

특히 백봉 거사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근간으로 전통 화두 방편을 개혁해 새 화두라는 뜻의 ‘새말귀’를 제창했다. 전통적 화두 수행이 승려를 위한 것이라면 새말귀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창안된 것이다. 즉 ‘허공으로서의 나’를 철저히 이해하면 법을 먹든,

백봉, 20여년간 중생교화에 힘써
거사풍 새 화두 ‘새말귀’ 제시
일상생활 모두 화두로 들 수 있어
재가불자 기본자세 10계율 제시

세수를 하든, 운전을 하든 일상 생활 전부를 화두로 들 수 있다는 것이 새말귀의 이념인데, 이는 전통적 화두를 대체했을 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 수행법에 대한 토대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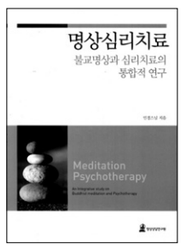
이와 함께 백봉 거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재가수행자에게 어울리는 계율과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 말아야 할 10계율’이란 뜻을 가진 〈십물계(十勿戒)〉에서 “비록 아내와 자식이 있다 해도 쫄려보는데 떨어지지 말라”, “가업을 잇더라도 잘못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세상 법도와 함께 해도 대도(大道)를 버리지 말라”, “천하에 노닐면서도 법성(法性)을 무너뜨리지 말라”등 10계율을 통해 재가 거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기도 했다.

40여 년간 스승의 유지를 굳건히 이어온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는 명확했다. 저자는 “가장 감명 깊게 들었고 불교공부의 확신을 주었던 스승의 설법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한사람에게라도 바른 법을 알리려던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였다”며 “스승의 뜻은, 오직 생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출가 할 수 없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 길을 잃고 헤매는 재가 불자들에게 그들의 입처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책에서는 백봉 거사의 핵심 가르침이 자세히, 반복 설명돼 있다. 그리고 제자 지도법과 수행법, 하루 일과 등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이 주로 들어 있다. 아울러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스승의 지도·점검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들도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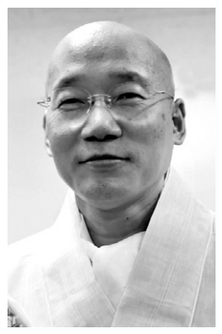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상관법, 과거 상처 치유에 효과



명상심리치료

인경 스님 지음
명상상담연구원 펴냄
2만5천원



당시 이 책의 저자 인경 스님은 명상심리 치료가 시대적 요청이라 느꼈다. 그래서 2003년 6월 명상상담연구원을 개설해 불교 교설에 기초한 고집멸도 명상상담집단을 운영했다. 이어 2004년 2월에 명상상담 관련 카페를 만들고 2005년에는 공식적으로 명상상담 지도자 아카데미 2급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후 인경 스님은 2006년 동방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초대 교수로 재직했고, 이듬해인 2007년 4월에는 한국명상치료학회 창립에 큰 공헌을 하며 명상상담심리치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지도자 양성에 탄력을 주었다.

바로 이 책은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며 일종의 명상심리치료 연구 논문이다. 그래서 부제도 ‘불교명상과 심리치료의 통합적 연구’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인경 스님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였다. △마음작동 이론체계의 확립 △마음현상에 따른 명상 유형과 구체적 실천방안 △서구 심리 치료를 통합한 명상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이다.

스님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음작동 이론과 불교명상 및 심리치료, 명상치료의 실제 등을 연구방법으로 택했다. 스님은 불교명상과 서구 심리치료학의 통합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현대불교학은 전통적 인문학의 문헌 해석 방법론서 벗어나 새 영역의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효과를 기대했다.

인경 스님은 다양한 임상 실험과 연구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명상심리치료는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가 과거 경험서 비롯된 고유한 마음의 작동 모델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명상을 통해 현실 적응적으로 변화시켜 집착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영상관법’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경 스님은 “과거의 상처가 제 8식 아뢰야식에 영상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상상한 뒤, 그 것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분해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영상관법”이라고 소개하며 “이 책은 명상치료 최초의 학문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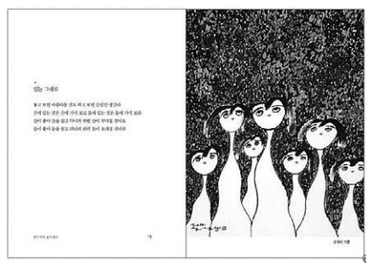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허허당의 서화로 전하는 위로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지음 | 예담 펴냄 | 1만2800원





허허당 스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는 트위터다. 그림 그리며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읊고, 그 시에서 소재를 얻어 그린 그림을 트위터에 올리며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스님의 글과 그림을 두고 어떤 작가는 “가시가 살에 박혔을 때처럼 ‘아!’ 하는 탄성을 발하게 만든다”고 평했다. 또 어떤 미술 평론가는 “스님의 그림은 자유로움 그 자체다. 일필휘지로 생명력 가득한 존재를 담아냈다”라고 탄복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빌리지 않아도 스님의 글과 그림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평온함을 준다. 그 평온함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것이라 더 큰 울림이 있다. 이는 연습하거나 흉내 낸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스님은 자신의 글과 그림 중 가려 뽑아 이 책을 엮었다. 홀로 산중 생활을 하며 길어올린 명상과 사색에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어우러진 글과 그림 모두 깊이 있고 아름답다. 총 5장으로 이뤄진 글과 그림에는 세상 모든 이들의 괴로움과 집착이 사라져 즐겁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행간마다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육바라밀로 정리한 생활법문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성범 지음 | 구봉 펴냄 | 1만3천원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있는 성범 스님이 일상생활속에서 문득 스치는 좋은 생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해하기 쉽게 육바라밀로 주제를 정리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이다. 각 편마다 달려 있는 부제만 봐도 육바라밀을 단박에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인욕’은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정진’은 열심히 사는 삶, ‘선정’은 한가한 사람의 평온 이라고 붙였다. 자비의 공동체로 표현한 ‘지계’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조언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필요하고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작은 마음이며,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자기 말을 적게 하는 것은 큰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자기말만 하는 것은 이기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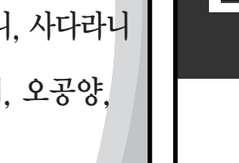
또한 스님은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몸에서 아픔을 느끼면 ‘아!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도리어 아픔을 고맙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아픔에서 오는 괴로움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마음이 몸보다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진 스님의 삶의 지혜들은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수시로 꺼내 들춰보며 위안 받을 수 있는 감로 법문집이다.

김주일 기자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철종

이몽1.2

김시연 지음 | 은행나무 펴냄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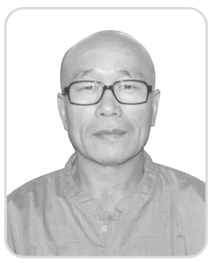


〈이몽〉은 강화도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운의 조선 왕 철종을 150년 만에 재조명한 소설이다. 권문세도가들이 장악하던 조선 후기 신권 사회에서 성군이 되길 원했으나 허수아비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철종. 이 작품은 왕으로서가 아닌 인간 이원범(철종)의 숨겨진 삶과 비극적 사랑을 통해 철종을 인간적으로 재조명하며 잘못 인식된 철종의 역사를 바로잡는다.

철종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한 축으로, 철종과 흥선군, 순원왕후와 조 대비, 왕을 지키려는 충신들과 세도가들의 서로 다른 꿈과 야망을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게 펼쳐 보인다. 저자가 6년간 집필에만 몰두해 완성한 〈이몽〉은 사옹원과 내시, 왕실 의식, 풍속 등 그동안 소설과 드라마에서 왜곡시켰던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노련한 방송작가 출신답게 무겁고 어려운 역사를 영상미 넘치는 문장과 압권의 스토리,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되살려 낸다. 임용한, 김인호 등 권위 있는 사학자들이 작품 감수를 마쳤으며 철저한 고증과 개연성을 확보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사용하던 순우리말을 발굴해 전문가들로부터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녹여 낸 결정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 소설은 누명과 왜곡과 냉대로 만신창이가 된 채 역사와 백성들에게 잊혀진 철종의 숨겨진 삶을 누이처럼 때론 학자처럼 애틋하고 정갈한 시선으로 복원해 낸다.

김주일 기자

錚安寺 心靈治癒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건강·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부처님 가피로 치유지도)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자연휴양숲 최절경
상담전화 010-6810-6158
자연치유 http://blog.daum.net/suji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원효 스님이 '일심'의 철학을 전개한 까닭은?

일심조차 부정… 붓다 깨달음 해명

1. 일심과 진망화합식

불교의 역사는 마음의 탐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은 세계를 구성하는 원동력이자 주체를 변화시키는 구심력이며 무아와 윤회 및 해탈과 열반의 근거이다. 열 아홉(남전) 살 혹은 스물 아홉(북전) 살이었던 싯다르타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하였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존재에 대한 불안정'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싯다르타는 오랜 수행 끝에 고통 발생과 고통 소멸의 연쇄 고리를 벗어나 붓다가 되었다. 붓다가 설한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색성향미촉법의 육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이비설신의의 육식은 현실적 인간의 표층의식이었다. 용수는 이 제6식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상중하 3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친은 초능변과 제이능변과 제삼능변을 통해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의 관계를 해명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표층의식은 다시 7전식의 작용을 통해 심층의식으로 잠세되어 심층의식을 변화시키며 성숙시켜 갔다.

회통논법으로 무애자재 구현
일심에 역동성과 신해성 의미 부여

분황 원효는 일심의 철학을 통해 이 심층의식의 구조와 관계에 대해 해명하였다. 먼저 그는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이문(二門)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다. 분황은 일심을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으로 파악하는 『대승기신론』의 정의에만 붙들리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일심을 대원경지(大圓鏡智)의 진식(眞識)으로만 이해하는 유식가들을 따르지도 않았다. 분황은 오히려 일심을 진망화합식으로 해명하는 『대승기신론』의 구조를 원용하여 일심의 철학을 건립하였다. 그는 부처의 영역과 범부의 영역을 갈라 볼 것인가 함께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결국 분황은 일심을 제8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9식을 향해 열어두었다. 그는 '자성청정심'은 제9아마라식이라고 하며 제8아라야식과는 '체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體同義別]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분황이 8식설을 지지하면서도 9식설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점이다. 그는 8식과 9식 사이에 '성자신해'(性自神解) 즉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역동성과 신해성을 부여하고 있다.

분황은 자신의 주요 저술에서 일심을 삼보(三寶), 일각(一覺), 일성(一性), 일제(一諦), 일미(一味), 일승(一乘), 여래장(如來藏), 아라야식(阿黎耶識), 중생심(衆生心), 대승법(大乘法), 열반(涅槃), 적멸(寂滅), 불성(佛性), 법성(法性), 중도(中道), 실제(實際)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들 개념 사이에는 여러 맥락이 전제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개념 사이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각 개념 사이의 상통성과 상관성을 온전히 꿰어내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럽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주요 개념이 모두 '일심'이라고 강변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심과 일심지원 사이의 역동성과 신해성이 오히려 다른 개념과 개념 사이의 스펙트럼을 차단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는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 이문(二門)의 구도를 원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즉 불변하는 마음과 변화하는 마음의 구도로 파악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여는 '일체의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반면 생멸심은 '일체의 사물과 현상을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상(總相)은 별상(別相)과 상대되는 통상(通相)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진여는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구별이 사라진 세계이며, 변화도 없고 파괴도 없는 세계이다. 때문에 진여는 모든 현상과 사물을 총괄한다. 하지만 진여는 생멸심과 달리 불변의 측면인 정적인 측면을 띄는 것으로 비춰진다. 여기에는 여래장을 근거로 생멸심을 낳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동적인 측면도 있다. 즉 진여가 비록 움직여서 생멸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불생불멸(不生不滅)로서의 진여의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여는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마음이면서도 불변의 측면만이 아니라 변화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진여에 불변의 의미뿐만 아니라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멸심에도 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불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진여의 개념과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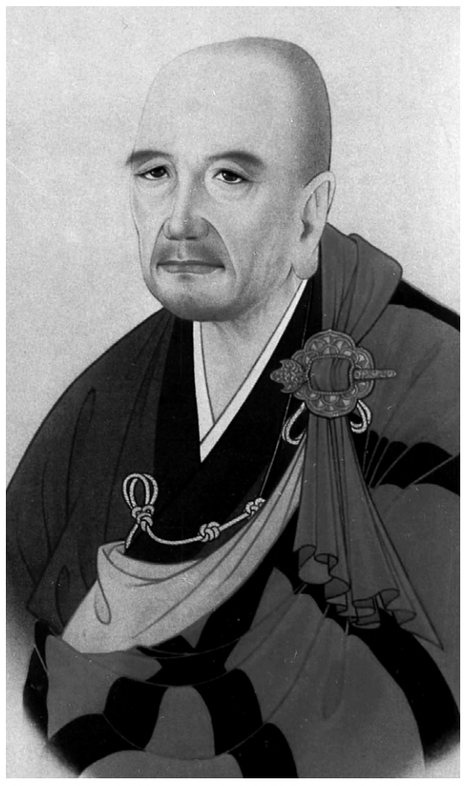
여기서 진여와 생멸심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여의 동적 측면과 생멸심의 변화 또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식되는 것은 생멸심의 변화밖에 없으며, 진여의 동적 측면은 생멸심의 단서로 하여 머릿속으로 추론해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여의 동적 측면을 분황은 일심의 '역동성' 혹은 '신해성'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진여의 운동은 차별이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운동과 변화를 포괄한다. 때문에 진여의 운동은 멸(滅)이면서 생(生)이며 정(靜)이면서 동(動)인 변화이다. 이것은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동정은 어떠한 힘도 움직이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머물러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진여의 불변적 의미와 생멸심의 불변적 특성과는 어떻게 변별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란 용어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 있다. 이 말은 이미 입의문(立義文) 서두에 보이고 있다. 일심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두 측면에서 파악되며 진여는 대승(마음)의 본체[大乘體]를 나타내고 생멸문은 마음의 자체상용(自體相用)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분황은 "몸체[體]는 진여에 있고 몸꼴[相]과 몸짓[用]은 생멸심에 있으며 생멸심 안에 체가 있지만 그 체는 '상에 종속된 체'[體從相]이므로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다"[大義中, 體大者在眞如門, 相用二大在生滅門, 生滅門內亦有自體, 但以體從相, 故不別說也.]"고 말한다. 하지만 법장은 "진여는 대승(마음)의 본체를 나타내지만 생멸심 안에는 체와 상과 용이 갖추어져 있다[眞如門中示大乘體, 生滅門中具宗三大.]"고 말한다. 분황은 둘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멸문 내의 체를 '상에 종속된 체'로 보는 반면 법장은 둘 사이의 독자적 행로를 염두에 두고 생멸문 내의 체를 '별도의 체'로 파악한다. 이것은 진여와 생멸심의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분황은 "'대승의 자체를 나타냈다'는 것은 곧 생멸심 내의 본각심이니, 생멸의 체(體)와 생멸의 인(因)이며 이 때문에 생멸심 내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여문 안에서는 곧 '대승의 체'라 말하고, 생멸문 안에서는 '자체'라고 한 것은 깊은 까닭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아래 해석 중에서 그 의미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상'과 '용'에도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여래장 중에 헬 수 없는 본성(本性)의 공덕(功德)의 상을 잘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은 곧 상대의 뜻이며, 또 여래장의 불가사의한 업용(業用)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이 곧 용대의 뜻이다. 다른 하나는 진여가 일으킨 염상(染相)을 상이라 하고, 진여가 일으킨 정용(淨用)을 용이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여의 정법에는 진실로 염(染)이 없지만 다만 무명으로 훈습되기 때문에 곧 염상(染相)이 있는 것이다. 무명의 염법에는 본디 정업(淨業)이 없지만, 다만 진여로 훈습되기 때문에 곧 정용(淨用)이 있는 것이다"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인 일심'과 '넓은 대승'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부분이다. 분황은 일심 내의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뿐만 아니라 대승과 심진여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기신론〉, 진여 자체상 해명
아라야식을 여래장이라 규명

분황은 생멸심의 불변적 특성과 진여의 불변적 특성의 상호 관련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라야식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 아라야식을 여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래장은 현상계에 머물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진여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해답은 제시한다. 하지만 본성상 진여를 특징으로 하는 인간이 어떻게 미혹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가에 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승기신론』에서는 여래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그와는 강조점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아라야식을 제시한 것이다. 분황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심과 아라야식의 관계를 촘촘히 해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심의 신해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마라식과의 관계로 옮겨가게 된다.



원효 스님 진영. 원효는 일심의 철학을 통해 일심마저 고정됨이 없음을 규정하며 마음 본성의 역동성을 해명했다.

3. 불리와 부잡의 관계

인간의 의식을 여덟 개로 볼 것인가, 아홉 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변이 팔식구식론이다. 이것은 부처의 영역과 범부의 영역을 나눠 볼 것인가 함께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처와 범부를 함께 보려고 하면 8식설을 취하게 되고, 부처와 범부를 갈라보려고 하면 9식설을 취하게 된다. 이 논제는 구역(舊譯) 유식(唯識)과 신역(新譯) 유식(唯識)의 주요한 특징이자 7~8세기 동아시아 사상 논변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했다. 분황은 『대승기신론』의 구조에 따라 팔식설을 수용하면서도 일심의 신해성을 상정함으로써 구식설에 대한 그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일체 정식을 여덟 가지 식으로 규정하고, 암마라식을 제9식으로 상정함으로써 구식설을 인정하고 있다. 분황이 역동성과 신해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일심을 팔식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식과의 소통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중생의 성불가능성에 대한 열린 시선으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분황은 일심을 동과 적, 생과 멸의 구분을 넘어선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동과 적, 생과 멸이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라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화쟁 회통'의 인식 위에 있기 때문에 적멸은 일심이며 불성의 체가 된다. 그리고 예토와 정토는 본래 일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생사와 열반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이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不一不異]는 대목이다. 바로 이 대목이 있기에 동과 적, 생과 멸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수하지 않으며', 전체가 연을 따라 생하고 동하며, 전체가 연을 따라 적멸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주제가 머물지 않고 머물며[無住而住], 떠나지 않고 떠나는 것처럼[不離而離] 서로 떨어지지 않고[不相離] 서로 섞이지도 않는[不相雜]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8식과 9식의 관계 역시 신해성을 매개로 하여 섞이지도 않고[不雜] 떨어지지도 않는[不離]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시설은 그의 일심관이 아라야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9 암마라식으로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의 실체인지라 허공과 같이 아니하므로" 그런 것이다. 또 일심의 본성이 스스로 신해하기 때문에 '심'이라고 한다는 대목이나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억지로 이름 붙여 '일심'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 분황은 일심을 고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심의 본성이 스스로 신해하다"고 규정한다. 일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심이 아라야식의 범주를 뛰어넘어 암마라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분황이 말하는 일심 본성의 신해성은 본각의 마음 본성이 스스로 신해하며 그 신해의 의미가 제8 아라야식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9 암마라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심 철학 통해 9식설 윤활
'작은 나' 자각 통해 '더 큰 나' 태어나

분황은 일심의 철학을 통하여 『대승기신론』의 8식설과 『금강삼매경』의 9식설을 윤활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종래의 해석과 달리 일심에 역동성과 신해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이해와 일심 이해의 외연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심의 철학은 화쟁과 회통의 논법을 통해 무애와 자재의 원행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일심은 '작은 나'의 자각을 통해 '큰 나'와 '더 큰 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작은 나'는 '일상의 나'이며 이러한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큰 나'로 태어나게 된다. 큰 나로 태어난 나는 다시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 '더 큰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언효, 『금강삼매경론』(『한불전』 제1책).
원효, 『대승기신론소 · 별기』(『한불전』 제1책).
일연, 『삼국유사』(민족문화추진회, 1975; 1992).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고영섭, 「원효 일심의 신해성 분석」, 『불교학연구』 제20호, 불교학연구회, 2009.
고영섭,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을 다시한번 소개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겸용의식집으로 염불과 경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겸용의식집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기존염불(漢文念佛)과 한글염불(경전내용)을 염불 순서대로 구성하므로 한문과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2. 경전의 뜻으로 염불을 구성하므로 수지독송을 하면 경전공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염불에 불편이 없도록 운운은 없게하고 초심자도 다른 부분을 넘길 필요없이 한권의 책으로 순서대로 염불하면 된다.
4. 6권으로 분류하여 실용화하고 염불할 때에 책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염불에 추가책이 필요없게 하였다. (1 예경,각청 / 2 천도, 시식 / 3 수계, 방생 / 4 장의 / 5 점안 / 6 독송집)
5. 기본염불의 한글화나 경전내용 공부는 한국불교의 과제인데 방법으로 염불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삼보통청)에서 삼청을 하는 청사를 ②청은(漢文念佛)로 ①청은(한글염불)로 한다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경전공부와 한글염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주문 : 054)974-1345.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묵스님께 출가하여 스님이나 법사님 또는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금불 장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03-1
주지 성묵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광석에서 나온 금강석이 광석을 자르듯이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 파멸시킨다. 넝쿨이 자기가 기댄 나무를 휘감아
말려 죽이듯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시킨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해가 돌아가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영적고통을 손으로
만져서 고침
017-257-6795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순천 정혜사)
061)755-8484
010-4174-7410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행 자 구 함
40대 미만
(금정산 약수정사)
051)552-3401
016-550-6313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배 우 자 구 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기도 스님 모십니다

(양산)
011-574-3303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심 와 기 도

• 전생과 이승의 업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경관좋은 산사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부산근교 양산시 물금
(대한불교조계종)
010-4542-189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011-770-53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불교대장경 및 고려대장경을 구입하여 소장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383-5077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사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불문에 귀의하여 출가 뜻을 둔 女행자 인연을 맺기를 합장

나이,학력 불문
(지역 팔공산)
053)981-8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조계종 경북권 지장보궁 기도가 함수록 편안하고 힘있는 도량이오니 종파를 초월 자기 기도할 기도처 찾는 비구니스님을 절 보기 겸 국내3대보궁중 제2보궁이오니 기도하시기 바람. 그리고 40~60대 청결한 공양주 조석으로 자기기도하고 후원살임을 맡아 큰스님 공양받들 보살님 속히 구함. (보시금은 도량 답사후 결정함)

국내제2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 문 여 행 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요사 : 40평
- 가액 : 2억2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18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토굴 터 (완도)

- 부지 : 600평
- 즉시 건축 가능
- 바닷가 500m 바다 전망 최고
- 포장도로 접, 소나무 뒷산
- 총금액 : 4200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대:97평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가액: 3억(전세절충)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법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58-7 [지하철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불 법당만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지하 약 50평
- 법당1, 삼존불 모셔있음(법회가능)
- 원장실1, 샤워실1, 공양간1, 세탁실1, 창고1, 출입구2
- 꼭 필요한분 연락바람
- 양도가액: 1억 1천만원
- 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10-3391-35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근교
- 서울 1시간 거리의 60여년 창건역력
- 삼성각, 종각, 대법당
- 2층 종무실, 요사채2동
- 건평 총 146평
- 종교용지 364평, 임야 1,690평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010-9669-1358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5천만원

010-4396-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광면 병산골
- 2층 법당 : 아미타불, 지장, 진신사리 봉안, 후불탱화, 신중탱화
- 1층 공양간 및 스님방: 냉장고2, 에어컨3, 시수도지하수정수기
- 보증금 800만원 월 8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외딴 곳으로 연꽃 연못, 텃밭 문앞까지 포장도로, 기도 도량으로 무상

010-8558-1237

사찰부지안내

- 경남 창원골프장 반대편 산등성이
- 전 4000여평중 무작위로 골라서 1300평, 분할도 가능
- 평당 110만원(70평 이축권포함)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짱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 도심 주변 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부지안내

- 통영시 棉花山 9부능선(해발 100m)
- 비력계곡, 계획관리지역
- 전 600, 800평, 평당 25만원
- 자연의 고요함과 짙은 숲속 내음 사철 흐르는 물소리
- 산세가 목화꽃 같다는 棉花山큰 자궁터
- 안정국가공단 뒤산 이순신 장군의 대승첩지 고성군 당항포만이 바로 발밑에(세계공룡엑스포개최지)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 65평, 방 9개
- 시설비최저가절충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천만원 월세 팔십

031)427-4477

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소재
- 대형 3층 상가 內, 2층 43평
- 삼존불 및 법당시설 완벽
- 상가內 포교당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세보다 저렴)

010-4668-655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700만원, 상담후 결정

010-8390-6654

사찰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 융자 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건물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00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6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포교원안내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2
- 층수 : 1층 건물 • 건평 약 30평
- 전용 주차장 5대 • 뒷마당 약 20평
- 보증금 500만원(월 60만원)조정가능
- 불사금 500만원 (연등 200개, 관음, 냉장고 3대, 에어컨 2대, 일체생활 구비되어 있음

010-4134-4535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3분거리
- 3층 상가 건물중 3층
- 평수: 78평 (옥상사용, 산신각)
- 보증금 : 5천만원/ 월 100만원 (가격절충),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답사하신 후 조정(특A급)

010-9765-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5천만원

010-4396-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 임야,밭(약1만3천평)
- 법당 30평,삼존불,산신각 1400년 석탑(문화재지정)
- 교통편의(경주15분,부산40분, 울산,포항 30분거리)
- 가액:전세보증금 8천만원

010-3408-0003
010-2262-0001

포교원안내

- 위치 : 포교원 요양병원 최고의 위치
- 부산에서 최고 자리 지하철 역세권
- 대지 550평, 건물 900평
- 일반상업지역
- 가액: 50억

010-8676-227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주차용이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010-5262-5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진군 북면
-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 대웅전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방2개, 부엌1
- 화장실 남녀 1칸씩, 주차장완비
- 채소밭 70평, 각종 과일나무 및 꽃나무 많음
- 비닐하우스 2동
- 산 깊고 물 좋은 곳, 기도발 잘 받는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주인직접)

011-372-774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 좋은 명당터에서 자리 (땅주인 따로 있음) 작은 암자 대작불사 하실분, 도통을 원하시는분, 불치병에 걸리신분이 이 터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054)776-267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 평수 1층 40평, 교통편리
- 시설완비, 즉시법회운영가능함
- 주차장완비, 전월세조정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약간

010-7197-8216
017-580-2425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안내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해수욕장 부근
- 사용평수 50평, 2층건물에 2층
- 스님방1, 화장실3, 샤워실, 창고, 옥상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시설비 2,000만원 월 50만원

010-4178-2700

포교원안내

- 월세로 법당 하실분(중간세)
- 위치: 대구 북구
- 법당, 방, 주방 포함 50평
- 시설 최상A급
- 스님 소임관계로 급 구함
- 법납 10년 전후 스님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010-6810-8911

사찰 터 안내

- 불교종단설립지 최적
- 경남 7개시 중심지 30~40분 집중거리
- 종교부지 포함 2,500평
- 고령으로 인한 건강 관계로 인하여 불사를 이어갈
-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 가액: 답사 후 절충(중개인 사절)

011-598-769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끝자락
- 전, 임야 총 670평
- 가액: 2500만원
- 청정지역, 물 좋고 산세좋음, 1급수
- 양쪽산이 감싸고 있어 공부하신 분께토굴터로 적합

011-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 평수: 104평, 건물 법당 25평
- 산신각, 단청 필
- 포대화상, 석탑, 사자1쌍, 요사채 2동,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2천만원

019-550-9725

건 물 안 내

- 위치 : 포교원 요양병원 최고의 위치
- 부산에서 최고 자리 지하철 역세권
- 대지 550평, 건물 900평
- 일반상업지역
- 가액: 50억

010-8676-227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산격동
- 2층 40평
- 법당,주방, 큰방, 화장실
-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4만원

010-4506-530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 좋은 명당터에서 자리 (땅주인 따로 있음) 작은 암자 대작불사 하실분, 도통을 원하시는분, 불치병에 걸리신분이 이 터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054)776-267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건물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00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6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큰절터안내

스님과 불자님께만 해당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참 괜찮은 땅1300평,
남향 뒤쪽과 옆쪽은 솔밭
마을 뒷편 포장도접 건축용형질변경
허가 받았던 길지, 큰스님 절터
감정받은 명당지, 전기가설안료
작은 계곡 접 평당 17만원(부동산 사절)

中山 합장 010-3872-0354

生活佛教 하실 佛子님께

경남 마산 近郊 土窟에서
부처님 모신 촌집 法堂에서
坐地134평, 건평 39평
정원과 잔디심어있고
모든 비품 일체 제공
농약 안치는 菜蔬 먹고 살사람
총가액 1억 2천만원

011-578-1413 서연산 合掌

포교원안내

- 위치: 목포시 산정동 (사거리 코너 건물)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 칸막이 사무실1칸, 작은방, 화장실2
- 집기일체 양도 • 4층의 3층, 43평
- 길건너편 아파트 1400세대 공사 착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감정동 소재
- 평수 56평, 시장인근 최요지
- 4층 건물 중 2층
- 대법당, 친견실, 스님 처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3565-4931

사찰 및 사찰 터 안내

- 위치 :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 평수 : 법당 약 17평, 용왕당, 공양간 및 요사채
- 사찰 터 : 약 120평 (평당 25만원)
- 가액: 7천5백만원

010-9840-234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2〉 통찰력 키우기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고통의 끝자리

생각은 실체없어 즉시 사라질 감각

마음이란 것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끄달리지만 않는다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성품이 본래 비어있음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욕구하지 않도록, 그 어떤 고통도 밀어내려 애쓰지 않도록, 그래서 일체의 바라는 마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막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본성 그대로 비어있을 때는 거기엔 내 마음이란 관념이 붙을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마음 그 자체에 붙일 이름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혹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실체가 없는 것, 자아가 없는 것으로 볼 따름입니다. 단지 어떤 감각이 있고 그리고 곧 사라질 뿐입니다. '즉시 사라지고야 말 감각', 그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이름도 부여하지 않게 돼 마음은 비어있을 것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야 원래 오온의 속성이 그런 것이니 더 말할 것이 없고 문제는 마음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움켜쥐려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당신은 그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구한 나날을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또 사물에 이름표를 안 붙이고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두고 '내가 아프다'라고 이름표를 붙이거든, 당신은 그것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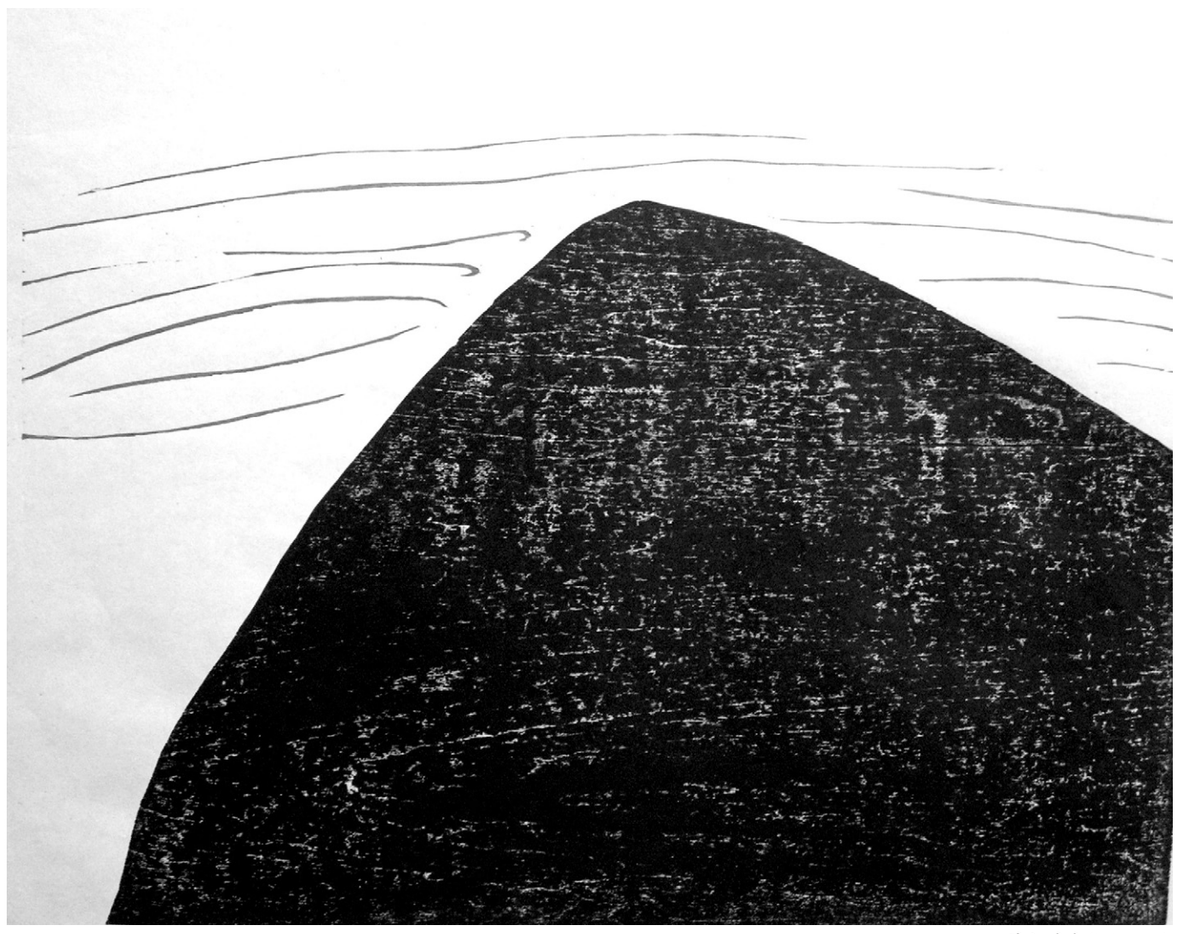
계속 수관(隨觀)을 하다 보면 그 이름 붙이기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고통은 내가 아니다. 고통은 빈 것이다'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생각 역시 잘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당신은 전혀 새롭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속절없고 고통스럽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목전의 그 일을 직시하고는 놓아버리십시오. 다만 자신이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그 본성대로 계속 비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당신을 어지럽히지 않더라도 심한 통증이 일어나거나 기분이 언짢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을 곧바로 보아야 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각을 줄곧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빈 마음을 느껴보게 되면 마음의 동요나 짜증 따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으킨 인식 그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식이 잘못된 인식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에 의한 앎을 그 바탕부터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정신적 억압과 육체적 고통이라는 현상에 주의력을 집중해 수관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빈 상태에서도 올바른 앎의 자세가 계속 견지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 끝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의 현상을 끊임없이 관찰
마음이 '아프다'고 이름표 붙이면
그 일을 직시하고 계속 놓으면서
집착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궁극적 비움'으로 수관 매진하면
감춰진 사물의 본성 보게되고
생사윤회 '텅빈경지' 나타나요



조향숙 판화 '靜觀自得'

이런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간에 거기에 아무 꼬리표도 붙이지 말고 의미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비록 기쁨이 일더라도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이라 꼬리표를 달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놓아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는 순간마다 '자아[我]에 대한 일체의 집착이 비면서 마음은 해탈[心解脫]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은 간단없이 이 수련에 마음챙김[正念]과 정진력[正精進]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누워서 고통 바라보는 당신은 행운아

거듭 말하거니와 당신은 자신이 행운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아파 누워서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팔정도를 충분히 닦아서 통찰력, 즉 지혜를 얻고 또 세상사를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지금 당신보다 더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일에 매여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바쁠 뿐 마음은 전연 매여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과 당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매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통찰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있는 그대로 사물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를 얻고 있으니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사물의 본성은 바깥 경계에서는 지금 드러나 보이는 현상, 즉 오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오온의 암호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독해나가다 보면 오온이 쳐놓은 미망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되며, 마침내 그들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어떻게 비어있는지 그 빈 정도를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정치(精緻)한 수관을 해야 하며 그래서 궁극적 비움으로 줄곧 매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 비움이란, 아무런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생함도 멸함도 없는, 일체의 변화가 멎는, 가장 깊숙한 내면에 감춰져 있는 참된 본성을 분명이 간파하는, 그런 종류의 비어 있음입니다.

사물의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외면적 차원에서 올바로 정확하게 사물의 본성을 살피고 있으면, 마음은 지금껏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저절로 내면적 차원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감춰져 있는 사물의 본성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일체 생사의 윤회가 비어있는, 순수무잡한, 그 형언할 길 없는 빔[空]의 본성을 말입니다. 무어라 할까요. 비고 비어 더할 수 없이 비어있다고나 할까요. 일체의 집착이 사라진, 꼬리표도 의미도 붙지 않는 빔[空]을…. 바라마지 않는 것은 당신이 이 빔을 당신 마음가운데서 분명히 찾아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컫는 '빈 마음'은 외적 차원을 가리킬 뿐 더 심오한 수준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진실한 빔은 비고 빈 나머지 마침내는 내면적 차원의 사물의 참된 본성에 도달하게 되며, 그것은 진실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 진실로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참으로 말로써는 나타낼 길이 없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일러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모든 것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 텅 빈 경지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일 그리고 매순간 이처럼 통찰력을 증장시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음의 경지는 제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사로잡혀 어지럽게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꿰뚫어보도록 간단없는 집중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매진하고 있을 때와 힘이 넘쳐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쏘다니는 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지요. 그러니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물에 대해 꼬리표를 달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짓거리를 하는 우리들의 우둔함, 그것이야말로 해로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들이 병들거나 죽어 가면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듭니다. 때로는 잠시 무상함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내 다른 일들에 휘말리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매순간 자신 속에서 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1901~1978 태국여성법사)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 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96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금강공원내 기와집
- 방2, 현대식 부엌
- 임법당6평
- 스님들 기도처 및 토굴 최적지
-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
- 전세 1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600
011-550-544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 요사(가정집 적벽돌) 3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상담실 6평, 공양실 10평
- 양도 1억 7천 500만원
-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마을안에 있는 암자
- 주차공간, 아주 양호함 절아래
- 대형버스 주차가능
010-2326-125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3-16
- 평수 : 20평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백만원
010-9147-12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부근
- 법당 :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 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 삼천만원 시설비 : 이천만원(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양도
- 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 몸만 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70-4142-49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내
- 포교당요지, 남부시장근처
- 평수 : 40평
- 삼존불.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55)384-153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봉하산속 토굴터
- 소천면 둔천리 1849번지 등 3필지
- 2천평
- 숲속 해발 700미터, 전기 없음
- 3천만원
- 차량진입가능, SK텔레콤만 통화됨
- 마을에서 비포장 300미터 들어감,
- 물 좋음
010-5428-414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 6천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암 자 안 내
- 위치 : 위치: 경북 군위
- 문화재 미륵불이 있는 암자 기도처
- 인법당, 기도실, 요사채, 공양실
- 평수 235평,
- 가액: 1억 5천 만원(가액 조정됨)
010-6474-590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무안 (목포시내에서 10분 거리)
- 대지 : 230평
- 대웅전 30평, 요사체, 공양간
- 동네 80가구중 대부분 불교신자, 텃밭 있음
- 가액 : 1억 7천만
010-8207-74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범어사, 남산 전철역 5분거리
- 5층건물 4층 5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관리비포함)
- 시설비 3백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모든시설완비
017-252-2722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우경' 이야기 (28)

비구가 된 개

어느 수행승의 전생…비구→개→장자의 아들

어느 나라에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상인들은 오랜 시간 바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길을 지나다 상인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 개는 너무 배가 고파 상인들의 음식을 탐냈다.

'배가 너무 고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 저기 저 고기 한 점만 베어 먹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개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상인들이 모두 잠이 들자, 식량 창고로 가 고기를 훔쳐 먹었다. 그때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한 상인이 개가 음식을 훔쳐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냈다.

"이 음식을 모두 훔쳐 먹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 상인은 화가 나 개를 몹시 때렸다. 상인에게 두들겨 맞던 개는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상인은 개를 빈 들녘에 버리고 다른 상인들과 길을 떠났다. 개는 고통 속에서 괴롭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샤리푸트라가 우연히 죽어가는 개를 발견하게 됐다. 샤리푸트라는 자신이 탁발해 온 밥을 개에게 먹이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샤리푸트라의 정성스런 간호 덕에 개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에게 은혜를 갚는 대신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거라."

샤리푸트라는 개에게 부처님 법을 설했다. 개는 샤리푸트라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 개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 후로 몇 겁의 시간이 흘러 개는 어느 장자의 집 아들로 태어나게 됐다.



삽화 · 강병호

그때 그의 아버지는 탁발하러 다니는 한 스님을 발견하게 됐다. 아버지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매번 혼자 탁발하러 다니십니까?"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혹시 제 아들을 데리고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출가시키겠단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제게는 균제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심부름을 시키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스님께 보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일곱 살이 되던 해, 스님이 장자의 집을 찾아왔다.

"자네는 몇 년 전,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자네 아들을 데리러 왔네."

장자는 반갑게 스님을 맞이했다.

"물론입니다. 아들에게 떠날 차비를 하라 이르겠습니다."

스님은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뒤, 스님은 아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균제는 스님의 말에 따라 열심히 도를 닦으며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을 하던 균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으며, 스승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균제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제가 스승님을 만나 출가하게 된 것이며, 전생에 저는 어떤 몸으로 살았습니까."

스승님이 말했다.

"너는 전생에 개였으며, 과거에 나를 만나 부처님의 법을 알았기에 지금 출가하게 된 것이다."

"저는 왜 전생에 개의 몸을 받은 것입니까?"

"먼 옛날 한 마을에 여러 명의 비구들이 모여살고 있었다. 그때 매우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비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젊은 비구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좋아했다. 또 늙은 비구도 함께 살았는데, 그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늙은 비구는 목소리가 매우 탁했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늙은 비구에게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나처럼 청아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의 젊은 비구가 지금의 너였으며, 그 후 500년 동안 개로 살아온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대한민국 상위 0.1% 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명품을 99%의 모든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의 향기
SINCE 1920

松剛堂 송강당



◎ 한의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왜 공진보를 권하는가? (수험생의 필수품)
수험생들의 피로회복, 뇌세포활성화, 집중력과 암기력을 강화해주며 밤을 새워도 피로가 없다.
강남에서 고3 수험생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2~3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공진보 복용 후 15분이 지나면 바로 생기를 찾는다.

송강 경옥보

◎ 공진보를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다?
간기능저하로 인한 질환(지방간, 간경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진다. 간이 좋으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발육,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 개선
만성피로, 기력회복, 폐결핵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효능이 매우 탁월함
◎ 당뇨, 갑상선, 간이 허약하신 분 복용 후 그 효능에 놀라실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입점

주문 전화 019-590-0009



송강/대명 공진보

귀하디 귀한 자연산 연삼을 정성스럽게
말려 차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연삼은 높은 산 습한지대에서 자라 정말이지 정성들여 체취하며
맑은 물에 씻어 생으로는 저온냉동고에 보관하고 말려서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하며 너무너무 깊은 산속에 자라는 연삼을 힘들게 체취하여
여러불자님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자 판매하고 있사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삼, 이런분께 권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때문에 걱정이신 분.
- 평소 술을 많이 드시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 체력이 쇠약해져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어린이에게는 면역력을 !! 청소년에게는 질병예방을 !!
어른에게는 원기회복을 !! 노인에게는 장수의 기쁨을 드립니다 !!

※ 연삼은 당뇨와 고혈압을 다스리고
생으로도 효과가 있으나
말렸을 경우 약효가 높아집니다.



연삼은 노다테인성분과
사포닌이 산삼을 능가할 정도로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과
노화방지 및 항암작용에 효과가 있다.

연삼 구입문의 : 김종관 010-8440-1096
구입시 입금계좌 : 농협 356-0542-3969-53 [예금주 : 허필옥]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읍니다 (인증번호 AC-01808)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 일 상 사

네이버에서 「영일상사」를 검색하세요.


대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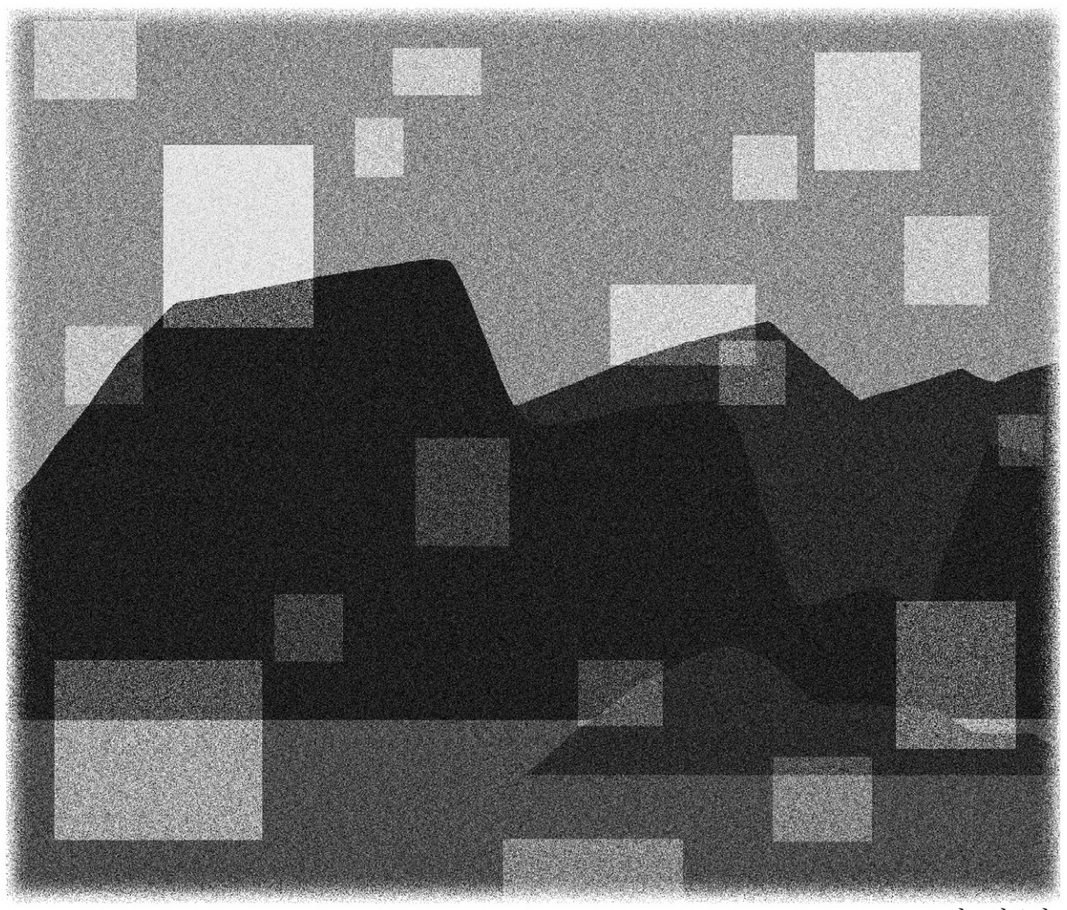
우리의 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세번째 넘어갈 때, 지금 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이라고 한다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 불바퀴가 세번째 단계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넘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벌써 중생들은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까봐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벌써 내가 물질세계에서의 그 의식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로인데도 뜨거워서 죽을 이유도 없고 뜨거울 이유도 없고, 간다 온다 할 까닭도 없고, 어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사이가 없건만, 그대로 여여하게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몸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첫번에 벌써 내 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이니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딴 데서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까 내 몸속에서 그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 의식들이 그냥 쫙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이 딱 보일 때 중심을 잡고서 '허,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하고서 딱 한생각을 넘기면 그냥 다 보살로 화하고 부처로 화할 텐데, 이건 한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질 못하죠. 재차 말하지만 빠져죽을까 봐 넘지 못하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죽을까 봐 그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 그 도리밖에 없거든. 우리의 이 마음,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어.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그렇게 밉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그거를 미워해,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러나 이쁜 일을 조금 할 때는 좋아서 그냥 발발발발 하지.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고,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좋은 말을 야불야불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진실로써 "너는 이렇다." 지적을 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이러는 마음이 자기를 깎아먹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깐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림 · 최주현

불(佛)은 뭐냐? 불바퀴는 왜 불바퀴라고 그랬느냐? 그냥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걸 불이라고 했다 이거야. 본래 자성불은 있는 건데, 자기 자성불에서 모든 거를, 나고 드는 것이 전부 그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성불은 믿지 않고 저기 계신 딴 부처님을 믿고선 "부처님, 날 좀 잘 되게 해주시오." 하는데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아니야. 공덕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공덕인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아닌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되겠나. 일체제불과 일체 보살, 역대 조사가, 역대 중생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은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한마음을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법신으로 화하시고 그래서 남이 응해달라는 대로 응해주시는 그 한마음이 돼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큰 호랑이가, 큰 소가, 큰 코끼리가 또는 독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이 백정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야,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나 똥을 눌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바로 내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한마음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뭐든지 거기다 놓고 갈 때, 모든 걸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데 한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리지. 그렇게 하면은 일체제불이, 일체 보살이, 일체 조사가 다 그냥 한마음으로 들어서, 한 찰나에 드셔서 그 묘법을 가르쳐주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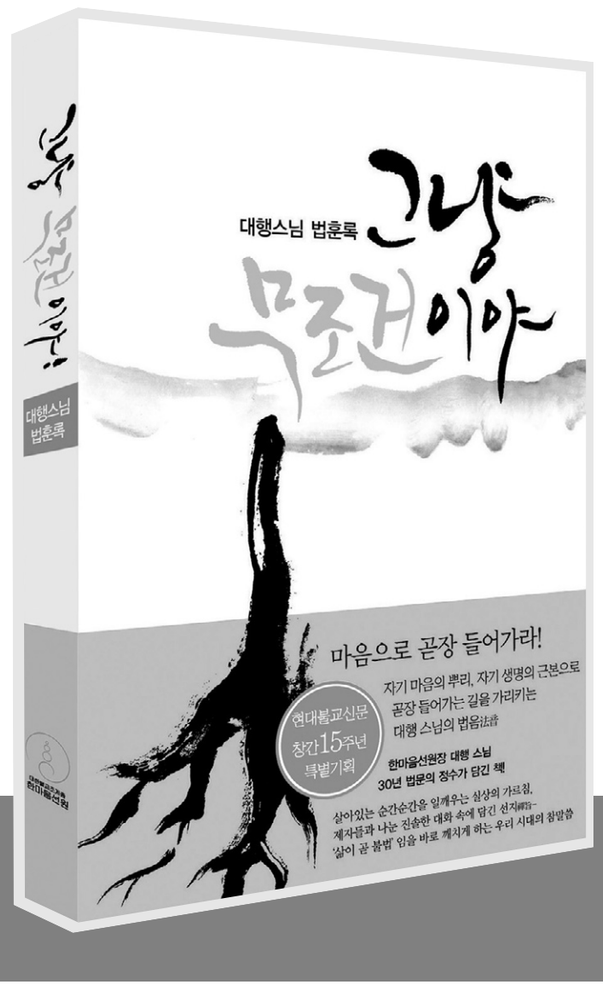
이 묘한 도리를, 이 무심도법(無心道法)을 여러분이 그렇게 갑자기, 도심으로써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터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은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행하는 게 문제죠. 백 가지 천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행을 못한다면, 그건 한 가지 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렸죠.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있어서 오신통이라는 것도 거기에 귀결돼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모두를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은 자동 컴퓨터입니다. 자동 컴퓨터. 거기에서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심안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잘 알아야 천안통이 생기는데 바로 천체망원경이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물질로 된 거는 심안의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이통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무전 통신력인데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통신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감히 물질의 무전통신기가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타심통이라 하면은 남의 속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의 마음만 알고 고것만 가지고 '도'냐. 아니죠. 우리가 풀 한 포기, 진드기 하나의 마음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서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그 얼마나 즐겁고 이 세상이 낙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비유해서 탐지기라 할 수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물질로 나오긴 했지만 아니, 내 타심통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신족통 하면 지금의 팩시밀리로 비유해도 되죠. 내 마음이 화(化)해서 원자에서 입자로 화하고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안팎을 제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보신, 법신, 화신이 전부 보호하면서, 불성 자체가 전부 모여서 불바퀴로 돌아가는 거기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물질인 팩시밀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러한 역할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팔만대장경의 바로 증거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절에는 지금 시절대로 용어가 다릅니다, 뜻은 다 같지마는. 사는 도리도 같습니다마는 그 이름, 용어가 자꾸자꾸 다르게 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용어를 모르는데, 자꾸 옛날에 부처님이 하신 용어를 가지고 가르친다면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어떻게, 그게 금덩어리 보석이라 할지언정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을, 골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지닌다면은 구태여….

또 한 가지,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럴 때 백팔염주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백팔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이 아니라면 무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백팔(百八)이라는 건 뭐냐. 백(百)은 무(無)입니다, 무. 팔(八)은 사무(四無) 사유(四有) 한데 합쳐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 생각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허허 웃고 '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너희들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놓으면 되지,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사람 된 그 마음,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아는 다스리는 마음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모두가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오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이건 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되고 증오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서 웃음이 띄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주인공은 '착하고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요것 버리고 조것 버리고 다 버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정복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밉다고 버리고, 또 즐겁다고 들이고 이런다면은 하나도 없이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결돼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대구나 저 마산,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전부, 그래도 각 지원마다 신도님들이 몇십 명씩은 다 맛을 보고 가는데, 어느 때는 가서 그 맛본 것을 내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 병고 또는 가난,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것을 병으로 알지 말고 재료로 삼아서 거기 놓고 실험을 하면은 그게 체험이 돼요. 하나하나 체험이 되면, 그때에 그 맛을 알고 들어간다면은 홀연히 내가 밝아지고, 홀연히 밝아지면 '아하! 이게 모두가 독불장군이 없구나. 회사에도 직원이 있으니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니 직원이 있구나.' 하고 웃어지죠. 허허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느껴지고 보는 대로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이 나면은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조상이 따로 있고 또는 부처님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도 한 성이요 바로 본도 하나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부처님이 해골바가지에 큰절을 하신 원인도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 즉 윤회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셨죠. 수억겁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돌아가면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세월을 걸어왔다는 거를 그렇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손수.

그렇건만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행해본 예도 없고 한 번도 말해본 예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본 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렇게 수없는 나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꽃을 한 송이 들어서 가르치셨고, 꽃을 들고 대중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또는 다자탑(多子塔)의 한자리에서 반자리를 내놔줘서 가르치셨고, 관(棺)에서 두 발을 내놓으셔서 또 평발을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그 평발의 도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발이 납작해서요? 발이 이렇게 뭉툭하게 평지가 돼서 평발이라고 한 건 아닐 테죠?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도, 별성도 모두 다 딛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진드기 발 하나 이 땅에 딛지 않은 게 없어. 풀포기 하나도, 지렁이 하나도 이 땅을 딛지 않은 게 없으니 그 발을 하나도 빼놓지 않은 게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뜻으로 알아야지 말귀만 듣고서 그걸 반복해서 달달 외운다면 그것은 허탕 가는 길이죠. 나는 경전도 배우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큰스님한테 점검을 하러 수없이 다녔습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고 위대하고 부자고 이래서만이 이 공부하는 거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도 바로 평등한 것입니다.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는데 여자 빼놓고 남자만 제일이라고, 비구만 제일이라고 해서 비구니를 우습게 안다면, 자기 나온 곳을 모를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자궁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알겠지요. 산하대지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고 저 태양계는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기를 주고 기를 넣어주고 공기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다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렇게 이거 (컵을 왼손으로 옮겨 드시며) 하나를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죠. 불, 물, 바람, 흙, 사람 이것도 우주개공을 바로 이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어느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자격 없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 조끄마한 것이 딱정벌레니 뭐니 그런 벌레들을 보면 '저런 거 없어도 될 텐데….' 하겠지만, 그런 걸 여러분 몸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끊간 데 없이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화되면서 자꾸자꾸, 별성도 자꾸 옷을 벗고 새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성 원리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재차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다. 그 의식에서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밉게 보이든지 뭐 이런 걸 모르고 두서없이 나오게 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다스려서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화신이 화(化)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까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보살이다.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깐 큰 도사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큰스님이다.' 이거 전부 다 오산입니다.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예전에 저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동네에서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젖소가 아프고 뭐, 별소리가 다 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가 아파서 죽는다면, 우리는 살림을 다 망쳐버리고 애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보살로 화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전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허허허.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독사를 건지기 위해서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독사를 보고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진드기 하나 안 돼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 자체의 그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하리까.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걸 떠나서, 모두 여러분은 기복으로 가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내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만 아는구나. 내 뼈다귀만 아는구나.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고 선 눈을 감으실 겁니다, 아마. 모두 알아야 '저 형상은 내 형상이요, 저 몸은 내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마음 내 생명과 둘이 아닌 게 되죠.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다 알고 난 뒤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때까지,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부처가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또 여기가 강당이 좁아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만약에 저 바깥에 한 시간, 두 시간을 섰다 할지라도 구도하는 자세로서 임한다면 아마 그렇게 원망은 안 할 겁니다. 남이 다 해놓은 거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기가 해서 또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겠으니깐요. 여러분한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이럭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다주는 옷을 이렇게 입어서 이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내 스승이자 바로 여러분이 부처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저 산중에, 껌껌할 때나 또는 밝았을 때나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끝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자고 했을 때, 바로 돌부리를 차서 이 발톱이 빠졌을 때, 그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그 돌도, 바로 돌부리를 차게 한 것도 바로 내 스승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인 것을 모르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는 거죠. 돌이 그러고 말을 하더군요. 허허허. 돌이 발톱을 빼놓고 하는 소리가요, '네 발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 발이라면, 한발은 못 돼. 그러니 발톱이 빠져도 싸지! 아니, 이 도량 전체가 한도량이건만 도량을 어디 가서 또 찾아?' 아, 그 돌이 나한테 그러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허, 이 돌이 바로 돌부처구나. 요만한 거 하나, 돌부처 아닌 게 없으니 그 돌부처 속에서 희한한 밝음이 나오고 돌부처 속에서 그 생수가 수없이 나오니 말이야.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 그것들을 먹고 악하면 악한 대로 독이 되고, 선하면 선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 되니 그것 참 희한하구나.' 아, 그랬다고요. 그러니 어디 부처가 따로 있으며 어디라고 정해놓은 데에만 부처가 있습니까? 저 나무 한 그루 선 것도 부처입니다. 이제 그만 말할까요?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자기 주인공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되고
증오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 웃음이 띠면서 감사함을 느끼니 얼마나 좋습니까.

※위 법문은 1991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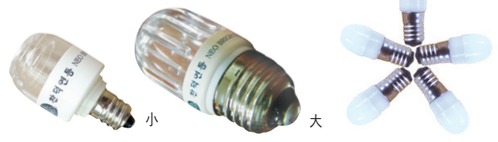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원전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불교생명윤리협 좌담회 참석

“모든 기계와 문명의 산물은 고장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해당되는 명제입니다. 원전은 위험 부담이 크고, 반생명적이며, 반환경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가 ‘원전 폐기’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前 도지사는 7월 4일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박광서)가 개최한 ‘탈핵-에너지정책’ 주제 좌담회에서 “전력 사업체, 정치인, 언론 등 원자력 마피아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前 도지사는 더 이상의 원전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기존 원전의 사용 연한 준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에너지 분산 관리 △에너지 자립 마을 시도별로 확대 등을 역설했다.

다음은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법응 스님, 박광서(서강대 교수)와 김 前 도지사의 일문일답.

박광서(이하 박): 박원순 서울 시장도 이 좌담회에서 탈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두관 지사도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당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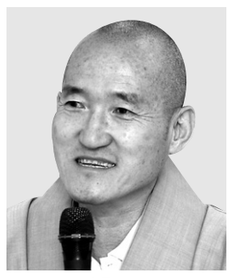
– 김두관(이하 김): 당론으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저도 개인적 의견이다. 당에도 원전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박: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은 핵전문학자다. 핵 확산을 정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 김: 새누리당 정책도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 한국의 소비산업 구조는 에너지를 고소비하게 돼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도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위험부담이 높은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도 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응 스님(이하 법응):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원전의 수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한국만 원전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공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


법응 스님


박광서 교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분산 관리 필요

韓中日 탈핵 연대 고민

NGO 활동 영역 높여야

– 김: 국가 간 연합 공동체의 형태로 유럽공동체(EU)를 예로 든다. 하지만 한중일의 경우 서로 역사들도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기본적인 민족 감정이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유기적인 연합은 어렵다. 다만 경제, 생명평화 등 목적이 있는 연합은 가능해 보인다. 실제 일본 소프트 뱅크 손정희 회장은 몽골 초원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해 동북아시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설립해야 한다. 한중일 삼국의 에너지 협력 체제는 고민·검토해야할 사안이다.

법응: 6월 21일에는 대규모 정전 대비 훈련이 있었다. 당시 500만KW(화력발전소 10개, 원전 5개 분량)의 전력이 그 짧은 시간에 비축됐다. 이는 정치지도자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절전, 탈핵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 그만큼 많은 전력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다. 나는 NGO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앙정부가 보지 못하는 것을 NGO, 시민단체 영역에서 다뤄줘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회복이 선결과제다.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社說

천태종 가족 주말학교에 박수를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족이 모든 일에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는다. 가족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문제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럴 땐 먼저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해결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천태종이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시의 적절한 발상이다. 천태종은 글로벌 문화교류포럼과 함께 7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0회(월1~2회)에 걸쳐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행복한 가족주말학교’를 개설한다.

행사 장소도 여러 곳이다. 단양과 한강 난지 캠핑장, 구인사, 농촌, 양로원, 명락사 교육관 등이다.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구인사 답사 및 농촌체험 캠프 △양로원 자원봉사 △가족 캠핑 △농촌 봉사 △관악산 등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돕기 연탄 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등이다. 실내에서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함께 땀흘리며 다양한 봉사와 캠핑 등을 할 수 있다.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다. 가족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천태종 가족 주말학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 가족은 삶의 근간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불교학 중흥에 발벗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6월 28일 최종 선정한 2012년도 ‘우수학술도서’에 불서가 단 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학술 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고 출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다. 불교계에서는 매년 10여 종에 가까운 책들이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돼 왔다. 이 학술 분야는 단순히 불교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철학, 문학, 사회과학 등 분야 전반에서 불교와의 접점이 모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우수학술도서를 보면 불교학 외 다른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학술도서는 전무하다. 매년 5~7종의 인문학 전반에서의 불교도서가 채택돼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이번 도서를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은 불교학 연구에 대한 걱정까지 남긴다. 한 심사위원은 기독교계의 학술서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교계의 학술서적은 답보상태다.

종교계 출판 현실에서는 불교계 서적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비록 올해 혜민 스님과 법륜 스님 등 매년 베스트셀러 책들을 배출하고는 있지만 종교 서고 대부분의 자리는 기독교 서적이 차지하고 있다. 문고에 비치한 책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찾는 이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좁은 입지에도 선전하는 불교서적에서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불교를 초월해 사회 현안에 답을 제시하는 것들이란 점이다. 불교의 범주를 넘어 사회, 과학과 결합되지 않는 종교는 외면 받는 것이다. 이는 인문분야의 불교학 서적이 없었던 아쉬움을 넘어서 하나의 과제로 다가온다. 오랜 세월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사 등 사회전반에 깊은 관계를 맺어온 불교학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이제 불교학계의 또 하나의 화두다.

사부대중 칼럼

독일 ‘탈핵’,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연미
환경경제학
서울대 환경계획
연구소 연구원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 기획한 제3차 탈핵기행을 다녀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의한 독일의 탈핵 에너지전환의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던 이번 탈핵기행은 우리 한국 사회와 나를 돌아보고, 미래는 탈핵 에너지전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뮌헨, 독일 남부지역 그리고 오스트리아 무렉, 귀씽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따라 탈핵기행을 떠났다. 먼저 6월 24일에는 군부대를 친환경주거단지로 개발한 아커만보겐 주거단지를 방문했다. 앞으로 2,200가구의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 중 320가구의 약 47%에게 태양열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해 난방요금의 20%를 감축하고 있었다. 6,000㎡에 이르는 온수축열조를 언덕형식으로 매립해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6월 25일 독일의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과 자연보호 연맹(분트, BUND)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은 뮌헨 뉨펜부르크성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슈바이스푸르트 재단에서 ‘핵 없는 지구를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한국과 독일의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원자력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세대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명사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국제적 연대가 요청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약식에 이어진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한독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정책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단체간 교류를 강화시킬 있는 방안을 토론했다. 세미나를 통해 독일의 탈핵 운동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탈핵이 독일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탈핵운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고 있는 독일 시민들을 보면서, 세계 5위 원전대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원전을 가동하면 전력과 함께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방사능폐기물과 원전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 남동부지역에서 ‘세슘 137’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무렉, 귀씽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현장도 뜻 깊었다. 기업들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탈핵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었다.

기업, 정부, 시민들이 함께 탈핵과 에너지전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한국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한국 사회가 탈핵의 길을 만들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탈핵이 결코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과 한 사회가 탈핵 에너지전환에 이르는 긴 여정을 생각하면,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삶의 자리에서 실행한다면 먼 미래는 오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업장소멸 법륜대

세상을 바꾼다!!

영원한 비색, 살아 숨쉬는 청자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법륜대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 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륜대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부처님 일천팔십 분이 별도의 공간없이 수미단 양쪽으로 법륜대에 봉안됩니다.
2. 금강경(찬) 수천 수만 권을 복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탁이 디자인되어 법당이 더욱 장업스럽습니다.
3. 이름과 사진이 함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특수케이스가 제작되어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특허출원)
4. LED의 에메랄드빛 연출로 화려한 반면에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12V 전압)
5. 전생록(경전)을 참조한 의식임으로 더욱 신심을 북돋아 주고, 실제 경전으로 자신의 전생빚을 소멸합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